

성남향토문화총서 ❸

판교마을지 I

성남문화원



▶ 경주부 하천 체계(「해동지도」의 경주부, 1750년대, 30.0X4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둔체당. 제풀 지내기 위해 포항을 쳐놓았다.



▶ 계풀 지내기 전 묻어둔 조라술을 꺼내어 체로 걸려 주전자에 담는다.



▶ 깃대바위

▶ 판교마을의 실태



▶ 판교마을의 어린이 놀이



▶ 판교마을의 주택

차례

총 서사	9
총 서사	11
발간사	13
제1장 들어가는 말	17
제2장 전근대사회 관교지역의 지리	27
제3장 관교의 생활과 문화	55
제4장 관교 지역의 문학	145
제5장 관교 지역의 실태 1(심평·백현·궁내동)	173
제6장 관교 지역의 실태 2(운중·석운·대장·화산운동)	203
부 록 관교 및 성남의 민물 연구사 정리	241
색인	279
편집후기	283

제1장

들어가는 말

II. 택지개발에 대한 논란

경기도지사가 한나파당 촌학규 지사로 바뀐 뒤,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이 전통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공과 주공 그리고 성남시를 판교 개발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지난달 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경기도의 참여 요청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판교개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판교는 강남과 가깝고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비즈니스 중심지로 최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유로 경기도가 판교의 빙천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제시하는 판교 신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에 경기도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주거단지에는 토지 확보도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주택단지입니다. 지금 계획은 자족적인 도시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판교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인력들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납니다.”

얼마 전에 한회가 본사를 서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비싸고 교통이 복잡해서면서 대기업의 본사들이 경기도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과 서울과 접근성, 정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판교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들어올 것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주거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에는 합리적이고 잘기
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어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포화 상태가 된 서울 강남을 종합적으로 판교로 옮길 계획을 세워야지 겁만
단순하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교부 실무자는 “판교는 모두 280만평 중 20만평을 벤치단지로 개발하기
로 이미 계획돼있다”며 “지금 경기도의 계획이 좀더 진전된 것인기는 하지
만, 크게 보면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판교개
발은 중앙질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해, 경기도의 참여를 내부적으로 결정
했음을 내비쳤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개발에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이 어색할 것은 없지만 옥상위의 상충 기관을 형성하여 기본
계획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III. 판교의 신도시 건설 사업 현황

판교 계획도시에는 280만평의 부지에 20만명의 밴화단지와 100만평(19,700가구)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택지는 단독주택지 40%, 연립주택용지 18%, 아파트용지 42% 등이고 아파트 최고층도 10층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기본 계획안은 경기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내재한 것이라서 합리적인 방안이 추진 과정에서도 고민되어야만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7월에 시행자를 선정한데 이어 건설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위한 철계 용역에 착수했다. 자문위원회는 도시, 교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위원회는 기본 구상을 물론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 환경처리계획, 자족기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건교부는 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설계 용역작업도 2002년 8월 23일 시작했다.

IV. 판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성남시는 2002년 5월 판교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암동을 빙자해 나무를 심거나 불법 흉질변경, 건축 등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된 분당구 판교동과 하산운동, 을진동 등 일대를 중심으로 선거철을 틀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4곳에 초소를 설치해 살시 감시 활동을 벌이고 한국토지공사와 공무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입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 신도시 개발은 토지와 투기로 인한 형평성의 시비나 투기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책은 판교 마을의 주민에 대한 권익이 보장되는 선상에서 마련되어야만 한다. 주변 녹지 1,200만평에 대하여 토지 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거래 동향을 수시로 시행하여 투기적 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조치해야만 어느 정도 투기의 양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은 원주민

들에게 개발의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청계산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시 및 과천시를 잇는 4개 권역에 총 1,470만평 규모의 신도시(청계산 벤리 프로젝트)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 한현규 정무부지사는 이와 같은 청계산 벤리 프로젝트가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청계산 벤리 사업은 총 14조 5,000억원을 들여 23만 9,000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71만 6,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산 벤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송파구 문정동, 강남구 배포·율현동, 성남시 수평구 신흥동, 중랑구 미수동 일대
- 서울 강남구 우면동, 경기 과천시 주암동 및 부원동, 과천동 일대
- 경기 과천시 문원동과 안양시 관양동, 의왕시 포밀동 일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촌동 및 운중동 일대

이 지역 등의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호 연계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개발면적 1,470만평에는 주거단지 238만평, 상업지구 40만평, 업무지구 78만평, 교육지구 32만평, 공원 및 도로 405만평으로 조성된다.

이와 같은 청계산 벤리 조성 계획에 따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실제로 파생될 수 있는 침상도시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일대 280만평에 들어서는 판교신도시는 서울도심에서 20km, 시 경계에서 4km 권내에 위치해 주거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이다.

판교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교통문제는 수도권의 교통난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용인, 수지, 축전, 분당의 개발 후 출퇴근에 발생하는 교통전쟁을 감안하면 판교 마을의 신임주 인구가 추가된다면 교통 지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 상황이다. 6개 간선도로를 통한 서울 진입은 현재 시간당 운전 속도가 40km에서 30km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교통량으로는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과 도로망 등의 확충과 지역 간선도로의 건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분당의 경우처럼 주변지역 난개발로 10년 만에 강남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신도시 개발 정책을 마련할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관교 신도시 개발은 교육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 정책은 최소한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신도시는 고밀도 아파트단지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주거환경을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관교의 녹지가 계속 유지되어 수도권의 과도한 발전을 억제하면서 생태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반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부유한 계층들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를 험유하는 귀족형 도시가 아니라 현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과 채소나 화훼 작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관교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되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결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천 화 속〉

제2장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I. 천림산의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1. 천림산봉수의 유래와 변천

우리나라의 봉수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옛 광주지역인 성남시에는 기록상 천천산(鄕川山) 봉수가 최초이다. 이 천천산봉수가 고려시대에도 설치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천천산봉화에 관한 기록은 세종 5년(1423) 3월 26일에 서울 남산(목멱산 봉수와 함께)에 최초로 봉화 5군대를 설치한 별조의 다음과 같은 계문에 보이고 있다.

“서울 남산의 봉화 다섯 곳을 본조가 친무소와 더불어 신예 품과 바라보고 봄을 들이 서로 조준한 뒤에 꽃을 축량하여 설치하는데 그 지명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해 올립니다. 동쪽의 제 1봉화는 명월방의 봉원령에 있는데, 양주 마북산의 봉화와 서로 마주쳐 합진도와 강민도로부터 오게 되고, 제 2봉화는 삼행방의 동원령(同原嶺)에 있는데, 광주 천천미 봉화와 서로 마주쳐 경상도로부터 오게 되고, 제 3봉화는 춘도방의 동원령에 있는데, 무악 동봉과 서로 마주쳐 패안도·황해도의 해안가로부터 오게 되고, 제 4봉화는 밀레방의 봉원령에 있는데, 무악 서봉과 마주쳐 패안도·황해도의 해안가로부터 오게 되고, 제 5봉화는 호현방의 동원령에 있는데, 양주 개화봉의 봉화와 마주쳐 충청도·전라도의 해안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위의 봉화를 들어 서로 마주치는 곳이 연대가 오래되면 혹 변동이 있을까 염려되어 철판대 한성부로 하여금 대를 쌓고 표를 세워 서로 마주치는 지명과 봉화를 드는 석례를 기록하여 둘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 중에 제2봉화로를 설명할 때 천천산봉수의 명칭이 최초로 보이고 있다.

조선은 신왕조 개창 이후 고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고려의 법제를 계승하면서도 한양 중심의 정치 및 교통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봉수 제도 역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고려의 봉수 노선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정을 알 수 없다. 조선의 통치구조가 태조·태종을 거쳐 세종과 성종대에 이르러 결국 대전체제로 완비된 것으로 볼 때 봉수제도는 세종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비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천천산봉수도 세종 5년(1423) 남산의 목멱산봉수 설치와 함께 9대 노선의 하나인 제 2의 봉수노선으로 판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천천산봉수의 설치시기는 태종대부터 세종 5년(1423)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이후 천천산봉수가 원림산봉수로 개칭되기까지의 변천을 사료에 의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始大一區穿川山在州北山道鐵石城北淮京築木堤”

『세종실록리지』(광주목조)

천천산봉수가 광주의 서쪽에 있으며 남으로 용인의 석성으로부터 전달받아 북쪽의 경성 목멱봉수에 전달하고 있다.

나. “穿川起平壤山道鐵石城南山北淮京築木堤山道二條”

『신증동국여지승람』(광주목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중종 25년(1530) 이후에는 세종대의 천천산봉수가 천천현봉수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용인의 보개산(寶蓋山) 봉수를 받아 목멱산 제2 봉수에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천산에서 천천현으로 개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개 봉수는 산 또는 현(縣)에 설치되고 있는 곳을 볼 때 천천산과 천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천천산 농선에 천천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元山山城 在大邱道固吉穿川側也南應邑(義昌)之湖面北接京郡木洞山城
二峰 緒率二十五石保七十五石”
『重刊山城志』(광주부 봉수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지 300년 후인 현종 14년(1846)에 편찬된 『중점남한지』에는 천천현봉수가 천림산봉수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의 산환 월천현조에 월천현은 일명 현천(懸川)이라고 하며, 여지승람에는 천천현으로 나와 있고 청계산과 천림산 중간에 있다고 설명하는 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천림산조의 설명에서는 천림산은 대왕면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계산과 연결해 있고 위에 봉수대가 있다고 하여, 현종 14년(1846)이전에 천천현봉수가 천림산봉수로 개칭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언제 천천현봉수가 천림산봉수로 개칭되었을까? 이에 대한 기록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현종 14년(1846)보다 117년 앞선 영조 5(1729)의 기록에 천림산봉수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즉 영조 5(1729)년 6월 16일에 목멱산과 안현봉수에서 은무를 팽개로 봉화를 거화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병조가 봉수감과 봉수문을 불러 치죄하였는데,

“또 목멱산에서 미터 봉화를 놓지 않았는데도 광주의 천림산과 양진의 개화산봉수에서 는 일가에 날씨가 청명하여 서로 견해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두 곳의 봉수민들에게도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천림산봉수는 목멱산에서 전해 받자 같았다는 것으로 봐서 두 계 하였고 개화산은 목멱산에서 서로 전해 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 바로 먼저 봉화를 칠희했다는 것으로 개화산 봉수민만 치죄하였다.”

라 하여, 천림산봉수문은 다행이 치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결국 현종 14년(1846) 홍경모가 쓴 『중점남한지』의 기록에 의하면 천림산봉수는 광주부 대왕면에 있는 청계산과 천림산의 중간인 월천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천천현이라고 하였으며, 당시에는 봉수문 25명과 봉수문 보인(保人) 75명이 편성되어 봉수군을 돋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초기의 천천현봉수가 천천현봉수를 거쳐 후기에는 천림산봉수로 개

칭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사료 라의 「광주부읍지」에 도 그대로 나와나고 있다.

라. “天臨山在州西三十里太白山南面北歷仁智山之脈南歸北歷京都本道
山臨山也。”
『광주부읍지』(봉수조)

그런데 이 천림산봉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다. 월천현봉수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호의 「태동지지」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라. “天臨山一云月川峴在西三十里”
『태동지지』(광주부·봉수조)

라 하여, 천림산봉수는 월천현이라고 하였는데, 월천현은 곧 조선 초기에 불리었던 천천현봉수라는 것이다. 결국 천림산봉수는 초기의 천천산봉수→천천현봉수→월천현봉수→천림산봉수로 변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천림산봉수 명칭이 일반화하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서는 천천령봉수라 불리기도 하였다.

라. “木豆山北臨自東北直五里 東第一 市北臨江原兩道來 楊州關山等 第二市靈山道
來 旅州天臨山也。(中略)... 第二也 河延東岸... 韓仁... 旅州通于天臨山也...”
『안기요람』권1(군정편·봉수조)

복역산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5개의 햇불 올리는 곳이 있는데, 동쪽의 제일은 함경·강원의 두 도에서 양주의 아완산봉수로 온 것을 받으며…제2거는 동래 대대포의 읍봉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산·언양·경주·명천·신령·의흥·의성·안동·예안·영천·봉화·순흥·풍기·단양·청풍·충주·음성·죽산·용인·광주의 천림산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은 40군대이며, 간봉은 123군데 있다.

사. “木豆山北臨 東第一件應陽河頭城山件應陽江原兩道來 第二件應慶州津川關山
云大頭山 仁山道來”
『동국여지비고』권2(한성부·봉수조)

천천현봉수는 천천령(芽川嶺) 봉수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조사한 「봉수조사표」(국사면찬위원회 소장)에 따르면 일제시 각 지방의 봉수를 조사하였는데 경성에서 부산까지의 경성 제2계 노선상의 천림산조에서 “천림산봉수는 일명 천천현봉수라고 하는데 대왕면 심곡리에 있으며, 광주군에서 서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목멱산 남쪽 4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 천림산봉수는 용인 포곡면 금달리에 있는 보개산(일명 석생산)봉수로부터 전달받아 죄종 목적지인 날산 목멱산 봉수로 전달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천림산봉수는 대왕면 심곡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례의 천천현 또는 월천현에 있다는 것과는 어떤 역사지리적 관계가 있으며, 세간에서 논의되고 중언하고 있는 금토동 위치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천림산봉수의 위치비정

1) 봉수노선상의 위치

천림산봉수의 전국적인 봉수노선상의 위치는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한 세종 5년 2월 남한봉화 설치 사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남산의 목멱산봉수 제 2봉에 연결되는 제2계 봉수조선상에 위치하여 남쪽의 경상도로부터 오는 봉수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만기요람』군청편, 봉수조에서 상세히 전해주고 있는바, 동래 다대포 용봉에서 처음 시작하여 양산·언양·경주·영주·신령·의홍·의성·안동·예안·영천·봉기·순흥·풍기·단양·청풍·충주·음성·죽산·용인·광주 천림산으로 통달되는데 직봉이 40처이며, 간봉이 123처라고 하였다. 이하『대동지지』,『대동여지도』 등에 나타난 제 2계 봉수노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명칭의 변천에서 본 위치비접

명칭	위치	출처	비고
천천산	주의 서쪽	『세종실록지리지』	세종14(1432)
천천원		『신증동국여지승람』	증조25(1530)
천원산	주의 서쪽 30리	『금주부금지』	천종11(1840)
천원산	대봉면 첨계산과 천원산의 중간인 월현현	『월기금현지』	천종14(1848)
천원산(월현)	서쪽 30리	『대봉지지』	율종13(1862)
천원산	대봉면 첨곡리, 광주군 서남쪽 30리	불수조사표	조선총독부

결론적으로 말해 천립산봉수는 광주의 서쪽 대왕면에 있는 청계산과 천립산의 중간인 월천현(또는 천천현)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주민들의 구원으로 전해져 온 일명 달래내고개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의 금토동(옛 금현동) 위치가 역사적 사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천천히 이 지명을 래와 천천히로의 개로

조선초기 역사기록상 천천의 떨침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세종 5년(1423) 1월 26일에 범조가 나사의 부하로서를 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나사에

는 봉화 5처를 설치하였는데, 동쪽의 제 1봉화는 명월방에 있으며 양주 아차산과 마주보고, 제 2봉화는 상명방에 있는데 광주 흰원의 봉화와 마주치며, 제 3봉화는 훈도방, 제 4봉화는 명래방, 제 5봉화는 호현방에 설치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광주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천천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천천이라는 지명은 늘 천천현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천천에 큰 고개가 있었고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하나의 도로가 형성된 것 같다. 천천현에 도로의 개설문제가 대두된 것은 현릉 참배와 직결되었다. 세종 15년(1433) 7월 22일에 행사정(行司正) 최양선, 이암달, 고중안 등과 김현천 선하들과의 논쟁에서 보인다. 즉 행사정 최양선은 천천의 큰길은 현릉의 주산 래액이니 불가분 막아야한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이암달, 고중안은 비록 큰 길이 있다하더라도 산백에는 해가 없으나 그대로 두자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질현전에서는 『음암절곡』, 『홍폐문정』, 『행도제결』, 『자리전서』, 『자리신서』, 『동립조단』, 『명산보감』, 『명당론』 등 여러 풍수자리학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최양선이 주장한 양성협(陽星嶺)의 인적론(人跡論)을 비판하고, 단산(斷山)이나 계단론(截斷論)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현릉 주산이 길로 막아야 끊어진 것은 해롭지 않고 오히려 벌(卦)의 허리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 천천현의 도로를 종전대로 두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기서 세종 15년 이전에 이미 서울 도심과 천천현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더욱 다음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천천현 도로의 개폐문제가 세종 26년(1444)에 다시 불거져 존폐논의가 재론되었다. 풍수자리가인 고중안은 종전의 입장은 선회하여 세종 26년 7월에 현릉의 도국(道局) 안에 있는 여러 무덤을 철거하고 또 주산 서쪽에 있는 제(眞, 眞)의 통로를 막아야한다고 상소함으로서, 의정부와 예조가 재론하게 되었다. 이때 의정부와 예조의 선하들은 고중안의 주장을 그릇된 사건이라고 치부하였고 또 주산 서쪽의 제(眞)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부근의 주민들과 수호군이 내왕하여 길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중하게 금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테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천천현로는 주민들과 수호군이 이용함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천천현로는 국가가 치도정책(治道政策)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인적의 왕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초기에 이르러 도성의 한양천도와 삼남지방으로의 왕래로 말미암아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종의 사후 현능을 축조, 함배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천천현로의 개폐논의가 대두되었던 것 같다. 여하튼 현재의 사료에 따르면 천천현은 세종 15년 이전에 존재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천천현에 도로를 내는 문제는 문종대에 이르러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문종 원년(1450) 10월 20일에 공조판서 정인지가 “또 천천현은 하삼도를 여행하는 자름길인데 나라에서 풍수지리가들의 말을 믿고 이 길을 막은 것은 더욱 불편하니 청컨대 옛길을 열어서 길을 다니는데 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세종께서 일찍이 명하여 이 길을 다시 개통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 하였다. 이에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만 왕래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 소, 말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천천현의 통로에 대하여 세종이 지시한 내용을 추후에 상고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문종 1년(1451) 9월 문종이 여주에 있는 영농을 앞현하고 귀경 길에 천천현 길을 막은 곳으로 행행하였는데 이때에 풍수학자 이정영, 사예 윤봉, 행부사직 이현노 등을 불러 천천현 개로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문종 역시 이곳의 지세가 높지 않아서 비록 다시 길을 개통한다고 해도 활(轔)을 이루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세종 당시 개통의 필요성을 인정한 위에서 당초 길을 폐쇄할 때의 문안을 상고하여 의논도록 하였다.

문종대 논의의 초점은 세종때의 술자(術者) 최양선이 말한 ‘천천현은 현능의 래역’이라는 입장에서 길을 막았었는데 문종 1년 10월에 이르러 천천현에

다시 사람들을 통행하도록 하고 노상에는 얇은 물을 펼쳐 지면의 흔상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문종 2년 2월 21일의 기록에 의하면 천천현개로와 박석을 까는 역사에 선군 1,000명 중 900명을 동원하여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영농부근의 산맥 보축공사 관계로 일시 지연되다가 단종 1년(1453) 8월 21일에 의정부, 예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감역관과 군인을 동원하여 결국 돌을 깎고 통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조대에 이르러서 청계산에서 사냥을 하는 등의 일로 천천현에 자주 거동하였다.

그러나 「세조실록」 권 32, 세조 10년 3월에 지리학 최양선이 서산군에 은퇴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다시 천천현을 박을 것을 상언함으로써 또 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유인 즉 천천령을 적당히 보도하고 축성하여 길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세조 10년(1464) 4월 22일에 여러 지리서를 참고하여 천천현의 통로를 막는 일의 옳고 그름을 의논한 결과, 최양선의 “인적의 왕래가 많고 죄움이 성쇠의 크고 작은을 칠험한다”는 논리를 반박하여 세종 15년 당시의 논리와 비슷하게 “조종의 래액과 주산의 과매(過脈)하는 곳에 인적이 왕래하는 것은 길하다”는 입장에서 천천현로를 옛날 그대로 개통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천천현은 현능과 같은 능힘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막았다가 결국은 개통하게 됨으로써 이 천천현로를 따라 도성으로부터 양재역을 지나 낙생역에 이르는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로로서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천천현의 명칭이 언제 고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천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성종대에 이르러 영농 참배 문제로 서울에서 여주·영릉까지의 능행로가 곧 홍인문·광주·율현·낙생역·이천·여주로 가는 길이 새로 개척됨으로써 이후 천천현로는 관과 민간인들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다.

4) 월천현과 경부고속도로 ‘탈래내고개’ 절토공사

월천현의 유래에 대해서는 남원 윤씨, 안동 헌씨 등의 족보 및 묘표에

나타나고 있는 월천(또는 월오천)에서 찾을 수 있다.『남원윤씨족보』에 따르면 시조로부터 12대인 윤극선(1527-1587)대에 이르러 현재의 금토동으로 이주하여 세거하게 된 것 같다. 윤극선은 선조 9년(1576)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이당, 흥문관옹교, 치계교 등을 역임한 인물로 그의 묘와 묘비는 당시 광주 월오천에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원 윤씨의 후손인 윤효상씨의 증언에 의하면 금토동의 남원 윤씨 선명에는 윤극선 이하 여러 명의 묘비가 있는데, 13대 윤돈(월오천), 16대 윤이재(월오천 또는 천천), 윤이수(월천현) 등과 같이 월오천, 월천, 또는 천천이라고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12대 윤우선의 증손 윤계 및 동생 윤집은 병자호관 때 칙화신으로 유명한 삼학사의 한 사람 이었다. 여기에서도 지금의 금토동은 바로 월천(또 천천)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부 고속도로 진설과 관련한 비화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달래내고개 절토공사’가 그것이다. 민간인들의 구전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속칭 달래내(또는 달이내) 고개는 경부고속도로 양제-판교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앞을 가로질러 달리는 곳에 있다. 이 구간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1968년 1월부터 건설되었는데 이 구간은 수원공구에 소속하였다. 수원공구는 당시 영등포구 양재동(현 강남구 신사동)에서 화성군 조산면 원리 사이를 잇는 38.6Km로 그 중 달이내고개는 원기(CS292440)~미동(CS315411)의 3Km의 난공사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토목공사는 현대건설이 시공했는데, 달래내고개단은 육군제 1201 전설공병단 제 220대대가 투입되어 암석굴착, 절토, 성토, 용배수로 및 배수관 설치, 비탈면보호공, 용벽 등을 시행하였다. 1968년 당시를 회고한 고속도로 건설비화에 의하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근거하여 이 지역을 한강의 갈원나루에서 시작하여 양제현·신원·월천현·판교원을 거쳐 양지현에 이르는 길로 파악하고, 양제현은 지금의 양제고개, 신원은 지금의 신원동(옛 원터·옛골부근), 월천현은 달래내고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달래내고개의 공사는 1중대가 맡았는데 전장 1.8Km 구간의 토목공사로 높이

16.4m를 절토하는 대역사였다. 이 공사는 1968년 1월 7일 시작하여 6월 20일 준공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달래내고개는 옛 월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월천현의 지명은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한국5만분지1천도 (삼,하)」(경인문화사)에서도 생생하게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고증을 통해 볼 때 오늘날의 금토동은 옛 월오천, 월천 또는 현천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천림산 봉수는 결국 금토동 월천현에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천림산 봉수대 조직

1) 봉군의 역할

광주 천림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5개 봉수통신망 중 제 2로에 속한 봉수로이다. 이 봉수로는 경상도 동래와 한성을 연결하고 있는 직봉 45개 봉수대 중 하나가 천림산 통화대이다. 이 통화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점은 한성의 목멱산 봉수대 직전에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부여된다.

봉수선로는 조선전역을 거미줄처럼 직봉과 간봉으로 꾸며 있어 국난과 반란의 금보를 즉시 한성에 알려야 하였던 통신시설임을 주지한 바 있다. 따라서 천림산 봉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각종 반란상보를 전달받아 상황을 분석·정리할 수 있었고 충청도, 경기도의 각종 상보도 천림산 봉수를 통하여 목멱산 봉수로 전달되었다.

제 1기가 경흥과 한성을 연결하고 있어 북쪽 중국과 이민족 관계의 사변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제 2기는 남쪽 왜구와 관계된 반란의 발생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천림산 봉수대 봉군들은 누구보다도 왜구의 침입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히 알게 되는 정보상 기밀을 갖고 있었다.

천림산 봉수대 군관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봉군 10인 오장 2인이 있었다. 봉군은 후방을 임무로 하고 오장은 봉군을 감독 독려하는 임무가 있었다. 아마도 천림산 봉수군도 봉졸, 봉간, 간망인, 후망인 등으로 호칭이 불리었다고 본다. 근무교대는 매 5일 교대를 하였지만 세종 때 10일 교대의 기록되어 있어 교대일수는 변화가 있었다.

천림산 봉수대는 가실을 지어 각종 생활용품과 화기, 병기 등을 보관 저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방위수단으로 적군의 침입을 널리 알리는 신호, 각들이 있었다.

천림산 봉수군은 후방을 잘하고 봉화를 천달반야 목멱산 봉수대에 알려주면 천림산 봉수대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그 전수가 용인의 석성산 봉수대에서 받은 봉수 거화 내용과 전보한 내용이 일치하여야만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 봉수대간의 거리는 차츰 연대가 촉조되어질 때 10~15리의 거리였지만 세종 때 이르러서 40리에 이르고 있었던 점에서 천림산 봉수대도 여기에 준하였다고 본다. 조선시대 역전제가 여고가 상거리가 30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사실을 보면 봉수대 상거리가 역제보다 10리 정도 더 멀게 펼어져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봉수군이 폭풍과 운무가 발생하여 봉수상황을 다음 봉수소에까지 달려가 전보하는 일은 그리 수월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봉수대의 병기

봉수군은 수군과 같이 신랑역전의 사회적 대우를 받았던 군종이었다. 변방의 적군이 침범하고자 할 때 국가의 국방과 안위에 관계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봉수는 변방사정을 중앙 도성에 알려 국난을 대비하고자 하였던 봉수 본연의 목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봉수는 변방의 사변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통신시설이라

고 한다면 봉수군은 보안비밀 취급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원임을 간과할 수 없다. 봉군은 양인으로 군역에 정발되어 봉수 군중에 보임되었던 점을 보면 기선군보다는 육지에 근무한다고 하는 위험 수단이 비교적 적은 점에서 낫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봉군도 근무처가 심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무환경이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었다.

세조 5년 봉수군은 잔열한 군인이란 점을 밝히고 군역이 잔열한 이유는 무실한 군인이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암시하고 있어 둑수군에 비하여 봉군은 기피하고 도회시되고 있었던 점이다.

조선 군역의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점은 보급품을 어떻게 보급하여 주었는가에 있었다. 「경국대전」 명전에 식량은 절제사가 공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채소와 각종 부식품은 봉수군이 자생하여 조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연대에 가설을 짓고 각종 벌기와 마침 저녁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즉, 수화기명을 간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 경상에 활살 식수를 준비하고 불을 계속 유지하여야 했으며 각종 나무를 준비하고 칼(刀), 창, 그릇(盞), 검, 극(懸牘) 등이 보관되어야 했고, 개인의 자위적 방위와 봉수대의 국비가 외부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기밀 보안에도 주력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벽을 구축, 축대를 쌓았고 나무 말뚝을 박아 주위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방위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짐승과 인마가 살상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리고 신포와 소화포도 배치하였다.

봉군이 연대에 근무하는 동안 피복은 중요한 건강과 직결되는 신체의 보온을 위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가는 피복은 공급하지 않았고 봉수군 스스로 마련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3) 봉수군 기능

봉수는 조선 근대전기사회에 유일한 통신기관이다. 그리고 봉수망은 전국적으로 5로선에 직봉 402곳과 간봉 271곳으로 총 673개 봉수대가 있었다. 봉수군은 1개 봉수소에 8명씩을 근무케 하며 전국적으로 봉수대 근무 봉군은 5,784명이 있었다. 봉수군은 오늘날 정보통신원에 해당하고 이들은 곧 현대의 전신전화국 근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신전화국 근무자가 국가 1급, 2급, 3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근무하는 거소가 같이 옛날에도 국가의 기밀사항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적군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봉수대를 점유하여 봉군을 살해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임진왜란과 별자호란 때에도 적군들은 봉수대에 침입하여 봉수군을 살해하고 각종 병기와 물품을 약탈하였다. 봉수는 국경지방의 사변상황을 전보할 때 ① 적군의 출현, ② 적군의 접군, ③ 적군의 침입, ④ 적군과의 교전, ⑤ 변경지방의 떤온 등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오늘날 통신이 국과 전화번호로 구분하고 있듯이 조선시대 통신도 봉수대와 사건 내용이 반듯이 봉수의 거화수와 봉수대를 통하여 의사가 전보되었다.

이는 한성에는 남산 남소의 부장이 사고의 유무를 보고하고 본조에는 그 일일 새벽에 상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란이 발생하면 밤이라도 상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 봉수장이 주전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통신원인 전신전화국 근무요원은 옛날 봉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봉수대는 현대의 전신전화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군은 사회적 대우는 저조하였지만 국가의 국력을 수행하는 자세와 사명의식은 높았다고 본다.

II. 낙생역

1. 낙생역과 조선초기의 역로조직 정비

조선왕조를 새로 개창한 집권세력들은 중앙집권체에 걸맞는 국가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역제(驛制)와 정비인데 이는 왕명의 신속한 전달과 변경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즉위교서에서

“역과 관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에는 사방이 번거롭게 많아서 괴롭게 되었으나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車)를 통해 공려인 사행(事行) 사민(事民) 용무로 행하는 사람은 지휘 교화를 막론하고 모두 끝급을 정치하게 하고 이를 아낀 사람은 주자를 막론하고 모두 논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고려 말의 불관한 역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역제를 정비하였다. 태조 7년(1398)에는 함경도의 역제를 정비하였고, 태종 때에는 경기도 은죽현의 유춘역(留春驛)을 비롯하여 8개 역을 신설하였다. 태종 15년에는 30리를 1석(息)으로 하고, 10리마다 소표(小標)를, 30리마다 대표(大標)를 세우고 30리마다 1개의 역을 세우도록 하였다. 세종대에는 거의 전국적인 역로를 조직하였다. 세종실록 자리지에 의하면 경기 좌도의 충청도정 역을 살펴보면 “양재(파천)-낙생(廣州)-구홍(용인)-길령(용인)-파천(죽산)-분

행(죽산)-무극(음죽)"으로 연결된다. 세조대에는 "낙생(臥生)-구홍(용인)-김령(용인)-좌찬(죽산)-분행(죽산)-무극(음죽)-강복(안성)-가천(양성)-칠호(수원)-장죽(수원)-동화(수원)-해운(남양)"의 양재도(良才道)가 확립된다.

2. 낙생역로의 조직

조선시대 도성으로부터 양재역을 지나 낙생역에 이르는 도로는 언제부터 개설되었으며, 여기에 역참이 언제부터 설치되었을까? 이 문제는 도성에서 낙생역을 지나 삼남지방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교통 노선에 친천현이 위치하고 있다면 친천현의 역사적 유래와 천천산 또는 천천현봉수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사, 병지, 참역조에 의하면 개경에서 남경 즉 조선시대의 도성에 이르는 역로는 청교도 소속의 15억참으로 청교(개성)-통파(임진)-마산(봉상-파주)-백야(고봉-고양)-영서(남경)-평리(덕수-고양)-단조(적설)-청파(남경-한성부)-노원(남경-한성부)-신주(고양)-종나(수안-동진)-금률(수주-부평)-중길(인주-인천)-녹양(간주-양주)이었으며, 또 도성에서 광주에 이르는 길은 광구도 소속의 30억참 가운데 평구(남경-양주)-대안(광주)-오빈(양근)-전곡(자평)-백동(자평) 등이었다. 한편 광주도 소속의 15억참 중 덕풍(광주)-경안(광주)-장가-안업-남산(광주-양천)-양재(과주-과천)-금령(용구-용인)-좌찬(죽산)-분행(죽주-죽산)-오행(이천)-안리(이천)-무극(음죽)-요안(음성-충주)-단월(충주)에 이르는 역참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여기서 고려시대에 설치된 역참 가운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한성(고려의 남경이 한성으로 개칭)에 그대로 영서역, 청파역, 노원역, 광구역으로 존속되었으며, 도성에서 광주에 이르는 도로에도 양재역, 봉안역, 덕풍역, 경안역, 남산역 등이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양천도 이후 도성에서 광주를 거쳐 용인-죽산-이천-음죽-충주에 이르는
이 길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부분적으로 개편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로를 형
성하게 되었다. 단 낙생역이 고려시대에 설치된 것인지(위의 장가, 안엄의
가운데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선시대에 이르러 설치된 것인지
아직 불명하다. 조선시대의 역로는 태조, 태종을 거쳐 점차 확립되었는데
태종 15년(1415) 2월 14일에 별조가 각 역의 거리에 관한 조목을 제문한
바에 따르면 주체 6척을 1보로 삼고 매 360보를 1리로 삼아, 돈화문을 기점으
로 서쪽의 영서역, 남쪽의 당제역, 동쪽의 명석역, 평구역까지 그리고 북쪽의
광시원, 녹양역까지 각 30리를 1식으로 하여 1식마다 1역을 설치, 사객의
왕래와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 도성부터 양제역을 지나 낙생
역에 이르는 역로도 태종 시기를 전후하여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지도로 본 판교와 광주



1) 1725년 광주부·민의 구상도(이자대관도)에 광주부, 1725년, 15.2x9km, 삼진서대(三珍書齋) 소장)



21 경주부 하천 제계
('청도지도'의 경주부, 1750년대, 30.0×4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2-1 광주부 관마파 주변 관세도
[‘광주도’의 광주부, 1767~1776년, 41×32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40 「여지도」, 복. 금주부, 18세기, 종합, 15.4×19cm, 서울대학교 국립작자 소장



도 관주의 경계지역 세밀도 「경기도지도」의 을주부. 18세기 중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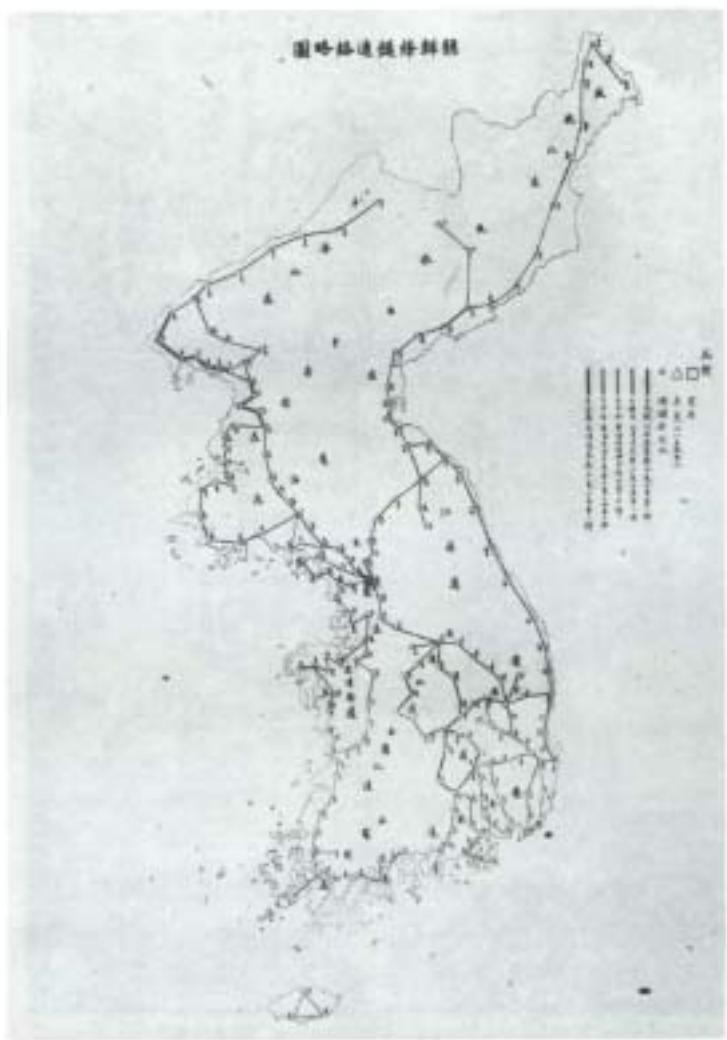
6) 갑안도 속래 군주지역 「경도군현지도」의 광주, 1780년대, 37.8×49.8cm, 서울대학교 구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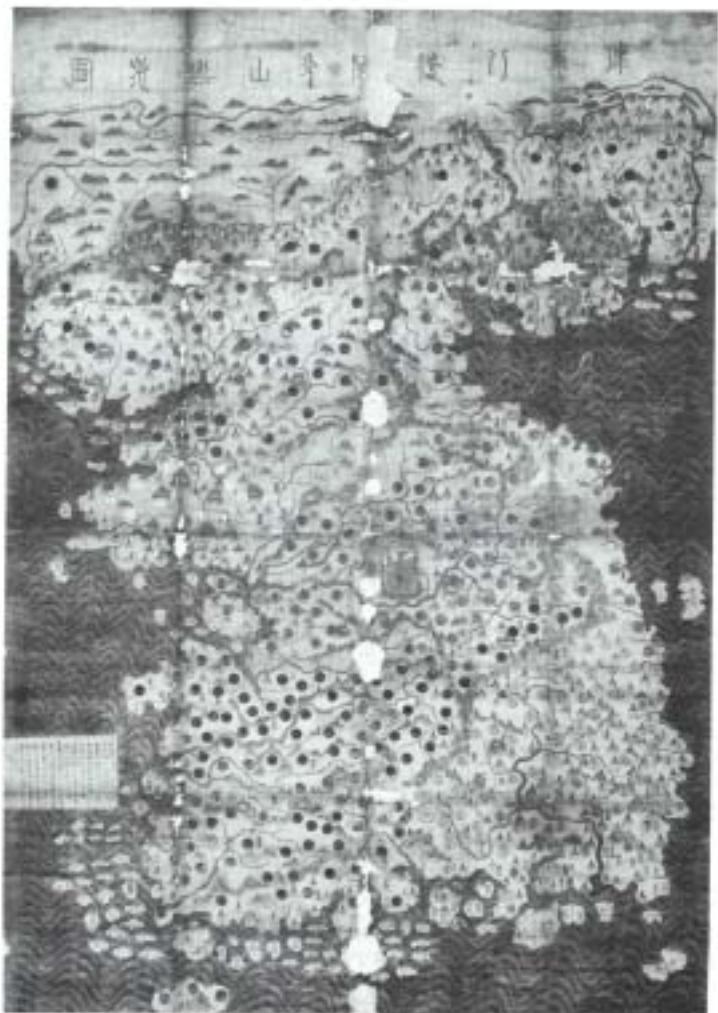
7) 「智道지도」(四書章句解註), 1785-1789, 12.0×12.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광주 인접 지역을 표시한 탑안도¹⁾(광주, 관세기 후반, 41.0×32cm; 한국경선문화박물관 소장.)



9) 「조선불수연락지도」 1914년, 국립관한위원회 소장.



304 「세종도보화산학지도」, 1684 ~ 1712년, 149.0×215.0cm, 고려대박고 대학원 도서관 소장.

〈이 삼 테〉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I.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우리나라의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며 추위와 더위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입는 옷도 차이가 있다. 또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구별될 수 있다. 우리민족은 백의민족이라 하여 과거에는 흰옷을 주로 입었다. 서구문물과 충돌하는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서양옷이 들어오고 해방 후에는 시장에서 대량으로 판매되자 우리의 옷은 ‘한복’이라 하여 일상생활에서 절차 밀려났다. 오늘날에는 특별한 행사나 명절 때가 아니면 한복을 입는 경우가 드물다. 관교지역의 경우에도 격동기 한국사회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면에서는 운중동의 60~70대 노년층의 제보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 그들이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의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해 본다.

1) 평상복

① 유아복

아이가 태어나면 몇 일이 지난 후 부드러운 음을 넣은 ‘배냇저고리’를

임하마, 100일 정도 지나 자라면 저고리를 입힌다.

② 아동복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이에게 하의는 무명이나 광목, 명주 등으로 치은 '풍차바지'를 입히고 위에는 '때기지고리'를 입힌다. 여자아이는 밑에 '고쟁이바지'를 입히고 위에는 저고리를 입힌다. 청소년이 되면 남자의 경우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힌다.

③ 성인복

남자의 경우, 겨울에는 솜으로 만든 바지·저고리를 입고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으며, 그 위에는 마고자를 입는다. 마고자는 두루마기 보다 짧은 것으로 평소에 입는데 외출 할 때는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든 중의적삼을 입는다(중의는 바지이며, 적삼은 저고리임). 주로 외출할 때는 모시적삼을 입으며, 일할 때는 삼베로 만든 등급(저고리)잠뱅이(저고리)를 입는다. 봄·가을에는 걸바지·저고리를 입는다. 바지를 입고나면 항상 대님을 맨다.

여자의 경우, 겨울에는 솔을 넣은 솜치마·저고리를 입으며, 여름에는 밑에 치마를 입고 위에는 삼베적삼이나 모시적삼을 입는다. 그러나 모시나 삼베적삼은 주로 부유한 집에서 입었으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었다. 봄·가을에는 속에 고챙이를 입고 그 위에 단속곳을 입은 후 치마·저고리를 입았다. 과거에는 브라자가 없었기 때문에 치마끈으로 가슴을 싸맸다. 여자들은 3~40년 전부터 브라자를 차기 시작했다.

2) 외출복

외출할 때 겨울에는 솜바지·저고리를 입고 위에 겹두루마기를 입으며, 여름에는 밑에 책삼을 입고 위에는 모시두루마기를 입는다. 봄·가을에는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3) 노동복

일할 때는 주로 낡은 옷을 입으며, 여름에는 삼베로 만든 둥글잠뱅이를 입는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일할 때 '몸뻬'라는 바지를 입었다. 여자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는 행주치마를 두른다.

4) 바느질과 세탁 및 옷의 손질

바느질을 할 때는 실, 바늘, 가위, 꿀무가 사용된다. 과거에는 꿀래를 둘러 목화솜에서 실을 추출하였으나 6.25 후부터 길쌈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실은 시장에서 구입했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시장에서 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것은 도시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뿐이었다.

세탁할 때 사용하는 비누는 쌈거나 깨, 고추대를 태운 재를 '췌' 위에 놓고 물을 부어 밑으로 나오는 고운 재를 받아, 베를 도정할 때 나오는 '탕기가루'와 양잿물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헬레비누를 가지고 옷을 헐면 때는 잘 나가지만 손이 트며 가칠어진다. 과거에 세수비누는 귀하여 부유한 집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수나 머리를 감을 때 물만 가지고 했으며 가끔 보리쌀을 끓인 물로 하기도 했다.

한복은 세탁하면 말린 후 풀칠을 하여, 손질을 한 후 다려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명주나 광목, 무명은 풀칠을 해야 옷이 빛나며 보기 좋다. 명주나 광목, 무명은 풀칠을 하면 다듬이로 두드린 후 다려서 입는데 다듬이

질을 하는 이유는 옷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님이 징을 할 때 서둘러 잘못 두드리면 천이 헤어져 말친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해야 한다.

5) 기타

파거에는 대부분 집에서 직접 옷을 지어 입었기 때문에 6.25전까지는 각 가정마다 길쌈을 했다. 일제시대에는 강제로 목화를 심게 하여 각 호마다 배당량을 공출하도록 하였다. 6.25후부터 시장에서 양장옷을 팔았기 때문에 점차 양장옷을 입기 시작했다.

머리의 경우, 과거에 성인남자들은 살투머리를 했으며 종자들은 더비머리를 했다. 6.25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들은 주로 살투머리를 했다. 여자들은 성인여자는 쪽을 쪘고 '까미'라 하여 머리를 둘려 쪽을 된다. 처녀들은 머리를 땋아서 매었다. 파거에는 머리를 깎거나 손질하는 일은 집에서 했는데 일제시대부터 이발관과 미장원이 출현하였다.

모자는 남자의 경우 살투머리 위에 땅건을 쓰고 그 위에갓을 썼으며, 겨울철에 여자들은 '조바위'를 썼다. 신발은 주로 절세기(짚신), 나마신을 신었다. 일제시대 때 깨다와 고무신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귀하여 마음대로 신을 수 없었으며 해방 후부터 고무신을 흔히 신을 수 있었다. 신발 속에는 베선을 신었다. [제보자 : 김향장(여, 73세, 청주시 구마동에서 18세 때 운중동 만동 김씨 댁으로 시집 올), 유치현(여, 37년생, 수원에서 24세 때 운중동 만동 김씨 댁으로 시집 올)]

2. 식생활

살고시대에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하다가 신석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잡곡이 재배되고 베농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농업기술이 발달

하고 다양한 작물이 개배되고 어업의 발달, 13세기에 이르러서는 몽고 등이 민족의 침입으로 북방식품이, 임진왜란 후에는 남방식품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서구 음식물이 유입되고 오늘날에는 한식과 더불어 중식, 일식,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등 전세계의 음식물이 소개되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삼종화된 식료품들이 상점에 비치되면서 우리의 식생활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식생활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로 대표되는 한식(韓食)이 중심을 차지한다. 아래에서는 운중동의 한 농가(農家)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식생활을 살펴본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섭취는 주로 자기집에서 경작한 것을 먹는데 특히 야채의 경우에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찬을 만들 때 자기집에서 재배한 야채를 주로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잔치, 손님 접대 등) 굳이 시장에 나가 야채를 사오지 않는다.

1) 일상음식

① 주식

가. 밥류

근래에는 쌀밥을 주로 먹으며, 가끔 콩나물밥, 무(무우)밥, 꿀밥, 혼합밥(보리, 빙, 쫌쌀 등), 오곡밥을 먹는다. 과거에는 이 마을에 보리와 조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보리밥과 조밥을 많이 먹었으며, 쌀밥은 귀하여 자주 먹지 못하였고, 나물밥, 쑹나물밥, 콩나물밥, 무밥, 고구마밥, 풂밥, 팥밥, 감자밥, 빙밥, 혼합밥, 오곡밥 등을 먹었다.

나. 면류

요즘은 국수와 냉면 등을 즐겨먹지만 과거에는 냉면은 별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 있었다. 국수는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먹는 칼국수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간치국수를 먹으며, 라면도 간단하게 먹을 때 사용한다.

다. 죽류

요즘은 죽을 잘 먹지 않으며 가끔 면식으로 먹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쌀이 귀하여 콩죽, 콩죽, 김치죽, 시래기죽 등을 많이 먹었다. 수제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요즘도 가끔씩 만들어 먹는다.

② 부식

가. 국류

- 자주 먹는 국 - 시래기국, 콩나물국, 곱국, 쇠고기국, 둥태국
- 가끔 먹는 국 - 무국, 배추국, 김치국, 장국, 미역국, 조개국

나. 찌개

- 자주 먹는 찌개 - 된장찌개, 짐치찌개, 두부찌개, 돼지고기찌개
- 가끔 먹는 찌개 - 조기찌개, 불어찌개, 닭도리탕, 개写字楼

다. 조림류

- 자주 먹는 조림 - 명태조림, 콩조림, 멸치조림, 명태조림
- 가끔 먹는 조림 - 쇠고기장조림, 고등어조림

라. 구이류

- 자주 먹는 구이 - 꿩치구이,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명태구이, 김구이
- 가끔 먹는 구이 - 더덕구이

마. 나물무침

- 자주 먹는 무침 - 배추무침, 무무침, 콩나물무침, 열무무침
- 가끔 먹는 무침 - 시금치무침, 미나리무침, 산나물무침, 파무침, 달래무

친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직접 밭에 심는 야채가 아니면 자주 막지 않음



고내를 방향분색 대로 예주

③ 저장음식

가.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은 대부분 직접 담아 먹는다. 악장과 덤북장(청국장)은 담그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 김치류

- 자주 먹는 김치 - 배추김치, 무김치, 양김치, 총각김치, 뗏잎김치, 오이김치, 부추김치, 물김치(동치미)
- 가끔 먹는 김치 - 쓸바귀김치, 짙두기

다. 지류

- 자주 먹는 지류 - 무지, 마늘지
- 가끔 먹는 지류 - 고추지, 더덕지

라. 말랭이

- 자주 먹는 말랭이 - 시래기, 무말랭이, 고추말랭이,
- 가끔 먹는 말랭이 - 가지말랭이(과거에는 많이 먹었으나 근래에는 잘 먹지 않음), 호박말랭이, 고추잎말랭이, 산나물말랭이

마. 젓갈류

- 자주 먹는 젓갈 - 새우젓, 멀치젓, 명란젓, 황란젓
- 가끔 먹는 젓갈 - 조기젓, 오징어젓

④ 가공음식

두부는 시장에서 사먹으며, 떡은 직접 도토리를 주워 만들어 먹는다. 이곳에서는 매밀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매밀떡은 만들어 막지 않는다.

2) 특별음식

① 면식

가. 떡류

떡으로는 송편, 시루떡, 백편, 철편, 인절미, 경단, 증편, 쑥떡 등을 해 먹는다. 송편은 추석때 먹으며, 시루떡은 고사나 제사를 지낼 때, 백편(백선기)은 아이들 돌 때 등, 철편과 인절미는 수시로 먹고 싶거나 놀러갈 때, 경단은 아이들 돌이나 잔치 때, 증편은 잔치 때, 쑥떡은 봄철에 쑥이 날 때 해먹는다.

나. 과자류

과자류로는 약과를 주로 만들어 먹는다. 약과는 시향을 차낼 때나 명절 때 직접 만들어 먹는다. 과거에는 명절 때 송화다식(소나무 위의 솔가루에서 나오는 송화에 쫌, 쌀, 옛 등을 넣어 버무려 만든다), 깨다식, 월다식도 많이 만들어 먹었으나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 이 지방에서 다식과 약과는 차례상에 꼭 올리며, 과거 명절 때는 닥주, 다식, 약과, 약식(찹쌀을 담구어 잣, 물엿, 참기름, 간장 등을 넣어 버무려 찐다)을 꼭 해먹었다. 이 지방에서는 강정은 만들어 먹지 않는다.

다. 화채류·음료류, 주류

근래에는 차를 사먹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먹지 않았다. 쑥혜와 수정과는 명절이나 잔치 때 많이 만들어 먹는다. 닥주(막걸리)나 동동주, 송주를 과거

에는 학질 만들어 먹었으나 근래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다. 과거에는 주로 겨울에 술을 담구어 정초에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했다. 술을 만들 때 위에 든 것은 약주가 되며, 밑에서 받은 것은 막걸리이다. 둥동주는 약주에다 참쌀을 짜서 밥알을 띄운 것이다.

라. 회류

회류로는 명절 때 쇠고기육회를 만들어 먹는다.

마. 탕류

삼계탕은 과거에 병아리를 참아 인삼과 참쌀을 넣어 끓여 먹었다. 근래에는 집에서 잘 해먹지 않고 주로 식당에서 샤먹는다. 곰탕과 닭백숙, 보신탕은 요즘도 많이 끓여 먹는다. 보신탕은 사먹기도 하고 집에서 직접 해먹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여름철에 학질(말라리아, 영양실조로 걸리는 병)을 앓았을 때 보신하기 위해 많이 먹었다. [제보자 : 김현경(미, 73세)]

3. 주생활

1) 주택의 입지(立地)

운중동과 하산운동의 주택은 청계산 국사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운중천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뒤에는 청계산이, 남쪽에는 운중천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집과 대문은 남향을 하고 있다.

<ㅁ'자형 높가의 구조>



2) 주택의 구조와 양식

결기도 지역의 민가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ㅁ’ 형태를 기본으로 몇 가지의 변형(‘ㄱ’자형, ‘ㄴ’자형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판교지역의 민가도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운중동과 하산운동의 대부분의 민가는 ‘ㄱ’자형(안재)과 ‘ㄴ’자형(바깥재) 건물로 구성된 둔‘ㅁ’자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안재의 공간배치는 건너방과 마루, 안방이 한 줄로 놓이며, 부엌에서 구부러진다. 바깥재의 공간배치는 행랑채와 대문, 광이 한 줄로 놓이며, 행랑채 옆 아궁이와 마굿간에서 구부러진 형태를 띤다.

과거에 ‘ㅁ’자형 민가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난한 집에서는 방 한 칸과 부엌만 있는 ‘—’자형 집에서 살았다. 운중동의 경우에 과거 2층 정도는 이러한 집에서 살았으나 현재는 이런 집들이 모두 헐리었다.

현재 운중동과 하산운동에는 고대(古宅)으로 70-80년 전에 지은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이러한 집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건축양식에



운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강릉집서 액 주택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이러한 집들도 대부분 구조와 지붕, 벽면 등을 개축하여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운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김풍일씨 댁(△자형)으로 80년 전에 지어진 집이다. 하산운동의 이종우씨 댁은 지은 지 100여 년 이상된 집인데 과거에는 초가집이었으나 현재는 쓰레트로 지붕을 개량하였다.

3) 주택의 변화

- **지붕 :** 새마을운동 전 운중동과 하산운동 민가(民家)는 대부분 초가집이었다. 기와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60년대 말에 돌기와가 들어와서 돌기와집이 한때는 전체 민가의 3할 정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운중동의 김두일씨 댁과 그 앞·뒷집, 순두부집 안재, 마을회관 옆집(5가구), 하산운동에 박희엽과 윤식윤씨 댁(2가구)이 돌기와 지붕을 그대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때 시멘트로 만든 양기화(1970년대)와 스레트, 합성이 들어와 지붕개량이 되면서 초가지붕은 사라졌다. 건축자재로 과거에는 목재와 흙이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시멘트와 철근이 주로 사용된다.



돌기와 지붕의 김돌립씨 댁(운중동)



돌기와 지붕의 박희엽씨 댁(하산운동)

- 담장 : 이전에는 돌이나 나무로 물타리를 만들었는데 세마을운동 때 시멘트 담장으로 바뀌었다(이때 마을길도 확장되었음). 담장개량을 할 때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나왔다. 화장실은 대부분 대문 밖 바깥마당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에 목재와 흙으로 만든 화장실을 70년대 말 오늘날과 같은 시멘트벽으로 개축하였다.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집은 근래에 주택을 신축한 몇 집에 불과하다.
- 부엌 : 부엌은 과거 아궁이에서 80년대 초 연탄부엌으로 바뀌었으며, 90년대 초 쟁크대가 설치되고 취사는 가스로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아궁이에 렌감을 넣어 난방과 취사(炊事)를 했으나 80년대 초 연탄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근래에는 석유가 사용되고 있다(이곳은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음).
- 조명 : 조명은 과거 호통불과 촛불로 했으나 70년대 초 전기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온 이후 각종 가전도구들이 이용되고 있다. 천화도 70년대 초반부터 마을에 한두 캡씩 갖추기 시작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관교지역 민가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6.25전쟁'으로 이 무렵 폭격으로 인하여 관교의 경우 대부분이 하산운동은 결반, 운중동은 일부분이 파괴되어 이때 많은 민가들이 다시 지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세마을운동'이다. 세마을운동 때는 건물의 신축보다는 '부분적인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지붕개량, 담장 고치기 등의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난방과 취사연료의 변화'다. 80년대 이후 연탄, 석유, 가스가 난방과 취사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건물의 '내부개축'이 일어난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집도 있지만 외양은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두면서 건물의 벽면과 내부를 고쳐 난방을 기름보일려로 바꾸고, 부엌에 쟁크대를 설치하게 된다.

현재 70~8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집들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내부 개축이 이루어져 전형적인 이 지방 농가(農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ㅁ'자 형태의 외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벽면과 지붕, 내부의 공간구조

가 바뀌었으며, 바깥쪽에 있던 화양간이나 창고들도 근래에는 모두 방을 꾸며 세를 놓고 있다.

한편, 운중동의 경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조용한 농촌마을의 주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문화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은 정부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외부인사나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정부예산으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도록 한다. 이 때 지어진 집들은 '국민주택'이라 불리며 현재도 운중동 도로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신축되는 집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ㅁ'자 형태의 이 지방 전통양식을 갖춘 민가와는 달리 서구식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신문화연구원 입구에 있는 '국민주택'

4) 주택을 지을 때의 풍습

- **지정단이기** :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킷터를 다졌다. 이것을 '지정단이기'라고 하는데 주로 킷터 중에서도 주춧돌이 서는 자리에 '지정돌'로 지반을 다진다. 지정들은 무겁기 때문에 돌에 쿠을 매고(보통 줄은 12개 정도 한다) 여러 명이 사방에서 줄을 잡고 높이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지정을 다진다. 이때 ‘애어리 지정이여’하면서 지정타령이라는 노동요를 부르며, 지정을 다질 때는 먼저 떡과 술을 차려놓고 고사를 치낸다.

- **목수와 일꾼** : 짐을 치울 때는 목수와 일꾼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마을에 1명 정도 목수가 있었는데 품삯이 비싸 하루에 쌀 한斗 밖은 주어야 일을 부탁할 수 있었다. 또한 짐을 치울 때는 품앗이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도 품삯을 주었다. 그러나 목재로 짐의 문격을 다 치은 후에 위에 줄을 올릴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품앗이로 와서 거들어 주었다.
- **상량식** : 살랑대 올리는 날은 고사를 치낸다. 상량식을 할 때는 고사벽을 하여 대청 한가운데에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치낸다. 이때 상량대에는 김주인이 돈과 빽어를 걸어놓는데 돈은 목수가 가지고 간다. 살랑대는 마루 위 천장에 올리는 데 살랑대(대들보)에 낸월일시를 적어 ‘시(時)’를 보아 올린다. 과거에는 대청 마루에서 살랑대가 보였는데 근래에 개축한 집들은 천장을 모두 막기 때문에 살랑대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도 짐을 치울 때 상량식은 반드시 한다. 만약 주인이 살량식을 생략하려 하면 목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자고 조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 **집들이** : 짐을 짓고 나면 주인은 술과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웃을 초청하여 집구경을 시킨다. 이때 가까운 친척들은 가개도구(가구 등)를 선물하기도 하며, 이웃집에서는 성냥, 비누, 화장지, 세제 등을 사 가지고 간다.
- **지붕이기** : 과거 초가집에 살 때는 2~3년에 한 번씩 지붕을 칼았다. 농가에서는 추수를 하고 나면 김장을 하고 울타리를 고치고, 지붕을 간다. 지붕 이는 것은 보통 추수 후부터 입동(立冬) 전 사이에 한다. 미리 이영을 엮어 바닥 한쪽에 쌓아두었다가 길일(吉日)을 보고 지붕을 이는데, 일꾼 구하기가 힘들면 길일에 관계없이 형편에 맞추어 작

업을 한다. 지붕을 이는 기술자는 한 동네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풀살이 비싸 쌀 한 팔은 주어야 일을 부탁할 수 있었다. [제보자 : 김당현
(남, 77세) 외 문촌동과 하신문동의 주민 여러분]

II. 세시와 놀이

1. 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행해지는 의례나 놀이 등을 말하는데, 고찰함에 있어서 주기반복성, 역사성, 지역성, 분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리민족은 예로부터 농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태음력에 따른 1년 열두달, 철기에 따라 다양한 세시풍속이 행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전시대의 세시풍속들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잔존하는 것도 있으나 일부는 그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운중동의 노년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설은 과거 제보자들이 전했을 때를 중심으로 하여 세시풍속을 살펴본다.

1월

1) 설

- * 차례 :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만두를 넣은 떡국을

을린다.

- **성묘와 세배** : 차례를 지낸 후 가까운 친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성묘를 간다. 성묘를 다녀온 후 동네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한다.

2) 청초

- **정초12지일** : 하남 - 꿀풀놀이를 한다. 흠헌(토끼날)을 이 지방에서는 틈날이라 한다. 여자들은 바깥출입을 삼간다. 이날은 여자들이 출입을 하지 않으므로 남자들이 대문을 열어야 제수가 좋다. 용날 - 이날 칼질을 하면 용마리를 자른다 하여 칼질을 하지 않는다. 금날 - 닭날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야 좋다는 말이 있다. 말날 - 말날에는 창을 닦근다.
- **귀신닭날** : 이날은 신발을 방에 들여놓는다. 또한 이날은 의출을 하지 않는다. 주로 경월 16일이 귀신닭날이 되는데 이날은 귀신대가리를 씰는다고 널뛰기를 한다.
- **토정비결과 신수절 보기** : 과거에는 토정비결 책이 귀하여 동네어른 중에 책을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토정비결을 보았다. 요즘도 토정비결을 나이든 어른들은 더러 본다. 주로 아주머니들은 무속인을 찾아가 한해의 신수를 본다.
- **복조리 걸기** : 전에는 동네 부녀회에서 복조리를 팔았다. 선달그룹이 되면 야간에 복조리를 각 가정에 던져놓고 갔다가 몇일 후 돈을 받으려 다닌다. 근래에는 선달그룹에 복조리를 판매하는 장사들이 올 때도 있다. 복조리를 사면 복이 들어오라고 주로 출입문 위에 걸어놓는다.
- **삼재막기** : 그 해 가족 중에 삼재가 든 사람이 있으면 부당을 찾아가거나 전에 가서 삼재막이를 하고 부적을 사서 집에 부쳐놓거나 삼재가 든 사람이 지나고 다니도록 하기도 한다.
- **홍수막이** : 정초가 되면 그 해 1년간의 나쁜 액은 다 물리카고 복이

오라는 흥수탁이 굿을 하는 가정도 있다.

- **안택고사** : 정초에는 적당한 날을 잡아 안택고사를 지낸다.
- **무풀고사** : 과거에는 운중동에 우물이 3곳 있었다. 정초에 주민들이 우물을 파내고 고사를 지냈다. 각 가정마다 안택고사를 지낸 때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우물에 가서 떡을 갖다놓고 간단하게 비손을 했다. 때에 관계없이 우물을 파내게 되면 항상 고사를 지냈다.
- **정초의 놀이** : 정초에는 연날리기, 물놀이, 널뛰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차치기 등의 놀이를 한다. 정초에는 또한 지신밟기를 한다. 풍물패가 복색과 소고, 짬색, 말 등의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대열을 지어 풍물을 치면서 각 가정을 돈다. 이때 모든 가정을 다 가지는 않고 주로 풍물패를 대접할 능력이 있는 집을 다니는데 이들을 맞이하는 집에서는 음식을 내놓고, 마당의 고사반 위에 쌀판통을 올려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풍물패의 일행 중 한 사람은 쌀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때 나오는 빨을 모은다. 지금도 마을회관에 장구와 징은 보관되어 있다. 풍물패는 그 집에 들어가면 집 곳곳을 돌면서 풍물을 치며, 덕담과 고사소리를 해준다. 해정(일제시대) 때까지는 풍물패가 모든 복색과 짬색 등을 고루 갖추고 했으나 그 후부터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20년 전부터는 이 풍속이 사라졌다. 예전에 풍물을 치던 사람들이 대부분 작고하고 젊은 사람들이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게 된 것이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적은 입춘축을 써서 집안이나 대문에 붙인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직접 입춘축을 붓글씨로 적었는데 요즘은 직접 쓰는 사람이 드물다.
- **보리뿌리점** : 입춘날 아침 보리뿌리를 브고 뿌리가 세 가닥 나면 그

해 보리농사는 풀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마을에서 40년 전부터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속을 40년 전부터는 하지 않았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14일 밤에 성주, 터주, 용왕(우물), 조왕 등지에 점시에 불기름과 세발실지를 넣어 불을 밝혀놓는다.
- 식구불 : 14일 밤 점시에 불기름을 끓고 식구 수대로 햇습으로 심지를 만들어 놓고 불을 밝혀본다. 이때 불이 잘 타면 그 해 운이 좋고 무병하다는 말이 있다.
- 오곡밥과 묵은 나물 먹기 : 14일 오후에 오곡밥을 치어먹는다. 오곡밥을 먹을 때는 갖가지 나물(깻나물, 씨래기, 고사리 등)을 준비해서 함께 박으며, 이때 김치를 먹으면 생고자리 쏘이인다 하여 김치를 먹지 않는다. 15일 아침에는 찬밥에 고기를 넣은 미역국, 볶어쌈, 김쌈을 먹는다. 15일 아침에는 이렇게 먹어야 한 해가 좋다는 말이 있다.
- 보름밥 얻어먹기 : 14일 저녁에 여러 집을 다니면서 오곡밥을 얻어먹으면 좋다 하여 오곡밥을 얻어먹으러 다닌다.
- 아홉 번 행동하기 : 14일 밤 아홉 그릇 먹고 나루 아홉 번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다.
-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 보름날 과일나무 가랑이에 돌을 끼워 놓는다.
- 달맞이 : 15일 저녁 마을 앞 들판에 절은 사람들이 나가서 불을 피워놓고 달맞이를 한다. 이때 조짚을 나이 수대로 묶어 달이 뜨면 조짚에 불을 부쳐 달을 보며 '달님 달님 철합니다'라고 하면서 소원을 빙고 절을 한다.
- 보름달 보고 풍흉점치기 : 대보름날 보름달이 청명하면 농사가 잘되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 소밥주기 : 보름날 소에게 오곡밥과 콩을 준다.
- 개보름쇠기 : 보름날 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부럼 깨물기 : 보름날 아침에 일어나면 곧 바로 부럼을 깨운다. 부럼으로는 것, 호두, 빙, 명콩 등을 사용하며, 이것을 깨물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귀밝이술 마시기 : 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울 때 귀밝이술도 함께 마신다. 귀밝이술로는 맑은 약주를 사용한다.
- 더위풀기 : 보름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만나는 사람에게 '내 더위 사가라'하면서 더위를 판다. 이렇게 더위를 팔아야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어부술 : 대보름날 조밥을 종이에 써서 정신문화연구원 옆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빙고 조밥은 저수지에 던지고 온다.

2월

1) 이월 초하루

- 나이먹 먹기 : 이날 송편을 해서 아침식사를 할 때 나이수 만큼 먹는다. 20살이면 송편을 20개 먹는다. 이 풍속은 30~40년 전부터 행하지 않았다.

2) 월중

- 졸생이점 보기 :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예전에 어른들은 2월초에 졸생이점을 보았다.

3월

1) 한식

- **한식차례** : 과거에는 한식에 차례는 지내는 낱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묘를 손보는 일이나 이장은 한식날 많이 한다.
- **찬밥먹기** : 한식날 찬밥을 먹는다는 말은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하는 풍습은 없다.

2) 월중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봄철에 가장 먼저 보는 나비가 흰나비이면 그 해 상복을 입고, 호랑나비를 보면 좋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확히 삼진날 보는 것은 아니다.
- **놀이** : 이 무렵 베드나무가지로 호들기풀 만들어 놀다.
- **다람쥐 잡기** : 봄철에 다람쥐를 잡기 위해 다람쥐를 잡으려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근래에는 없다.

4월

1) 초파일

-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 불교신자들은 이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 **화전놀이** :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여자들은 마을 뒤 청계산

계곡에 있는 ‘깃대바위’에 가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놀았다. 깃대바위는 용이 올라간 자리라는 말이 있으며, 넓고 가운데로 물이 흘러 모여서 놀기 좋은 곳이다.



깃대바위

5월

1) 단오

- 약쑥빼기 : 단오 전날 약쑥을 빼어 단오날 아침에 이슬을 맞추어 밟려 두었다가 홍난 필요할 때 사용한다. 약쑥을 삶아 요강 속에 넣어 산모가 그 위에 앉아 꾀면 좋기 때문에 산모에게 주기도 하고, 뜸을 둘 때나 모기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수리취떡 빚어 먹기 : 과거에는 단오날 수리취떡을 빚어 먹었다.
- 상추잎에 맷한 이슬로 분바르기 : 과거에는 상추잎에 맷한 이슬 위에 박하분을 풀어서 얼굴에 발랐다.
- 창포에 머리감기 : 과거에는 눈가 웅덩이에 창포가 많이 있었다. 단오

가 되면 창포를 베어 쑤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갈았다.

- 창포비녀 꿀기 : 과거에는 단오날 창포로 비녀를 만들어 꿀기도 하였다.
- 놀이 : 과거에는 단오날 그네를 많이 뛰었다.

6월

1) 유두

- 논에 가서 밀떡 부쳐먹기 : 과거에는 유두 때 병충해가 없어지라고 논에 가서 밀떡을 부쳐먹었다. 이때는 기름 냄새를 풍겨야 병충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2) 월중

- 기우제 : 과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청계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두레 : 과거에 농두레(이 마을에서는 두레를 '농두레'라고 함)가 있어 일손이 많이 가는 일은 공동으로 일을 했다. 특히 5·6월경 농사철이 되면 함께 일을 나갈 때 두레기를 들고 나갔는데, 들판으로 가다가 도중에 아랫동네(운중2동)의 두레기와 마주치면 들판에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 이때 상대편의 두레기를 먼저 쓰려뜨리는 쪽이 형님 두레기가 된다. 빠음에 진 쪽(아우 두레기)은 항상 일을 하러 가다가 형님 두레기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는 짓발을 숙여서 한다. 만약 아우 두레기가 형님 두레기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도전으로 받아들이 다시 빠움이 난다. 일을 나갈 때는 항상 두레기를 들고 풍물을 치면서 들판으로 가서 일을 할 때는 기름 한쪽에 세워놓고 일을

했다. 두레째를 자휘하는 사람은 '좌상'이라 하는데 두레째 내에서 일을 잘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좌상이 된다. 쉬고 있다가도 좌상이 '자 이제 일하자'고 소리치면 모두 열심히 일을 한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칠석이 되면 절이나 무당집을 찾아가서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비는 축원을 하며 치성을 드린다.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 **밀떡 부체먹기** : 칠석날 기름냄새를 내야 한다고 일부침개를 부체먹는다.

2) 백중

- **백중장 가기** : 과거에는 백중 꾸럼에 관교장터에서 백중장이 열렸다. 백중장에는 백중놀이로 씨름대회가 있었다. 이때 씨름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주었다.

3) 월중

- **호미걸이** : 논매기가 끝나면 호미를 벗어 걸고 척담한 날을 잡아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일꾼들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놀았다. 이 마을에는 과거에도 마슴을 부리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마슴과 관련된 풍속은 없다.

- **복날** : 복날에는 '복다림'한다고 하여 보신탕을 먹으며, 참외와 수박도 많이 먹는다.
- **벌초** : 이 마을에서는 음력 7월 20일정에 벌초를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추석 차례상에는 밤 대신에 송편을 올린다. 차례가 끝나면 조상님의 산소에 성묘를 간다.
- **놀이** : 널뛰기, 씨름

9월

1) 월중

- **산제(山祭)** : 9월 말일 낮에 산계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여 자정이 지나 10월 초파루가 접어들면 제를 치낸다(자세한 내용은 민간신앙부 분 참조).

10월

1) 월중

- **시향**: 10월에는 시향(시제)을 지낸다(자세한 내용은 일생의례부분 참조).
- **안택고사**: 추수 후 시월 상달이 되면 가을고사를 지내며 이때 안택굿을 하는 경우 있다(자세한 내용은 민간신앙부분 참조).

11월

1) 동지

- **팔죽**: 예전부터 이 동네에는 동지가 되어도 팔죽을 쑤어먹지 않는다 (조사자註: 판교에는 과거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지 때 팔죽을 쑤어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운중동도 비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1) 설달그믐

- **묵은세배**: 과거 해방 전에는 설달그믐날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지난 1년 간 선제진 짓에 대한 답례로 묵은세배를 했으나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

- 밤새기(수세) : 설날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이 깬다는 말이 있어 이날은 밤을 지샜다.
- 집안에 불밝히기 : 설날그믐날 밤에는 집안에 불을 환히 밝혀놓는다.
- 집안 청소하기 : 설날그믐날에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월중

- 참새잠이 : 과거 초가집이 있을 때는 초가집 지붕 위에 굴을 만들어 놓고 참새가 그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새를 잡으려 많이 다녔다.

물달

수의를 만들거나 묘이장, 사초, 잡수리, 이사 등은 유통에 많이 한다.
[제보자 : 김명현(남, 77세), 김현정(여, 73세) 외 주민 여러분]

2. 놀이

놀이는 집단놀이, 개인놀이, 어른놀이, 아이놀이, 남자놀이, 여자놀이, 계절에 따라 행해지는 놀이, 놀이 자체를 위한 놀이, 노동과 결부된 놀이, 의례와 관련된 놀이 등 성별, 나이, 목적, 시기에 따라 그 종류와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근대화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각종놀이들은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더불어 그 가능성이 상실되었으며, 사람들의 기호(喜好)도 바뀌었다.

소꿉장난이나, 공기놀이, 자치기 등을 하던 아이들은 이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작된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두레놀이, 자신밟기 등 농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놀이들은 기계화, 도시화, 농업인력의 감소 등으로 기능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에 성인들이 즐기던 놀이들이 멀리나고 그 대신 노래방 등의 현대식 유흥문화가 어느새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해져 있다. 또한 벨레비전, 비디오, 영화 등의 영상매체들도 놀이문화의 변화에 큰 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놀이들은 운중동의 노년층의 제보를 통해 그들이 젊었던 시절의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서술한다. 이제는 상당수 행해지지 않는 놀이지만 근래에도 윷놀이 등은 펌맥이 유지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아이들의 경우, 팽이치기, 자치기, 채기자기, 사방치기, 연날리기 등을 많이 하며 소꿉장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오챙이놀이, 구슬치기 등은 난중(年中) 아무 때나 한다. 어른들의 경우, 정월에는 특히 윷놀이를 많이 하는데 정월 15일이 되면 마을 경노당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린다(윷놀이 대회는 2002년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음). 또한 정초에 자신밟기를 할 때 각 가정을 돌면서 고사반을 하고 술과 음식을 먹고 품물을 치면서 한바탕 한다. 겨울철에 어른들은 화토놀이도 많이 한다.

봄철에 부녀자들은 화전놀이를 가는데 4월 초파일이 되면 마을 뒤 청계산 계곡에 있는 깃대마위에 음식을 준비해 가서 논다. 봄철에 아이들은 버드나무가지로 호들기를 만들어 불면서 논다.

여름 농사철이 되면 어른들은 두레가 있어 풍물을 치면서 들관으로 나가 일이 끝나면 한 바탕씩 놀며, 가끔 이웃마을과 기싸움을 하기도 한다. 단오에는 그네뛰기를 한다. 단오가 임박하면 마을 청년들은 나무를 베어와 마을 앞 개울가(현재 순두부집 앞) 풍터에 그네를 만들어 놓는다. 단오날 여기에서 청년회가 주최하는 그네뛰기 대회가 열려 1등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준다. 그네놀이는 모기를 치는 것이라는 말이 있으며, 단오에 그네를 뛰면 몸이 건강해진다 한다. 벽중에는 판교시장에서 벽중장이 열리며 씨름대회 등의

백증놀이가 있어 그곳에 가서 논다. 여름에 논례기가 끝나고 나면 호미걸이를 한다. 이때는 잠시 한가한 시간이 있으므로 일꾼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논다.

추석에는 널뛰기와 쇄를 한다. 한때 3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는 추석에 상품을 준비해놓고 마을노래자랑이 있었다.

한편, 과거 전통사회에서 놀이와 일과 의례는 뚜렷한 구분을 가지지 않았으며, 일과 놀이, 의례와 놀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을 할 때 놀이가 결부(두레놀이, 지정다치기 등)되어 있었으며, 의례를 행할 때도 놀이가 결부(상여놀이, 회단이, 궂놀이)되어 있었다. 판교지역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III. 일생의례

1. 출산의례

오늘날 출산의례는 많은 변모를 겪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아이의 출산은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하며, 가끔은 삼신상을 차려놓거나 금줄을 치는 가정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점차 이러한 풍속은 사라져 가고 있다. 벽원이나 둘째치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했으나 근래에는 성남 등지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하는 경향이다. 아래에서는 현재 70대 노년층들이 과거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울 때의 풍속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1) 출산전의 풍속

- 임산부나 가족이 금기하는 행위나 음식 : 일신하면 닭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먹으면 애기의 몸으로 뼈가 들어가서 해롭다. 임산부는 과일을 먹어도 반듯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개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는 자리에 누울 때 '자리와 자리가 만나는 중간지점에 있으면 해롭다'하여 이것은 피한다. 집안에 임산부가 있을 때 '구불장을 고치면 언쟁이를 낳는다'하여 고치지 않는다.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방법 : 배가 불렀다가 밑으로 치지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
- 유산방지를 위한 방법 : 임산부가 놀랐거나 하여 유산이 우려될 때는 호박이나 오이줄기에 난 심자(이것을 '지네발'이라고도 함)를 따서 꿀에 먹는다.
- 임신한 아이를 떼기 위한 방법 : 한 간장이나 육모초 즙을 마시거나 흉나무 뿌리를 살아 먹는다.
- 태몽 : 복숭아를 따오는 꿈은 딸이며, 대추와 살구를 따는 꿈은 아들이며 응봉은 출룡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꿈이다. 호랑이와 벌을 꿈속에서 보면 아들이며, 꿈속에서 말반을 보면 아들이고 떨어진 밤송이를 보면 딸이다. 또한 큰 잎어를 본 꿈은 아들을 낳는 꿈이며 별꿈은 좋지 않으나 작은 별을 보면 딸이고 큰 구렁이를 보면 아들이다.

2) 출산풍속

- 출산준비 : 출산이 일박하면 안방에 자리를 걷고 깨끗한 짚을 한다. 가위, 실, 가제수건(소장으로 준비), 애기가 입을 베내저고리, 포대기, 대야에 더운물을 준비해 둔다. 가위와 실은 땃줄을 침아매어 끊기 위해 사용하며 가제수건은 땃줄을 끊은 후 아이의 배에 솜을 대고 묶어 주기 위해 사용한다. 아이에게 배에 가제수건을 물려주지 않으면 덧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 산파 : 외지에 있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산파를 불러오지만 시골의 경우 대부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파역할을 한다. 애기를 낳은 후에도 산모는 3주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나 친척들이 도와 주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산파를 불러온다. 산파는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 도와 주는 데 합당한 수고

비를 주어야 한다.

- **순산을 위한 방법** : 산모가 쉽게 아이를 순산하지 못할 때는 산모 앞에서 삼신할머니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비손을 한다. 이때 삼(朱)을 치려놓지는 않는다.
- **태아의 처리** : 아이가 나오면 맷줄을 실로 묶어 가위로 자른 후 배에 솜을 대고 소창으로 배를 두른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고 손발 등을 간단히 씻겨 낸 후 포대기에 빠서 아랫목 따뜻한 곳에 둔다. 아이의 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산모의 몸에서 나오면 추워서 떤다.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며 아이가 나오면서 기절을 하여 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이를 거꾸로 하여 밥을 들고 불가를 폐리면 운다. 아이는 태어난 후 사흘 동안 아랫목에 두었다가 그 후부터는 모유를 먹이고 자주 목욕을 시켜준다. 아이를 놓은 산모에게는 곧바로 '첫국밥'을 막인다. 이때는 쌀밥과 미역국, 긴장반 백이며 다른 반찬은 주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속이 비었으므로 바로 밥을 먹어야 한다.
- **태의 처리** : 맷줄은 질으로 빠서 불에 태운다. 자기김 마달 끝에 둘을 놓고 겨우 질을 팔아 깨끗하게 태운다. 이때 태는 것에 있어 한참동안 태워야 한다.
- **삼신상 차림** : 아이가 태어난 후 3일째 되는 날 야침에 아이가 누워있는 머리 위쪽에 깨끗한 질을 깎고 쌀밥과 미역국, 물을 윤려놓고 "삼신 할머니, 삼신할아버지 삼신차은 오이차라 듯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빈다. 삼신상은 상위에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짚위에 올려놓는다. 비손을 한 후 삼신상을 끈 치운다. 삼신상을 오래 두면 '아이가 질게 운다'는 말이 있다. 삼신상에 차려놓았던 밥과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다. 삼신상은 아이가 태어난 후 3일, 7일, 14일, 21일, 백일, 돌 때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차려놓는다.
- **금줄** : 아기를 낳으면 본 바로 대문에 금줄을 쳐서 21일이 지나면

걸어낸다. 원세끼를 꼬아 아들일 경우에는 고추와 숯을, 딸일 경우에는 솔가지와 숯을 담아낸다. 고사를 지낼 때는 금줄에 종이를 담아메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는 종이는 담아매지 않는다. 금줄을 걷어내는 21일이 지나면 이웃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아기의 의복** : 아기에게는 배내저고리를 부드러운 용으로 만들어 입힌다. 생후 100일 정도가 되면 아이가 크게 자라므로 배내옷을 벗기고 저고리를 입힌다. 배내옷을 깨끗하게 뺏아 동생이 태어날 때 다시 사용한다. 기저귀는 태어날 때부터 채워 아이가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을 때까지 착용하도록 한다.

3) 양육풍속

- **이름짓기** : 아이를 낳기 전에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를 대비하여 이름을 지어놓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생후 3일이 지난 후에 집안의 할아버지가 지어준다. 과거에는 유아사망이 많아 한 달이나 100일이 지난 후에 호적에 올렸다.
- **배냇머리와 손·발톱의 처리** : 배냇머리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란 머리를 말하는데 새로 좋은 머리카락이 나라고 잘라서 태운다. 또한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손톱과 발톱이 길므로 칼로 자르면 상처가 날 것을 우려하여 산모가 입으로 뜯어준다. 이때 나온 손·발톱은 버린다.
- **첫나들이** : 보통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메고 나들이를 다닐 수 있다. 과거 아이를 등에 업 때 사용하는 ‘치녀포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싼 것으로 부잣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다.
- **대소변 가리기 훈련** : 아이가 점차 자라면 대소변을 가리도록 가르친다.

- 젖때는 방법 : 보통 두 풀이 지날 무렵이 되면 아이에게 죽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젖을 뺀다. 이때 아이가 젖을 물면 쓴맛이 나게 '갱기란(과거 악방에서 피는 약)'이나 쟁박이 진을 찌셔 젖에 바르면 아이가 젖을 물지 않는다.

4) 백일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면 평소 때와 같이 저고리를 입하나 깨끗한 옷을 입힌다(이때는 아직 아이가 많지 못하므로 눕혀둔다). 그리고 절 위에 삼선상을 전파 같이 차리고 상(座)위에 백일상은 차린다. 백일상은 돌잔치 때보다는 음식을 적게 차리므로 작은 상을 사용한다. 상위에 수수풀떡, 백설기, 쌀밥, 미역국, 설 한 타래를 차려 아이 앞에 둔다. 그리고 일가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하여 아침밥을 함께 먹고 빙을 이웃집에 나누어준다.

5) 돌

돌잔치 때는 아이에게 쪽동저고리, 타리개머선(꽃머선), 복건(남자아이가 머리에 쓰는 것, 여자아이에게는 조바위를 빠움)을 입힌다. 과거에는 칙자여 입혔으나 요즘은 한복집에서 사운다. 보통 5만원 정도면 한 벌을 구입할 수 있다. 근래에는 아이에게 이때 개량한복을 입히는 집도 있다.

돌상은 백일상보다 잘 차린다. 큰 상위에 수수풀떡, 백설기, 송편(송편은 속이 알므로 아이가 송편처럼 상냥하다는 뜻이라 함), 인절미(인절미는 팔지므로 속이 든든하다는 뜻이라 함), 짹, 연필, 돈, 쌀, 실타래(빨 위에 엎어 놓을)를 올려놓는다. 이때 아이가 먼저 잡는 것을 보고 아이의 장래를 점쳐본다. 근래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사진을 찍기 위해 돌상에 과일이나 과자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과일과 과자는 올려놓지 않았다.

돌 때도 백일 때와 같이 일가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떡을 이웃에 돌린다. 부유한 집은 백일과 돌잔치를 다 잘하는 집도

있으나 대개는 백일은 간단히 하고 돌잔치는 크게 한다. 백일 때나 돌 때 떡을 가지고 이웃집에 가면 그 집에서는 팔(부자되라는 의미)이나 실타래(오래 살라는 의미)를 준다. 근래에는 돈을 주거나 반지, 은수저, 주발, 옷을 사주는 등 부조하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제보자 : 김현정(여, 73세)]

2. 혼례

혼인은 남녀의 결합임과 동시에 두 집안간의 인척관계를 형성한다. 「사례 편람(四禮編覽)」이나 각종 의례서에는 의혼, 납례, 납례, 친영 등의 의례순서가 소상히 정해져 있으나 실제 민간에서는 각 지방이나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행해졌다. 특히 민간에서 행해진 혼례에는 유교 의례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민간신앙적 요소도 많이 결합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전통혼례가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운중동에서 마지막으로 전통혼례식을 한 것은 20여 년 전으로 김현정의 큰딸이 김현정의 킴 마당에서 혼례식을 한 것이다. 여기서는 운중동 주민 김현정과 박충용이 결혼할 당시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본다.

1) 혼례전의 절차

- 중매·맞선 : 이웃에서 중매가 들어오면 맞선을 본다. 김현정의 경우 중매를 통해 18세가 되던 1948년 겨울에 구미동에서 운중동으로 사립을 왔다. 맞선을 볼 때는 직접 선랑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고 부친이 선랑을 보았다. 박충용의 경우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6.25로 인하여 수원으로 피난을 왔다가 당시 운중동으로 피난 온 친척의 중매로 19세 때(1952년) 운중동의 안동 김씨(安東金氏) 김택기(당시 25세)와 결혼

- 하였다. 박충용은 맞선 당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신랑을 대면하였다.
- 궁합보기 : 맞선을 본 후 양가에서 마음에 들면 궁합을 본다. 궁합을 보아 적당하면 양가에서 상의하여 혼례날짜를 잡는데 주로 신랑집에서 책력을 보고 길일(吉日)을 잡는다. 이때 신부집에서 고사는 치내지 않았다.
 - 할 보내기(納幣) : 혼례일이 다가오면 신랑집에서 저고리감, 혼서지(비단보자기에 싸서 청실·홍실로 묶음), 예물로 준비한 가락지와 비녀 등을 함께 넣어 신부집에 보낸다. 함은 신랑친구들이 들고 갔는데 아주 옛날에는 하인들이 들고 갔다는 말이 있다. 할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대청에 소반을 놓고 함을 옮긴 후 함 위에 미리 준비해놓은 활박을 올린다. 잠시 후 활박은 함을 지고 온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함은 풀어 신부의 부친이 눈으로 보지않고 손만 함 속에 넣어 먼저 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이때 남색관을 먼저 잡으면 아들을 낳고, 붉은천을 먼저 잡으면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한 후 신부 모친이 함을 확인하고 혼서지는 장봉 속에 넣어 두면 신부가 시집 간 후, 친절 나들이를 왔을 때 이것을 흥처간다.

2)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차례 : 혼례식 마침이 되면 신랑집에서는 아침식사 후 방이나 마루에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이때 막은 하지 않고 과일과 포 등을 간단히 차려놓고 계(祭)를 지낸다.
- 신랑의 신부집 가기(親迎) : 신랑집이 먼 곳에 있는 경우 신랑은 한복을 입고 신부마을에 도달하면 '새채방'(신부마을에 빙방을 짓고 그곳에서 살지 시간이 된 때까지 기다린다)에서 사모관대를 입고 가마부자집의 경우에는 말을 탔으나 이 마을에서는 보통 가마를 탔다)를 타고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신랑이 사모관대를 입고 마을로 들어오면

동네 청년들이 재를 신랑에게 뿌린다(이것은 ‘동악 때리기’라고 하여 아귀를 물아내기 위한 풍속이다. 이 마을에서는 신랑이 혼례상 앞으로 갈 때 바가지를 밟는 풍속은 없음).

- 혼례식 : 신부집 안마당에 차일을 치고 대례상을 차려놓고 신랑을 맞이한다. 신랑이 대례상 앞으로 오면 신부도 대례상으로 나간다. 대례의 절차는 흥기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대례상은 신랑·신부가 동서(東西)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차려놓는다. 대례상에는 창닭과 알탉은 올려놓는데 혼례식이 끝나면 닭은 내려서 끓어준다. 한편, 대례청에서 예식이 진행되는 도중 국수를 먹일 때는 동네 청년들이 긴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국수를 집어 신랑에게 먹이는 쟁난을 치기도 한다. 대례가 끝나면 ‘합례’ 시킨다 하여 신랑과 신부를 같은 방에 들여보낸다. 이때 신랑·신부는 잠시 같은 방에 대면을 한 후 각자와 방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
- 신랑집으로 가기(新行) : 대례 후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당일 또는 다음 날이나 사흘이 지난 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간다.
-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올 때의 풍속 :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와서 방으로 들어올 때 신부집에 있는 사람들은 ‘주당살’을 피하기 위해 주당살이 든 방향에는 서있지 않는다. 한편, 신부가 신랑집으로 올 때는 가마에 신랑·신부의 주발, 대접, 수저를 한 끝씩 가지고 오는데 주발과 대접은 놋그릇을 사용한다. 이때 주발 속에 활발한 그릇과 팔한 그릇을 넣어서 가지고 오는데 사흘째 되는 날 활팔은 밤을 해 먹고 팔은 나중에 심거나 심지 않으면 친정에 다시 가져다 준다.
- 폐백(幣帛) : 신부가 신랑집에 도달하면 식사를 하고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시부모, 조부모 순으로 가까운 가족, 친척들 순으로 모셔놓고 신랑·신부가 함께 절을 한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릴 때는 시부모가 신부의 치마에 대추나 밤을 던지며 ‘아들딸 몇 만나라’고 한다. 폐백상에는 대추, 밤, 폐백豆, 징종을 차려놓는다.

- 차례 : 괘백을 한 후 신랑·신부는 대청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혼례가 이루어졌음을 고하기 위해 차례를 치낸다. 이 제상(祭상)은 간단히 과일, 포 등을 함께 국수를 조상 수대로(명절 때 모시는 조상과 동일) 반드시 올린다.
- 신방(新房) : 신랑·신부가 첫날밤(初夜)을 맞이하면 신방에 '입매살'이라 하여 소반 위에 떡국과 술, 안주 등을 차려준다.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은 신부의 원삼(활옷), 족두리, 비녀를 풀어 준다.
- 재행(再行) : 혼례가 끝난 후 몇일이 지나면 신랑은 친갓집에 가서 장인·장모께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 자고 온다.
- 첫 친정나들이(親親) : 신부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친정에 갈 때는 옛, 떡, 바선, 술 등을 해 가지고 간다. 과거에 가난한 집에서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집도 있었다. 이때 가지고 간 벼선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준다. 친정집에서 신부를 시댁으로 보낼 때는 담배로 옛, 떡, 벼선 등의 선물을 준비하여 시댁에 보낸다. 이 때 가지고 간 떡은 이웃집에 나누어준다.

3) 혼례용품

① 혼례복

- 신랑 : 신랑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은 후, 단령(團領)을 입고 사보(紗帽)를 쓰고 품대(品帶)를 두르고 목화(木靴)를 신는다.
- 신부 : 신부는 빨강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한삼(활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며 불에 연지·곤지를 찍는다.

② 혼례음식 및 용품

- 대례상 : 대례상에는 밥, 대추, 꿀, 풍, 국수, 잠달과 암탉, 청색과 흥색의 촛대를 올린다.
- 친받이상 : 대례 때 신랑·신부 양옆에 소반을 놓고 그 위에 술병과 잔(표주박), 풍나물(안주를 하기 위해)을 올려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친받이상 위에 두부는 올려놓지 않았으며, 신랑·신부 양옆에 준비해 놓는 대아와 수건은 차려놓지 않았다.
- 폐백상 : 과거에는 대추, 밥, 폐백닭, 절종을 차려놓았으나 요즘에는 이외에도 많이 차려놓는다.
- 신방상 : 이 마을에서는 첫날밤 신랑·신부가 떡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상을 '임매상'이라 부른다. 임매상에는 소반 위에 떡국, 술, 안주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하객점대음식 : 잔치집에서는 하객들이 오면 국수, 떡, 강정, 악과, 고기, 부침개, 식혜, 막걸리 등을 주진하게 준비하여 대접한다.
- 혼례시 문반도구 : 부잣집의 경우에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탔으나, 대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가마를 탔다.
- 혼례용품 보관 : 가마, 신랑·신부의 대례복 등 혼례용품은 운중동 안동 김씨들의 경우 종가(宗家)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다.
- 혼수품 : 과거에 대개 신랑집에서는 함속에 웃갈(재단)과 비녀, 가락지 등의 예물을 넣어 신부집에 보냈으며, 신부집에서는 신랑의 바지·저고리, 부부의 이부자리, 신부가 입을 옷 몇 벌, 신부가 사용할 화장품인 구루무, 바하문(이것은 물에 죄여 바른다), 머릿결에 광채가 나는 동백 기름 정도가 혼수품의 전부였다. 근래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부모, 친척의 옷과 신혼살림에 사용할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이 다양하다.

4)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과거에 이웃집에 혼례가 있으면 주민들은 국수 한 간, 술 한 통이 등 잔치집에서 사용할 음식을 부조로 가져갔다. 이때 잔치집에서 부조로 들어온 물품들을 부외복에 기록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웃집에 잔치가 있으면 담례한다. 6.25 후부터는 부조로 돈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6.25 직후에는 부조금이 보통 500원 또는 1000원 정도였다. 한편 같은 동네나 가까운 이웃에서 잔치가 있으면 여자들은 전부치기, 국수삶기, 설탕거지 등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남자들은 음식상을 날라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다.
- **통혼권** : 예전에는 주로 가까운 이웃동네나 수원, 용인 등 인접한 지역에서 혼례가 이루어졌다. [펴보자 : 김현진(여, 73세), 김충원(여, 70세)]

3. 상례

상례는 관혼상제 중에서도 가장 큰 의례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상례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자손의 효심이나 집안의 위세가 평가되기도 했다. 「사례편람」과 같은 유교 의례서에는 상례의 절차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각 지방이나 집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상례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고, 묘지가 절차 남辕당으로 바뀌어 나갈 때 따라 장례식은 한층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운중동의 안동 김씨(安東金氏) 집안에서 행해지는 상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상례의 진행과정

① 임종직후의 절차

- 정제수사(整齊收斂) : 임종하면 칠성관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그 위에 올린다. 손발을 묶고 솜으로 코, 귀 등 인체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 그리고 시신 위에 홀이불을 덮어 첫목에 놓고 병풍으로 가린다. 별풀 앞에는 할만 피워놓고 다른 음식은 차려놓지 않는다. 근래에는 임종 후부터 문상객을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성복제를 지내고 나서 문상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성복제 전까지는 고인을 산사람으로 인정한다.
- 사자상 : 정제수사를 하고 나면 채 위에 밥 세 그릇, 망자가 신던 신발 한 켤레, 동전을 넣어 절구통 위에 올려 대문 밖에 둔다.
- 고복(告復) : 망자의 거주설명을 불러 고복을 한다. 예를 들면, '운중동 사는 안동 김씨 속적삼 가지고 가시오. 복, 복, 복' 한 후 적삼을 지붕에 올려놓는다.
- 임종 직후의 상주복장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 쪽은 등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동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훈다. 이때 자방이는 꿀지 않는다. 자팡이는 절식 상복을 입는 성복제 때부터 짚는다.
- 호상(護喪)선정 : 임종 후 상주나 고인과 가까운 사람 중 의례를 잘 아는 사람으로 호상을 선정한다. 호상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부고 등 제반 일들을 한다. 이웃주민과 친지들은 호상의 지시에 따라 일을 도와준다.
- 부고 돌리기 : 호상이 선정되어 부고가 준비되면 곧바로 돌린다. 요즘은 전화연락으로도 많이 한다. 만약 부분 중 한 분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분의 산소에도 부고를 들리는데 이때는 부고를 가지고 가서 산소 앞에 묻는다.

② 습(襲)과 염(寢)

습과 염은 사망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 시신씻기(屍洗) : 향을 물에 넣어 향내가 물에서 날 정도로 우려지면 향물에 수건을 쳐서 시신을 닦는다.
- 반합(飯合) : 시신을 씻고 나면 물에 넣어 두었던 천을 베드나무 숟가락을 이용하여 고인의 입에 넣어 준다.
- 수의 입히기(小冠) : 반합을 한 후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잘 써는 삼례로 하는데, 과거에 부유한 집에서는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지만 대개는 임종직후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다. 요즘은 장례물품 파는 곳에서 구입해서 많이 사용한다. 수의를 입힌 후 손발을 묶어 서로 끈으로 연결해 놓은 다음, 세로로 7매를 류는다.
- 입관(大冠) : 시신을 관에 넣어 뚜껑을 닫은 후 관은 원목에 놓고 알은 병풍으로 가린다. 과거에 부유한 사람들은 생전에 미리 관을 만들어 두었지만 대개는 임종 후 관을 만들었다. 근래에는 관을 대부분 장례 물품 파는 곳에서 구입한다.

③ 성복과 성복제

- 성복 : 입관 후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 촌수(寸數)에 맞추어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굳건제복을 입고, 여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支柱),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베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성복제 : 상복을 입은 상주들은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는 일반 기제사 때와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절차도 동일하다. 상복

제를 지낸 후부터 상주가 서있는 곳 바닥에 짚으로 만든 자리를 깔고
앞에는 짚벼개를 설치해 놓는다.

- **상식 올리기** : 성복계를 지내고 나면 문상객을 받으며 조석(朝夕)으로
방자 앞에 식사를 올린다. 음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동일하다.

④ 출상(발인)



집자로 활하고 있는 상여

- **호상놀이** : 근래에는 볼 수 없으나 해방 전에는 '호상놀이'가 있었다.
주로 부잣집에 노인이 천수(天壽)를 누리고 편히 돌아가셨을 때는 상
두꾼들이 출상 전날 민상야에 상주들을 태우고 장난을 치며 논다.
- **관을 방에서 내울 때의 풍속** : 출상하는 날이 되면 상식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관을 방에서 내놓는다. 이때 관을 몇 명이서 들고
머리 부분을 방의 네 귀퉁이로 돌리면서 절을 시킨 후 방 문터 앞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앞에 선 사람이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고 나온다(이

것은 지금도 행하는 풍속임).

- **발인제** : 관을 밤에서 나오면 상여에 올리고 발인제를 지낸다.
- **상여 떠날 때의 풍속** : 상두꾼들이 상여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굽혀 상여가 집을 보고 세 번 절하도록 한다. 이때 실주들은 상여 맞은 편에 서서 상여에 절을 한다.
- **상여 출발시 대열순서** : 상여가 잠자리로 떠날 때는 명정, 광포, 가주, 상여, 상주일행, 만장 순으로 대열을 갖추어 가며, 선소리꾼은 상여 앞에서 북을 치며 상여소리를 한다.
- **노제** : 상여를 배고 가는 도중에 가까운 친지들의 집에 이르면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 노제를 지낸다.

⑤ 장지에서의 절차

- **묘터잡기와 평파기** : 묘터는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임종 후 상주가 치관에게 회피하여 잡는 경우도 있다. 묘터가 정해지면 장례식 전날 동네 남자들 몇 명이 그곳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놓는다. 이때 땅을 파기 전 인부들이 먼저 '산신제'를 치낸다. 구덩이를 파면 짐승들이 구덩이 위를 넘어 다니지 못하게 밤새 인부들이 지킨다. 요즘은 장례식 당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를 팔 때는 '겁팡'과 '내팡'으로 나누어 겁팡을 넓게 판 후, 겁팡 밑에 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게 내팡을 판다.
- **하관 전** : 상여가 장지에 도달하면 묘터 옆에 상여를 놓고, 주변에 '제청막(번소)'을 설치한 후 조객을 받는다.
- **하관** : 정해진 시간이 되면 관을 구덩이에 넣는다. 이때 관을 통째로 넣는 경우와 관속에 있는 시신만 꺼내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주로 시신만 넣는다. '괴생'이라고 하여 하관 시간과 생기복녀가 맞지 않는 사람은 하관 때 자리를 피한다. 이것은 요즘도 반드시 가린다. 하관을 한 후 영정을 관 위에 짚고, '홍대'라고 하여 나무토막

을 5개 또는 7개 정도를 관위에 올린다. 또한 망자에게 예단을 바친다
하여 홍대 밑에 청실과 홍실을 넣는다.

- **회단이** : 홍대를 짠 후, 인부들이 회와 흙에 꽃을 부어 벼무려 놓으면
상주들이 먼저 한 살씩 넣은 후 인부들이 회와 흙을 넣고 회단이를
한다. 회단이는 보통 3회 또는 5회 정도 반복한다. 회단이를 할 때는
인부들이 박대기를 들고 '에아리 달고'하면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
어 한다.
- **평토제** : 묘봉을 만들고 위에 잔디를 입히면 평토제를 지낸다.

(6) 하산 때와 그 후의 절차

- **사위놀리기(싸리가마)** : 산에서 내려올 때 동네 청년들이 고인의 사위
나 조카들을 X자로 만든 나무에 태워 양쪽에서 들고 다리를 쪼이는
등 장난을 치면서 내려온다. 이때 술을 사겠다고 약조를 하지 않으면
싸리가마에 탄 사람은 골탕을 먹지 때문에 하산하여 청년들에게 술을
산다.
- **상주일행을 집에서 맞이할 때의 풍속** : 상주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장지
로 가던 길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온다. 상주일행들이
집으로 오면 여성주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 상주일행을 맞이하며 '아이
고 아이고'하면서 곡을 한다.
- **영좌설치** : 장지가 가지 않고 길에 남은 사람들은 대칠이나 방에 상침
(영좌를 이 지방에서는 '상침'이라 함)을 설치한다.
- **초우제** : 장지에서 삼주일행이 돌아오면 곤이어 상청에서 반흔제(초우
제를 이 마을에서는 '반흔제'라 함)를 지낸다.
- **천도굿** : 이 지방에서는 초우제를 지낸 후 방자의 천도를 위해 굿을
하기도 하는데 운중동 안동 김씨(安東金氏) 집안에서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 **상식과 삭망(謝望)** : 상청을 탈삼하기 전까지 조석(朝夕)으로 상청에

평소와 같이 식사를 올리고 삭발(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 삼우제(三庶祭) : 장례식 후 3일이 되면 오전에 집에서 제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다시 제를 지낸다.
- 출곡제(卒哭祭) : 과거에는 장례식 후 100일이 되면 기제사와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으나 근래에는 출곡제를 지내는 집을 볼 수 없다.
- 소상 : 망자가 사망한 후 1년이 되면 소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 대상 : 망자가 사망한 후 2년이 되면 대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 탈상 : 과거에는 대상을 지낸 후 상복을 벗고 상장을 철개(닫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삼우제를 지낸 후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2) 의례용품

- 수의 : 수의는 잘 짹는 삶베로 한다. 과거 부유한 집에서는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지만 대개는 임종 직후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다. 요즘은 장례물품 판매점에서 구입해서 많이 사용한다.
- 칠성판 : 임종이 가까워 오면 '칠성판'이라 하여 망자의 신체를 옮겨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송판을 준비해 놓는다.
- 상여 : 과거에는 상여집이 마을 앞산 기슭 외딴곳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회관 참고에 상여를 보관하고 있다. 하신운동의 경우는 상여집이 흥수로 없어져 마을회관에 상여를 보관하다가 주민들이 실어해 현재는 현대사회연구소 입구 LG 경비소 옆 콘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을 당할 때는 동네 청년회가 상여를 뺀다.
- 상복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쪽은 등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통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묶는다. 입관 후 성복제를 지낼 때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의 촌수(寸數)에 따라 정해진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굳건 제복을 입고, 여성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支柱),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베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과거에는 장례가 끝나도 탈살 전까지 상주들은 ‘하늘을 보지 않는다’하여 외출 할 때 방갓(배로 만든 것으로 삿갓과 비슷함)을 쓰고 다녔다.

3)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과거에는 술 한 통, 떡, 두부, 팔죽 등을 해 가지고 갖다. 이웃끼리 서로 가지고 갈 것을 미리 정하여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초상집에 있는 호상이 부의복에 전부 기록해 준다. 또한 이때 가지고 간 음식은 장례준비를 위해 밤샘을 하면서 먹는다. 혜방 후 점차 화폐사용이 많아지자 부조도 점차 돈으로 바뀌어 갔다. 과거에는 이웃집에 상례가 있으면 손톱과 발톱을 깎지 못하게 했으며, 머리도 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집에서 한가롭게 있지 말고 상가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 **문상** : 이웃에 초상이 나면 주민들은 문상을 간다. 문상을 갈 때는 화려한 옷을 피하고 단정하게 하여 조문을 하고 상주를 위로한다.
- **상가집에 가지 않는 사람** : 그 해 상문이 든 사람, 자식 혼례식을 앞둔 사람, 부인이 출산을 앞둔 사람, 자기집에 가까운 날에 계사가 있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 **상가집에 다녀올 때의 품속** : 상가집에 갖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문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타 넘고 온다.
- **삼두꾼** : 정해진 상두꾼은 없으며 운중동의 경우 이웃에 거주하는 남

자들이 상여를 빼어준다. [제보자 : 김임현(남, 77세)]

4. 제례

고려 말 중국에서 전래된 예서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3대를, 유품(六品) 이상은 2대를, 칠품(七品) 이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관행에서는 서민들도 4대봉사를 했다. 제례는 각 집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서술하기는 힘들다. 특히 상차림과 제의절차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데 상차림의 경우 제물(祭物)의 종류와 제상 위에 놓은 위치가 많은 변수로 작용한다. 가령 제상(祭床) 앞줄에 놓은 과일의 위치만 보더라도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시이(肅栗柿梨), 조율이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면에서는 운중동의 대표적인 동족(同族) 김안인 안동 김씨(安東金氏)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도록 한다.

1) 차례

- **봉사대상** : 종가(宗家)의 경우에는 고조부까지 모시며, 기차(其次)들은 자기 집에서 기제사 때 모시는 조상들을 모신다.
- **시기** : 설, 추석, 한식에 차례를 지내는데 한식의 경우에 송관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산소에 가서 지내지만 근래에는 한식차례를 지내는 집이 드물다.
- **장소(場所)** : 설과 추석에는 마루나 한방에서 차례를 지내며 한식 때는 산소에서 지낸다.
- **참가자** : 동고조 8촌이라고 하여 8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경우 기제와 차례 때 함께 제를 지낸다. 차례 때는 여러 집에서 제를

지내므로 큰집부터 먼저 제를 지내고 기차들의 집으로 간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맥국, 삼색과일, 삼색전, 삼적(魚炙, 肉炙, 鶴炙), 삼탕(복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삼색나물, 복어포, 산자, 약과, 다식, 정종을 올린다. 추석에는 맥국 대신 햇쌀로 빚은 쟁편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설과 차이가 없다. 지방에 따라서는 추석 때 밥을 올리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올리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 **절차** : 설과 추석 때의 차례 철차는 동일하다. 차례는 신위봉안(神位奉安), 진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현락(獻爵, 초현, 아현, 종현), 제배(再拜), 개반삼시경처(開飯三時敬處), 합문(閑門, 병풍을 가림), 부복(伏伏), 침작(臣爵), 종현관이 잔을 올릴 때 반잔만 제우는데 나중에 이곳에 가득 술을 채움), 제배, 현다(獻茶, 숭늉을 올린), 철상(撤狀) 순으로 진행된다. 차례 때 축문은 읽지 않는다. 지방에 따라서 제를 지낸 후 참신들이 먹으라고 음식을 조금 싸서 대문 옆에 내놓는 경우도 있으나 이 지방에서는 이러한 풍속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기제

- **봉사대상** : 종가에서는 4대조까지 모시며 기차들은 고조부 이하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조상을 모신다.
- **시기** : 조상이 사망한 전날을 기일로 하여 제를 지낸다. 원래 기제는 자시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편의상 초저녁에 지낸다.
- **장소** :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8촌네 후손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 때는 배, 경(무우와 두부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올린다. 제사에는 토장국과 같이 흐린 국은 올리지 않음), 편(위에 고물을 얹음), 삼색과일, 삼색전, 삼적(魚炙, 肉炙, 鶴炙), 삼탕(복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탕, 소고기탕), 삼색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정종을 올린다.

- 절차 : 제를 지내는 순서는 차례 때와 동일하나 차례 때는 축문을 읽지 않지만 기계 때는 축문(祝文)을 초현(初獻)한 후에 읽는다.

3) 시제(時祭)

- 봉사대상 : 5대조 이상의 조상들을 모신다.
- 시기 : 음력 10월 8일부터 중순까지 지낸다. 산소가 많기 때문에 빛 일이 걸린다.
- 장소 : 5대조 이상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다니면서 지낸다. 비용은 종종(宗爭)의 돈으로 하는데 현재 종종명의로 된 벨딩과 토지 등이 있다.
- 참가자 : 해당하는 자손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낸다.
- 제물진설 : 배, 결, 인절미(시향 때는 인절미를 사용함), 삼색과일, 삼색전, 삼색(魚炙, 肉炙, 鱈炙), 삼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탕, 소고기탕), 삼색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정종을 올린다. 시제는 산소에서 지내므로 일반적으로 기제사 보다 제물(祭物)이 간소한 편이다.
- 절차 : 기계와 동일하다. [제보자 : 김양현(남, 77세)]

IV.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란 세계적인 고리와 교단을 가지고 있는 기성종교와는 달리 교리나 교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신앙적인 형태를 말한다. 민속학에서는 마을신앙, 가신신앙, 부속, 자연숭배, 동물신앙, 절복(占卜), 예조(蠻兆), 급기(禁忌) 등을 민간 신앙의 범주로 부른다. 이 글에서는 마을신앙과 가신신앙을 중심으로 서술해 본다.

1. 마을신앙

1) 하산운동 산체사

이 마을은 연안 이씨들이 700년 전부터 거주했던 마을로 지금도 선조들의 산소가 마을인근에 있다.

① 명칭, 유래와 역사

동체를 ‘산제사’ 또는 ‘양산제(鹽山祭)’라고 한다. 동체는 매우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한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뒷산 중턱에 있던 큰 고목이었으나 점차 시들어 15년 전 죽어버렸다고 한다.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신목(神木)이 있던 자리 앞에 있는 바위에 음식을 진설해 놓고 지낸다고 한다. 신목이 있는 자리 주위는 둥글게 풀터로 되어있다. 제사 대상은 산신이다.



동체길, 제를 지내기 위해 표걸을 치놓았다.

(3) 의례 내용

가. 제일 및 준비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초하루 0시에 한다고 하며, 전날 밤 11시 반쯤에 산에 올라간다. 만약 주민 중에 둘째 날짜와 같은 날 제사가 있으면 개인 제사를 앞당겨 한다고 한다. 음식균씨의 경우, 산제사와 같은 날 어머니 제사가 있어 하루 앞당겨 지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침개 등 제사음식을 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하여 산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나 제당에 가지 못하게 하므로 제삿날을 다른 날로 피한다고 한다.



김주·봉동구씨 집 대문에 희놓은 글풀

제주는 통장이 주민 중에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한다고 한다. 제를 지낼 때 음식은 당주집에서 차리는데, 당주집에는 인줄을 쳐 놓는다. 황토는 예전부터 깔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일 하루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는데, 전날 낮에 통·반장들이 산에 올라가 천막을 쳐놓고 제당까지 길을 내놓는다

고 한다. 음식을 차리는 당주집에서는 제를 지내는 달일, 식사 외에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는다.

한편, 현재 당주 역할은 윤동구씨 집에서 몇 년째 맡고 있다. 따라서 윤동구씨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지만 제를 지낼 때 제주 역할

은 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매년 당주를 선출하여 당주가 제주의 역할과 음식을 광만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제물을 준비할 사람이 없어 윤풍구씨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주는 마을이장 등이 맡아한다. 윤풍구씨는 마을로부터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다.



신끼에 사용할 음식을 정만하고 있는 윤풍구씨 부인

나. 제의절차와 내용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당주와 통·반장 등 여러 사람이 활석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예지나 상을 당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한다.

제를 차내는 순서를 보면,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기 위해 불을 지펴 함불을 피우고, 촛불을 켠 다음 당주가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제주가 절을 하면 제는 끝난다. 다른 사람들은 절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하고 싶은 사람은 당주가 한 후 절을 하기도 한다.

제당에서 활석자들은 간단히 음복을 하고 난 후 가지고 간 소치종이를

각자 손에 하나씩 들고 태운다. 소지종이를 태운 후 폐상에 올려뒀던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바위 위에 놓고 온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고시례로 보이며, 굿을 할 때 뒷전거리에서 차럼 접구접신을 위한 배려인 것 같다. 과거에는 제를 지낸 후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 짙짐마다 똑같이 배분하여 돌렸으나, 지금은 소머리와 유식을 당주 집에 두며, 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부를 먹고 다음 날 동네 노인들을 모셔 대접한다고 한다.



신재를 지내고 있는 모습

다. 제의도구와 제물 및 제비

제비는 과거에는 연말에 대동회의가 있어서 이 때 모은 돈으로 했으나 지금은 동네 토지에서 나오는 방세 등의 수입에서 이장의 수고비와 동체 비용을 마련하는데,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상차림을 보면, 소머리, 조라술, 삼색과일, 삼색나물, 볶어로, 통복어, 백설기 시루, 무와 두부를 넣어 만든 달, 전, 촛불, 향 등이 사용된다. 통복어는 소머리 옆에 놓는다. 제물을 산으로 운반할 때는 지게로 세 지게 정도가 되어 세 사람이 지고 간다고 한다. 조라술은 제당 아래 우물물을 사용하여

제사 지내기 전날 밤에 편 찰밥에 누룩을 넣고 엿기름을 혼합해서 찰아리에 담고 물을 부어 밀봉해 제당 옆에 물이 두었다가 사용한다. 향은 향나무에서 직접 채취한 향을 사용한다. 제풀을 차릴 때는 소머리는 바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준비해 가지고 간 삶에 차린다.



제풀 지내기 전 물어둔 조리술들 끼내며 제교 갈라 주전자에 담는다.



제달 바위 밑에 조리술을 물어두었다.

제기는 따로 없으며, 축문 및 동체와 관련된 기록문서가 1963년도 것부터 있는데 통장이 보관하고 있다. 1963년도에 기록된 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面川鄰紀 物日
西紀一九六三年 先哲
祭紀日 烏酉十月初一日卯時

<物日>

한	소두 한 달	270원
쇠여리	한 개(31근)	930원
쇠고기	두 균	200원
감	열 개	120원
밥	한 되	20원
대추	한 흄	60원
비	여섯 개	60원
사과	여섯 개	36원
꽈마贻(?)	소두 세 되	59원
개란	열 개	25원
복어	다섯 마리	125원
간수		10원
택지	한 권	30원
양초	두 개	14원
탁주	두 되	50원
수수료		200원
합계		2239원

祭祀費用	每回 27원
接待費用	83원
總額	2,241원
零用費	2,239원
殘額	2원

殘額 2원은 모금로 이용함

訖文

植哉次 口口年 十月一日 周下
坡南市 景勝園 下山洞洞 主祀人 韓千成
敬召告祈
諸上之靈 為然享禮 褒祐玉冬 此此禱誠
聖林恭拜 丹誠祭饌 丹誠鑿空 聖香果葉
茲以清酌 敬行尊禮 不勝恐懼 神道降予
吉拜伏願 山下居民 一而應戶 男女老少
出家未受 諸凡祇祇 成被 神体
百姓是降 吉樂是降 無疾無病 (盛望萬物)
利益廣下 受及永歲 由斯風淳 積善積德
石觀摩拂 大有風聲 盛威顯臨 積生之變
恩風之轉 斥去無犯 神道向靜 純然無禮
向靈

2) 운중동 산제사

①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의 명칭은 ‘산제사’ 또는 ‘산고사’라고 부르며, 제의 대상 신격은 ‘산신’(山神)이다. 산제사의 유래는 길어 마을이 생긴 이후로 놀곧 행해져 왔다. 그런데 1987년 경 마을에서 산제사가 단절되었다. 지금의 카센타가 있는 구 마을회관 뒤쪽에 박씨라는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김첨기라는 분에게 죄력을 보고 담주와 화주를 선정하여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불사를 하고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 아주머니가 작고한 후로 마을 사람들 이 동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한편, 젊은이들의 반대도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에 조사자가 운중동에 갔을 때, 주민 박영분씨에 의하면, 제를 지내지 않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해서 동제를

매년 2월에만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0년 2월부터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과거처럼 주민 전부의 등참은 불가능하여 2000년에는 10킬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만 설의껏 돈을 기두어 제를 치냈다고 한다. 주민 중에 특히 홍결선씨가 동체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2000년에는 홍결선이 담주를 맡아 그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운중동 간제를 치내는 때

제당은 과거에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나무가 없어져 나무가 있던 자리 앞에 두 평 정도 공터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제를 치낸다. 찾아가는 길은 정신문화연구원 문형관 뒷길로 올라가 고속도로 밑의 굴다리를 통과하여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측으로 굽어진 오솔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우측으로 100여 미터 가면 과회전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좌회전하여 300미터 올라가면 오솔길 우측에 있는 산능선 위에 산계를 지내는 터가 있다. 이곳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운중동의 주민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③ 의례 내용

가.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단 초순에 마음에서 체력을 보아(전에는 김칠기라는 분이 체력을 보았는데 지금은 작고했다고 함) 정한다고 하며, 저녁 7시쯤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제주는 당주 한 명과 화주 두 사람을 선정하는데, 당주는 주로 제당과 가까운 산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당주의 역할은 자신의 집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제사를 지낼 모든 준비를 책임지며, 제의를 진행할 때 제주 역할을 한다. 한편, 화주는 가가호 호를 방문하여 돈을 거두고, 제사 전날에는 산에 올라가 제당으로 가는 길을 칙우고, 당주를 도와 여러 가지 잡일을 한다.

나. 제의 절차와 내용

제에 참석하는 사람은 당주와 화주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집에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는 안된다. 제의를 행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음식을 진설하고 당주가 잔을 올리면, 당주와 화주가 같이 철을 두 번 한다. 축문은 읽지 않고 덕담을 한 후 소지를 올리고 끝낸다고 한다. 덕담은 동네에서 입담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동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등의 비손을 한다고 한다. 동네가 100호 정도 되는데, 각 가정마다 소지 한 장씩 덕담하는 사람이 일일이 덕담을 해주면서 전부 올린다고 한다. 힘가하여 출타한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전부 올려 준다고 한다. 대개 이런 집에서는 소지값을 더 낸다. 소지종이는 보통 ‘사고자’라고 하여 창호

지 보다 얇은 것으로 사용하는데, 소치를 올릴 때는 각 가정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올린다.

제사가 끝난 후 창호지에 음식을 조금씩 퍼어 담고 나무에 꿰어놓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가난한 시절에는 주민들 중에 배가 고픈 사람은 다음 날 새벽에 일찍 가서 이것을 먹거나 나무꾼들이 나무하나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먹는다고 한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고 당주 집에 내리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나, 옛날에도 깁집마다 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때 떡을 얹어먹기 위해서 파거 배고픈 시절에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주 집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다. 제의 도구와 제물

제비는 화주가 떡풀을 담기 위해 가기호호를 들면서 한 되 정도의 쌀을 기투는 것으로 대신한다. 출타한 차식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누구를 더 밀어 주기 위해 그를 위해 소치를 추가로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집이 있을 때는 '소지값'을 좀 더 받는다고 한다. 한편, 매년 돈이 남으면 예치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다고 한다.

상차림을 보면, 소산(素山)이므로 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에 판가루을 올린 시루떡, 삼색과일, 삼색나물, 통복어, 청수, 막걸리를 올린다고 한다. 과거에는 맷쌀을 네 말 이상 담갔다고 한다. 과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쓰며, 나물은 소금으로 간만 맞추고 양념은 전혀 하지 않는다. 청계산은 소산이기 때문에 일절 고기를 올리지 않는다(조사자註: 동제를 치낼 때 마을 주민들은 새우젓과 같은 첫갈조차도 전혀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운중동에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동제를 지내는 날이라고 하여 음식점에서 고기를 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갈하게 동제를 지내야 하는데 마을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동제를 지내도 효험이 없다 하여 근래에 동제를 지내는 것에 회의적인 주민들도 있다).

제기는 사기로 된 점식과 대접 등의 그릇과 유기로 된 촛대와 향로가 있어서, 당주 집에서 보관하다가 다음에 새로운 당주가 선정되면 그 집에서 보관

하는 식으로 해서 대대로 내려왔으나 산제사를 지내지 않은 후로 없어졌다
고 한다.

3) 석운동

석운동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국정원이 이곳에 들어서고 주변에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예전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동안 개발로 인하여 원주민은 대부분 떠나고 현재는 불과 몇 집만 남아있다.

석운동 마을 앞에 현재 '느티나무집'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바깥에 느티나무와 바위가 있으며, 집 뒤에도 바위가 있다. '마당에 있는 바위'에서 과거 아들을 바라는 주민들이 기도를 했다 하며, 마을에서 이 바위가 바로 보이면 미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말이 있어 바위를 가리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았다 한다. '집 뒤에 있는 바위'에는 부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밟았다 한다.

동체는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지냈는데 제(祭)를 지낼 때 소와 떡 등을 제물로 장만했으며 매우 크게 했다 한다. 소를 잡아서 대동이 나누어 먹었으며, 제를 잘못 지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고 하여 주민들은 진지하게 제를 지냈다 한다.

4) 대장동 산신제

대장동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 중물폐가 있어 절초에 짐짓을 돌면서 '고사반'(자신발기를 경기도에서는 고사반이라 함)을 하고 이때 거둔 돈으로 동네의 기풀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한다. 고사반을 할 때 풍물폐를 맞이하는 집에서는 바탕에 삼을 죄고 그 위에 빨이나 보리를 넣은 달통을 옮겨놓고 풍물폐를 맞이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집(주민들은 상여집을 '나친사'라고도

함)은 마을 앞 길옆에 있는데, 현재 12인용 상여 2기가 보관되어 있다. 상례 때에는 친목회가 있어(회장 이병식) 55세 미만 남자들이 상여를 맨다. 단, 집안에 결혼식이 있거나 비혼자인 경우에는 상여 폐는 것을 제외시켜준다. 대장동에서는 15년 전에 동제가 단절되었는데 주민들의 세보를 통해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명칭, 유래와 역사

과거 동제를 지낼 때는 모두만이, 멀창두리, 대찰리가 같이 지냈다고 하나 동네 젊은이들이 계사를 없애자고 하여 결국 없애고 15년 전쯤부터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제는 '산신제'라고 불렀으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대찰리에서 2km정도 떨어진 모두만이 앞산의 고복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마을 앞 어귀에 도토리나무가 서 있는데, 이 곳을 주민들은 '장승구지', '수설' 등으로 부른다.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이 곳에서도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과거 여기에는 장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례 내용

가.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잡아서 밤 8,9시쯤에 산에 올라가 준비를 하여 10쯤에 제를 지내고 11시경에 산을 내려온다고 한다. 제관으로는 제주와 촉관을 한 사람씩 선정하는데, 동네에서 깨끗한 사람 중에서 힘력을 보아 제 지내기 일주일 전에 선정한다고 한다. 제일이 정해지면 그 3일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 나무 앞에 가서 말뚝을 박고 금줄을 칓다. 제주집에도 문 밖에

황토 두 무더기를 양쪽에 놓고 정화수를 양쪽 혹은 한 쪽에만 놓아둔다. 제주 집에는 금줄은 치지 않았다고 한다. 제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제주 집에서 하였다.

나. 제의 절차와 내용

제를 지내기 2,3일 전에 산의 고목 근처에 있는 우물을 친다. 이 우물에서 제사 달인 필요한 물을 사용하였다. 제사에는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제를 지내게 되면 주민들은 날너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산으로 올라가서 불을 피워놓고, 직접 음식과 소머리를 가지고 가서 소머리를 삶아 세상에 올렸다가 제가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국을 해서 밥과 함께 먹으며 안주를 삼았다고 한다.

제는 10시가 넘어서 시작되는데, 제주가 분향을 하고 잔을 옮긴 후 축관이 축문을 읽고 제주가 3례 하면 끝난다고 한다. 제주와 축관만이 의례를 진행 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만 하였다. 제의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해당에서 말을 조심하였다.

다. 제의 도구와 제물

제비는 매년 쌀 한 말과 보리 한 말을 거두어 동네경비로 쓰는데, 이 돈의 일부를 제비로 사용한다. 제사를 지내는 살차림은 소머리, 떼, 나물, 초, 향을 사용하나 파일은 차리지 않았다. 제주(祭酒)는 제를 지내기 몇 일 전에 산에서 누룩을 향아리에 담고 물을 부여 산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축문으로는 산신축을 사용했는데, 일반 산신축과 같았다고 한다. 제기는 따로 있어, 마을회관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5) 궁내동(중간마을) 대동고사

궁내동은 현재 동체를 지내지 않는데, 비교적 일찍 동체가 사라진 것 같다. 마을의 노인들도 동체를 지낸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원대의 어른들이 지

냈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으며 일제시대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제의 명칭은 '대동고사'라고 한다. 마을 뒷산 중턱 큰 나무에서 채를 지냈으나 이 나무도 6.25 전에 사라졌다 한다.

이 마을은 두레, 줄다리기, 농구, 닭고늘이 등 과거에는 풍부한 민속놀이가 존재했던 마을이다. 현재는 분당 도심이 자리잡고 있으나 예전에는 그곳이 궁내동 앞에 있는 넓은 농토였으니 과거에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민속놀이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풍물폐가 있어 농사철에 논을 맬 때는 '농두례'를 했다. 풍물폐는 들판까지 풍물을 치고 나가서 깃대를 끊고 일을 하며 농요를 불렀다. 이 마을에서는 특히 '4도소리'라는 농요가 유명했다 한다. 이 소리를 칠하는 사람은 선소리를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북만 치며 논 밖에서 노래만 했다 한다. 이 소리는 인근의 벗고개, 정자마을, 벽현동, 구미동에서만 있는 농요였다. 경초에는 풍물폐가 '고사반'을 했으며, 줄다리기를 할 때도 일에서 풍물을 칠다 한다.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밤 10시에 했는데, 현재 마을 노인정이 있는 곳에서 대보름 몇 일 전부터 줄을 만들어 다 만들어지면 줄다리기를 하는 장소 (지금 관교에서 수원으로 가는 국도에서 행했다고 함)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을 배고 '술렁수'하면서 소리를 하고 줄을 옮겼는데,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 한다. 줄은 둘레가 1미터, 길이는 100여 미터였으며, 질이 매우 많이 들어가서 짚짐마다 수레로 한 차씩이나 가지고 왔다 한다. 줄다리기를 할 때 날너로 편을 갈라 하지만 미혼남자는 여자 편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여자가 이겼다 한다. '여자가 이기면 보리풀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줄다리기를 할 때는 인근에서 구경오는 사람도 많았으나 1948년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줄다리기를 행하지 않았다 한다.

경초에는 또한 '닭고늘이'를 했는데, 별감, 스님의 장삼, 팝 복색(빨간옷에 고깔을 쓴다) 등의 다양한 복장을 하고 삼동 무동을 하기도 하면서 짚짐마다 들며 놀았는데 비교적 부잣집만 들었다 한다. 방문을 받는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 형태는 송파의 담고늘이와 유사하다 한다. 과거 정원은 한 단 내내 높았다.

마을에 상여집은 없어져 상여는 마음회관 지하에 보관한다. 상례를 위해 전에는 '상포제'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은 '친목회'로 바뀌었다.

2. 가신신앙

1) 운중동

운중동의 원주민들은 기독교인이 한집도 없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불교와 민간신앙을 돈독히 믿어 정월고사나 가을고사를 지낸다.

① 김창년씨 댁

가. 유래와 역사

전에는 마을 뒤 바위에 매년 사월 초하루나 삼일 쯤 동체를 지내고 동체를 치내고 난 시간에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가신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집도 옛날 질안의 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현재까지 가신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1) 터주가리

현재도 모셔놓고 있다. 위치는 집 뒤에 있으며 터주가리 속에는 쌓은 냉지 않고 베란 넣어놓는다고 한다.



문화재 김형년씨 약 허주기리

(2) 대감항아리

속에는 팔을 넣어 대청마다 구석에 두었는데 7~8년전 새로 집을 지을 때 없었다고 한다.

(3) 삼신주머니

술병 같이 생긴 박 속에 글을 써서 넣고 위에 투쟁을 달아 안방 아래쪽 벽에 달아두었으나 7~8년전 새로 집을 지을 때 없었다고 한다.

(4) 성주

신체는 없으며 성주는 대청에서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과거에는 정월 초사흗날에 정월고사, 칠석날에 칠월고사, 10월달에 날을 짙야 하는 가을고사 년 3회 고사를 했으나 지금은 칠석날에는 밀개띠을 해서 정화수와 함께 고사를 지낼 때 음식을 놓아두는 집안 곳곳에 놓아두기만 하고 고사는 지내지 않고 절에 가고, 정월고사도 지내지 않고 가을고사만 지낸다. 가을고사의 경우, 전에는 마을 뒤 청계산에서 행하는 마을 동체를 지내고 난 후 바로 그 시간에 각 가정에서는 가신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동체보다 먼저 가을고사를 지낼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10월 달에 끼치날에 한다. 고사는 원칙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한다고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는 먼저 성주(대청에서)앞에 안시루와 막걸리, 정화수를 진설(초와 향은 사용하지 않는다)한 후 절을 3번하고 비춘한다(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백설기시루와 정화수를 진설 해놓고 서서 절 3번하고 비춘다. →청계산

신께(산쪽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집안무고하게 해달라고 비손하고 터주에서 사용했던 백설기 조각을 조금 떼어 산 쪽으로 던진다) → 대문(대청에서 사용했던 안시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걸리와 정화수는 새것으로 놓고 서서 절 3번하고 비손한다. → 집안으로 들어와서 떡을 접시에 나누어 담은 후, 우물, 장독, 부엌(조왕), 다락 등에 하나씩 올려 두었다가 잠시 후 가지고 온다. 이 지방에서는 각 방에도 한 접시씩 떡을 가져다 놓는 집도 있는데 이 집에서는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사의 진행은 길창년의 모친인 권오희 혼자서 한다고 한다. 들, 환갑, 결혼식 등이 있을 때는 안시루를 째서 고사 때와 동일하게 각 神體 앞에 두고 알리고 비손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면미가 이웃에서 들어오거나 명절 때 등에는 음식을 올리지 않는다. 또한 둑지 때도 팔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떡은 안시루와 산신시루만 하는데 안시루는 붉은설기 산신시루는 백설기를 한다. 산신시루는 작은시루에 조금만 하므로 안시루는 씹 때 그 속에 올리 함께 뜯는다. 떡은 절시루에 째서 한다. 과거에는 빙는 것도 집에서 절구로 했으나 지금은 방앗간에서 한다.

과거에는 쌀을 한 말 이상해서 둑내가 나누어 먹었으나 지금은 세 대 정도 해서 가까운 이웃 몇 집에만 나누어준다고 한다.

② 흥경섭씨 대

가. 유래와 역사

정월에 치르는 고사를 '정월고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치르는 고사를 일컬어 '가을고사'라고 한다. 정월고사는 말 그대로 음력 설을 기해서 한 해가 잘 되도록 치르는 고사임에 반해 가을고사는 10월 상단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행해졌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농사짓는 집도

많이 사라져 실제로 과거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힘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풍습대로 가을고사를 지내는 점이 있는데 이 점도 그 중 하나이다.

물론 두서너발씩 떡을 해서 온동네에 다 둘려먹던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가족끼리 나눠먹는 정도로 부담도 많이 줄어든 반면 고사 지내는 재미도 함께 반감되었다며 아쉬운 듯 웃으셨다. 특히 이 동네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후 외부에서 들어와 살게 된 세입자와 학생들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예전에는 마루에 설주를 모셨으며 대감항아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들은 더 이상 모시지 않고 터주만 모시고 있다. 대감항아리 안에는 빨을 넣어 놓았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한 20년 전에 마을에 도둑이 들어 집집마다 대감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빨을 죄다 훔쳐갔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감항아리를 신성시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있고 나자 더 이상 대감항아리를 모시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대감항아리에 정말로 대감신이 것들여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등등이 섞여져 결국 그 이후 대감항아리를 모시는 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터주는 지금도 창독대에 모시고 있는데 주인아저씨가 일년에 한번씩 새로 갈아준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절필고사나 가을고사나 모두 백일은 아주머니가 직접 하는데 달력을 보고 10월 초 중 되지날, 소날, 말날 가운데 선택한다. 옛날에는 저녁 때 주로 고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떡이 만들어지는 대로 고사를 지내 환한 대낮에도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지금은 대부분 고사를 조용한 시간에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예전에는 산시루와 안시루 등을 따로 짓었으나 지금은 불은 설기 위에 얹어 만드는 백설기를 가지고 산쪽을 바라보며 비는 것으로 고사를 시작한다. 산시루를 예전에는 서낭시루라고도 했는데 특히 고개를 넘어 사질을 온 사람은 서낭시루를 반드시 헛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음 입구에 있는 성남을 넘어 시립을 왔기 때문에 자신이 평안하고 안녕하도록 서낭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인 박영분씨 역시 고개를 넘어 시립을 왔기 때문에 지금도 세일 먼저 청독대에 나가 산쪽을 바라보며 비손을 한다.

다음에는 안시루를 성주 앞에 놓고 마음 속으로 빌면서 비손과 함께 반걸을 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안시루를 그대로 터주로 들고 나가는 데 이 때 정한수는 반드시 새로 갈아주어야 한다. 대문에도 백시루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데 이 때도 정한수는 반드시 갈아준다. 주택을 개량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집이 개인우물을 가지고 있어 우물에도 놓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금고 등 돈을 모아 놓은 곳과 경운기 등 생업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한 기계 앞과 각 방, 부엌, 창 등에도 떡을 놓았으나 자신은 화장실 앞에는 놓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옛날에 사용하던 대시루는 이제 양은시루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시루떡을 준비한다. 동네사람들과 떡을 나누던 때에는 최소 한 말이 기본이 있으나 지금은 3~5되를 넘지 않는다. 술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특히 자녀 분들이 고사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고사떡을 나누기도 하고, 주인 아주머니인 박영분씨가 상대원에서 무선통신 대리점을 경영하는 아드님집에 가서 직접 고사를 해주기도 한다. 아드님은 고사를 지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다

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매년 고사를 지내는 것을 거르지 않는다고 한다.

시루는 봄은 설기로 안시루를 찌고 그 뒤에 맥설기를 얹어 산시루를 만든다. 살차림도 간단해서 안시루는 상 가운데에 시루를 놓고 그 위에 정한수를 올려 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산시루는 상 원쪽에 백설기를 놓고 오른쪽에 정한수를 떠 놓으며 다른 계통은 걸드리지 않는다. 비록 살차림은 간단하지만 백일, 결혼식, 환갑 등 집안에 일이 생길 때는 박을 짓어 설주와 터주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 등 별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2) 하산운동

① 박춘순씨 댁

가. 유래와 역사

하산운동은 운중동에 비해 교인이 많아 살대책으로 가을고사를 지내는 점이 적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춘순씨댁처럼 여전히 가을고사를 지내는 점이 있다. 이 댁은 5~6대 전부터 하산운동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외지로 나가 살고 있다. 예전에는 절원고사도 지냈었는데 박춘순씨가 연로해지면서 며느리가 가을고사만 이어가고 있다.

조사에 응해주었던 며느님의 기억에는 시집온 이후 활토흙을 대문에다 놓는다던지, 금줄을 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지금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사는 계속 지낸다는데 5남매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을고사 지내는 것을 탑탁히 않게 여겨 앞으로 이 댁에서는 가을고사가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매년 가을 터주끼리를 새로 만들어 놓는다. 예전에는 달리 지금은 안에 단지 없이 그냥 말뚝만 있다고 한다. 성주단지나

삼신주머니는 예전부터도 없었다고 해서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현재 가을고사를 지내는 며느리가 사귈오기 전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가을고사를 맡아 지내는 며느리가 직접 백일을 한다. 조계사에서 발행된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12지지의 그림을 보고 그 중 봄지날, 말날 중 적당한 시기를 정한다. 보통 소난도 손없는 날로 생각하는 다른 집과는 달리 소난은 좋은 날로 보지 않아 봄지날, 말날 중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색다른 점이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주로 새비 등 조용한 시간을 땍해서 지내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 이 땍에서는 시루떡이 완성되는데로 바로 치낸다. 제일 먼저 대청마루에 상을 차리고 간단히 비춘만 한 다음 부엌, 대문 등에 가지다 놓는 것으로 끝난다. 예전에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에다도 놓았다고 한다. 화장실에도 놓지 않는다는 물음에 “아니 왜 먹는 것을 화장실 앞에 놔. 난 그렇게는 안해봤어.”라는 말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조사 중 현재 가을고사를 지내는 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에 떡을 가져다 놓는 예는 많이 없었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대부분의 모든 가정에서 치련 이 땍에서도 시루떡의 양이 많이 축소되어 많이 해도 5되를 넘지 않는다. 현재는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오는데 백설기 없이 떡을 설키로 만시투만 한다. 예전부터 산시부 즉, 백설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상자림은 상위에 시루채 얹고 오른편에 청한수를 떠 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올리지 않아 간소하다. 백일이나 환갑 등 깊안에 일이 있어도 대부분 외부 요식업체에서 치르기 때문에 따로 맥을 한다거나 해서 고사를 지내는 일은 없다고 한다. 둥지때도 팔죽을 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사도 없으며, 보름날에는 오곡밥을 하지만 이 역시 따로 고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2) 윤동구씨 대

가. 유래와 역사

'가을고사'라고 하며 고사는 10월에 하는 가을고사만 하고 정월고사는 하지 않는다.

윤동구씨 부부는 평안도가 고향인데 6.25 때 피난하여 하산운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사를 지내는 방식은 윤동구의 처가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이웃에서 하는 방식들을 보고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과거부터 특별히 신체를 모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달에 주로 말날을 선택하여 한다. 금년에도 10월 말날에 했는데 양력으로는 2000년 11월 8일 아침 7시 30분 경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했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조사자가 아침 일찍 윤동구의 집을 방문하여 10여 분을 기다리자 윤동구의 처는 밤았간에 가서 고사떡을 해왔다. 그는 고사떡을 부엌에 내려놓고 고사떡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담았다. 대청에 떡을 한 접시를 놓고, 막걸리를 놓은 후 절을 하고 간단히 비손을 했다. 그리고 창독대로 가서 떡과 막걸리를 놓고 서서 절을 하고 비손을 했다. 그리고 부엌, 각 방, 창고, 굳뚝, 대문 앞 등 집안 곳곳에 떡과 막걸리를 놓았다 잠시 후 거두어 왔다. 대문 앞에 놓은 막걸리는 이 집 가장인 윤동구가 마셨다. 이 술은 마시면 좋다고 한다. 제의 진행은 윤동구의 처 혼자서 했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구경만 했다.

고사를 지낸 후 조사자와 윤동구의 가족들은 음복을 했는데, 떡은 이웃집

에도 몇 짐 나누어준다고 한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떡과 막걸리 외에 특별한 재물은 없다.

3) 백현동

① 홍대석씨 대

가. 유래와 역사

고사는 정월달과 10월 달에 한다. 정월에 하는 것을 '정월고사'라고 하고

10월달에 하는 것을 '가을고사'라고 한다. 한은녀씨에 의하면 고사는 옛날부터 집안에서 내려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백현동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출생하여 출곧 살아왔다. 남편은 데릴사위로 왔다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현재 家神의 神體를 모신 것은 안방 창문 옆에 둔 '업대감합아리'가 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 업대감합아리 속에는 쌈이 들어있다. 한은녀에 의하면, 파거 6.25 때 쌀을 창아리 속에 넣어 대문근처에 묻어놓고 피난을 갔다 왔는데 와서 할아리를 열어보니 쪽재비가 많아 있었던 것처럼 줄알이 오독하게 과여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궁내동에 있는 만신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집의 "업"으로서 이 집에는 쪽재비업이 들었다고 하며 업황아리를 모시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 할아리에 쌀을 넣어 안방 창문 밑에 항상 모셔 왔다고 한다. 때년 쌀을 넣어 두면 창아리 속의 쌀을 전혀 벌레를 먹지 않고 신선하다고 한다. 쌀은 때년 가을 추수 후에 갈아준다고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제는 정월단과 10월 단에 하는데 정월단에 하는 것은 주로 정초에 하며 절초를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제일 선정은 손 없는 날을 택일하여 정한다.

금년에는 음력 10월 초하루날 아침 8시에 가을고사를 했는데 머느리가 출근(정신문화연구원 구내식당에 근무)해야 함으로 아침 일찍 했다. 조사자가 7시 30분경에 도착하니 머느리는 고사에 사용할 떡을 하기 위해 방앗간에 갔다가 마침 들어오고 있었다. 과거에는 떡풀을 담아 절구통에 꽂아 집에서 시루에 쪘으나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한다고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그 절차를 살펴보면, 마무 방문 드나드는 곳 앞(방문 앞)에 사(성주께) 席(상은 맥시루와 막걸리, 촛불만으로 간단히 차려 놓았다.)을 놓고 비손하고 → 건너방 문 앞에서(걸림께) 삼 놓고 비손 → 안방의 할아리에(업대감합아리)

에다 떡 한 그릇, 술 한잔 놓고 비손 → 무언에 떡, 술 놓고 비손 → 터줏대감에 터주기리가 있던 자리 지금은 곳간이 있다.)에 떡, 술 놓고 비손 → 장관(장독 위에 떡, 술 놓고 비손, 잘맛 좋으라고), 우물에다(용왕께 우물 잘 나오라고) 떡, 술 놓고 비손 → 대문에(수비 먹고 가라고 주는 것, 문신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님) → 차고 앞에(차에 아무 탈 없게) → 뒷문 둑에(수비에게 먹고 가라고) 위와 같이 한다. 그 후 대문으로 가서 떡을 조금 빼어서 철대문 창살 및 곳에 부체 두고, 술은 주위에 뿌리며, 다른 곳도 떡을 조금 빼어서 주위에 던지고, 술도 주위에 뿌린다. 남은 떡과 평반은 잠시 후 다시 가져간다.

제의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한다. 시어머니 한온녀가 아파서 이날은 시어머니가 일리주는 대로 며느리가 고사를 진행했다. 다른 가족들은 앞에서 구경만 했을 뿐 고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고사가 끝난 후 떡을 이웃집에 조금씩 나누어준다고 한다. 조사자에게도 떡을 싸주었다.

마. 제의 도구와 제물

제물은 떡과 막걸리가 전부였다. 촛불은 켰으나 향은 퍼우지 않고 소지도 올리지 않았다.

(2) 이강임씨 댁

가. 유래와 역사

이강임씨는 집안의 만여느리로서 온갖 제사를 도맡아 처리오신 시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대로 지금까지 가을고사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예전보다 고사의 규모가 많이 간소화되고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고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문자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는 거르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도 계속 고사를 치를 의사였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 집에서 모시고 있는 신체로는 삼신주머니가 유일하다. 이것도 한동안 없어졌었는데 40~50년 전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들인 현재의 남편이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유명하다는 약국이나 병원은 다녀보았지만 급기야는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하다하다 안되어서 굿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다시 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때 만신이 삼신할머니를 모시라고 해서 그 때부터 다시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삼신할머니는 안방에 모셔져 있는데 그 모양은 베에다 쌀을 넣고 반을 접어 실타래와 함께 한지도 고한을 접어 빼어 놓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이웃마을인 궁내동에 만신이 있어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 곳에 가서 택일을 해오곤 했다고 한다. 때만 되면 굿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신과의 관계가 돈독했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만신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절에 가서 스님께 고사일을 받아 온다고 한다.

가을고사는 10월 상단에 치르는데 식구들의 사주를 모두 봐서 가족들 모두에게 해가 없는 좋은 날로 택일한다. 보통 개인이 택일 할 때는 소날, 말날, 돼지날 등이 손없는 날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구들 사주를 모두 맞춰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가 없다고 한다.

고향인 충청도에서는 고사를 지내기 전에 황보흙을 대문 앞에 내놓았던 기억이 있는데 시집 온 뒤 시집에서는 이처럼 하지 않더라고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말해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3시경이 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의 밤다른 도움없이 아주머니 혼자서 고사를 지내는 일이 많다. 제일 먼저 시루를 가져다가 한발 문 앞에 놓고 그 중 백설기를 가져다가 삼신할머니께 드린다.

그 뒤 장독, 각 방, 지하실, 부엌 카스レン지 위, 화장실, 대문 등에 가져다 놓는다.

예전에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에다가도 가져다 놓고 “물할아버지, 물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풀을 놓을 때 우물, 장독, 대문에는 술과 물을 함께 쓰며 특히 대문에는 고시래를 하듯 떡을 떼어 던진다고 한다.

비손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자 특별히 할 말이 뭐가 있느냐고 하시며 진설 후 절을 3~4회 정도 한 후 그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 댁에서는 1년에 2번 고사를 지내는데 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하시며 정원에 지내는 고사는 1년 내내 좋으라고 지내는 것이고, 가을에 지내는 고사는 추수를 한 후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내는 것이라 한다.

단, 아주머니의 고향인 충청도와 비교했을 때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조왕부터 모셨는데 이 곳에서는 성주부터 모시는 것이 다르더라고 하셨다.

마. 제의 도구와 제물

과거에는 고사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쌀이 2, 3斗을 들어갔으나 지금은 많이 해도 5斗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짐마다 맵쌀을 쓰기도 하고 찹쌀과 반씩 섞기도 하는 등 다양하지만 이 댁에서는 찹쌀만을 가지고 떡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시루라고 해서 예전부터 쓰던 커다란 시루에 직접 떡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깨지지 않고 안전한 양철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찹쌀을 밤았간에서 가루를 내어 퀵으로 가지고 와 시루에 담아 붉은 판을 넣어 붉은 시루를 만든 뒤 그 위에 백설기를 함께 얹어 삼신할머니 앞에 놓을 제물을 마련하는데 특히 이 백설기는 식구를 끼리만 먹는다고 한다. 상을 차릴 때 기본적으로 가운데다가 시루를 놓은 다음 그 위에 붕어와 막걸리를 놓고 오른쪽에 정한수를 떠 놓는다. 특히 이 퀵에서는 막걸리를 많이 사용하는 관으로 한 번 고사치낼 때마다 3~4병 정도 듦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접 철구에 뺨을 찔어서 떡을 만들었고, 상에는 나물과 과일을 함께 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는 생략되었다.

4) 궁내동

마을 노인장에서 만난 8명의 할머니 중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을 제외한 7분의 할머니가 모두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중 칵안고사를 지내는 회수는 1회~3회로 다양한데, 가을고사는 모두 지내며, 정월고사 외에 7월에도 비슷한 수의 사람이 고사를 지냈다. 할머니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을 토박이들은 대부분 고사를 지내지” 하고 대답했다.

① 안경우씨 댁

가. 유래와 역사

정월에 하는 것을 ‘정월고사’, 7월 칠석에 하는 고사를 ‘칠월고사’, 가을에 하는 고사를 ‘가을고사’라고 한다. 안경우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 사람과 결혼을 했으므로 고사를 지내는 것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 그대로 라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家神’을 모시는 神龕은 없다. 과거 시어머니때도 없었으며 안경우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정월고사는 정월 초순에 하며 주로 초사흘날에 많이 한다고 한다. 7월고사는 칠석날이며, 가을고사는 10월에 날을 칵아 말날 또는 쇄지날에 한다.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야워, 낮, 저녁 등 일정하지 않으며 그 날의 형편에 따라 한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굿을 할 때 문 좌우에 황도와 정화수를 띠놓았는데 고사지낼 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마루 대청에 床을 펴고 그 위에 술과 정화수, 안시루를 올려놓고, 불사시루는 안방다락에 진설해 놓은 후 대청으로 와서 성주께 절을 하고 家內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단라는 등의 비손을 하고, 불사가 있는 곳(안방다락)으로 간다. 여기서도 비손을 하고, 터주가 있는 곳(장독대)로 간다. 이때는 성주 상에 올린 안시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술만 새것으로 옮리고 비손을 한다. 이때 산시루도 가지고 와서 근처의 장독대에 옮리고 산쪽을 바라보고 비손을 한다. 다시 터주에서 사용한 안시루를 들고 대문 앞에 갖다 놓고 비손을 한다. 맥을 조금 빼어 대문 창살 여기 저기에 조금 끼우고, 백조각을 밖으로 던지고, 술도 뿐리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안시루의 떡을 나누어 접시 여러개에 담은 후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위, 각 방, 우물, 광 등 집안 여기저기에 놓았다가 잠시 후에 가지고 온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떡시루는 다음과 같이 여러개를 준비한다. 안시루(풀가루를 위에 올린 불은설기), 불사시루(작은 시루 3개에 백설기를 편 것), 산시루(백설기), 안시루는 집안의 죄고신인 성주를 위해 한 것이고, 불사시루는 안방 다락 위에 모시는 불사를 위한 것이며, 산시루는 산신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조사자의 견례로 불사는 굳이 구분한다면 불사할머니를 위한 것이나 삼신할머니, 집안의 조상 등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맥은 메쌀과 찰쌀을 섞어서 하는데 벽 속에 흙이나 무를 넣기도 한다. 떡시루와 함께 따걸리 한 병과 돼지고기 삶은 것과 경화수를 함께 준비한다. 초, 햄, 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물에 있어서 경월과 가을고사는 위와 같이 하나 7월고사는 빙떡을 추가한다 한다.

② 이은필씨 댁

가. 유래와 역사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안정혜씨는 친정할머니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지금까지 가을에 고사를 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가을고사'라는 말 이외엔 별다르게 부르는 말은 없다며 수진동에서 궁내동으로 절가를 온 날엔 이은필씨가 조사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안방 아랫복에 걸어두었던 삼신주머니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대신에 살신주머니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삼신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편을 쓰기도 하고 창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그 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쌀이나 다른 물건들을 넣고 가운데를 잡아 마치 한복 바지모양이 되게 껌 만들어 그 위에 고깔모양으로 창호지를 접어 쐐워놓는다는 것은 대체로 동일하다.

6.25전에는 동네에 터주까리 있는 집도 많고 성주단지 있는 집도 많았지만 6.25를 겪고 나서부터는 절차로 사라져 1960년대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터주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물론 조사결과 이 동네에서도 아직 터주까리나 삼신주머니를 여전히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선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닌가는 더 이상 마을 분들의 관심이 대상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부터 굿을 많이 하는 집일수록 터주를 열심히 잡아 터주까리를 만들어 1년에 한번씩 잘아주며 삼신주머니도 1년에 한번씩 팔을 같아주는데 이 때 특별한 금기는 없다고 한다. 안정혜씨는 모든 집에서 다 성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대감이 있는 사람만 모시는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는 성주대감이 있어 성주를 모시며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고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고사지내는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고 물자 벽에 걸려있는 조계사에서 발행한 달력을 떼어다 바닥에 펼쳐 놓고 “좋은 날, 손 없고 좋은 날로 골라야지. 이렇게 봄지날, 소날, 말날이 좋은 날이야.”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오나 갑진, 갑오도 훈찮으나 병진 등 병(壬)이 들어가는 날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다고 한다.

가을고사는 시월살달 중 적당한 날을 택일하고, 정월에 고사를 치낼 때는 초하루는 피해 날을 잡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고사지내는 천날 황토흙을 떠다가 대문 앞 세군데에 놓아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금줄을 썼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도 금줄은 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친정 할머니께서는 금줄을 치지 않으셨냐고 물었으나 금줄은 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치낼 떡이 다 찍지면 흰 백설기와 물과 술을 준비하여 산에다 대고 비는 것으로 고사가 시작된다. 장소는 대청마루로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려진다. 안경해씨의 설명에 의하면 굳에 12거리가 있듯이 고사도 여러 신들에게 일일이 따로 준비하여 고사를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 제일 먼저 하얀 산시루를 쳐서 산치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산시루를 백설기로 따로 시루를 준비해서 썼지만 요즘에는 붉은 시루에 위에 조그맣게 백설기를 엮어서 찍낸다고 한다. 산에다 대고 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청마루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서 간단히 비손을 하며 그 다음에는 성주대감에게 비손을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빈다. 시간은 보통 아침 10시경쯤 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한가한 때를 대하는데 대청마루에서 고사가 끝나면 붉은 시루떡을 잘라 각 방, 부엌, 우물, 장독, 문전 등 곳곳에 놓는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시켜 동네에 일일이 떡을 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혼자서 고사를 치내는 게 보통이다. 짖吠이 좋아야 집안이 잘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고 하면서 지금도 장독에 는 떡과 물과 막걸리 한 사발을 떠서 놓고, 문전에도 좋은 일 있으라는 뜻으로 떡과 물, 막걸리를 놓는다. 즉 안정혜씨 집에서 막걸리를 놓는 곳은 성주와 터주와 대문, 절림 등 네 곳이며 이 외 방에는 떡만 놓게 된다. 차가 있는 곳에서는 차예다가도 막걸리를 놓기도 하는 등 특별히 정해진 곳 이외에도 고사를 치르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여러 곳에 막걸리가 뿌려진다. 고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할머니 혼자서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마. 제의 도구와 제물

과거에는 시루를 여러 개 쪘던 곳마다 각각 다른 시루로 고사를 지냈으나 이제는 하나의 시루에 붉은 설기와 백설기를 한번에 써서 그것으로 고사를 치른다. 작은 상에 시루를 올려놓고 왼쪽에는 청한수를 떠놓고 오른쪽에는 막걸리를 한 사발 놓는 것이 기본적이 고사상 차림이다. 이 외 다른 것은 놓지 않는 간단한 상차림으로 가을고사가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짐을 알 수 있다.

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떡을 몇몇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나 이제는 사람들이 전처럼 떡을 먹지 않아 때로는 내다버리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시루를 적게 써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3) 방영분씨 떡

마을 노인장에서 만난 할머니들 가운데 세 번 모두 지내면서 神體를 가지고 있는 집은 방영분할머니 댁뿐이었다. 집 뒤 창독대 근처에는 '터주가리', 안방 다턕에는 '불사주머니(삼신이라고도 한다)'가 매달려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대감향아리'가 있었다.

터주가리에는 향아리 속에 벼와 사고지와 돈을 넣고 위에 짚가리를 썼었다. 불사주머니에는 소참 주미니에 쌀을 넣어 창호지로 고함을 만들어 써어 놓았다. 조사자 백현동에 갔을 때는 불사주머니에 실타래도 함께 달아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집에는 실타래는 단지 많았다. 대감항아리에는 단지 속에 쌀과 돈을 넣어두었다.

터주가리와 불사주머니의 짧은 가을에 쫓아 그 쌀로 고사를 지내고 새것으로 넣는다고 한다. 대감항아리는 7월에 쫓아 고사를 지내고 빈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가을에 새것으로 간다 한다.

방한머니는 과거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신체(神體)도 그대로 모시고 고사도 옛날 해오던 방식대로 한번도 쉬지 않고 해왔다 한다.

5) 대장동

① 박승구씨 댁

가. 유래와 역사

고사의 병침을 정월에 하는 것을 '정원고사', 칠석에 하는 것을 '칠월고사', 사월에 하는 것을 '가을고사'라고 한다.

박승구는 수원에서 대장동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 집에서 하는 가신고사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라고 한다. 박승구는 지금도 과거 집안에서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고 한다. 시집에서 하는 것과 친정에서 하는 것에 차이점을 조사자가 묻자 박승구는 약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현재 박승구씨 댁에서 남아 있는 가신(家神)의 신체(神體)는 터주가리이다. 터주가리는 걸 뒤의 정독대 옆에 만들어 놓았다. 터주가리 속에 단지는 넣지 않고 말뚝을 끌어놓고 터주가리만 씩 위 놓았다. 과거에는 시주단지(속)에 짧을 넣어 둘, 마루에 있었다고 함)와 지석주머니(짧을 넣어둔 무명주머니)와 실타래를 달아매고 위에 종이고깔을 쬐워 둘, 안방 다락에 있었다고 함)도

있었으나 40년전 시어머니와 분가한 후 박승구는 시주단지와 지석주머니는 없었다고 한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고사는 정월과 칠석, 10월 상단에 한다. 정월에 하는 것은 보름 안에 길일(吉日)을 정해서 하는데 보름 후에는 하지 않는다. 10월 상단도 길일(吉日)을 정하여 주로 말날 또는 데지날에 한다. 고사시간은 주로 저녁에 한다. 과거에는 고사날 황토흙과 물을 대문 좌우에 뿐놓았으나 40년전부터는 안했다고 한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낼 때 순서는 성주(대정) → 터주끼리(장독대) → 지석(한방구석, 지석주머니가 있던 곳) → 우물 → 화장실 → 대문에서 하고, 잠시 있다가 한밤 중이 되면 대간(마루의 안방 입구 끝 대간항아리가 있던 곳)에 한다.

각 신체 앞에 진설은 떡시루와 정화수만을 올리며, 한꺼번에 각 신체(神體) 앞에 진설을 하고 성주 앞에는 절을 세 번 하고 비손을 하며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신체의 경우는 위의 순서대로 가서 절을 하고 비손을 하고 철상(鐵床)한다고 한다.

마. 제의 도구와 제물

떡시루는 안시루, 터주시루, 지석시루, 대간시루, 우물(용왕)시루, 화장실 시루, 문간시루로 모두 일곱 시루를 된다. 모든 시루의 벽은 베빨과 참빨을 넣어 하는데 안시루는 팔가부를 위에 올린 붉은설기를 하고, 터주시루는 상단에는 백설기 하단에는 팔을 넣어 하며, 대간시루는 팔가루에 검정콩을 비무려 짜며, 우물시루는 안시루와 같이 붉은설기를 짜며, 화장실시루도 붉은설기를 한다고 한다.

② 유영자씨 대

가. 유래와 역사

유영자씨는 이 곳으로 시집을 온 후 시어머니께 배운대로 가을고사를 지내고 있다. 친정과 시집이 가을고사를 지내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면서 친정에서는 가을고사를 지내기 전 대문 밖에다 황토흙을 떠다 놓은 했는데 시집에서는 하지 않고, 대문 밖에 물도 떠다 놓지 않아 처음에는 의아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이원주(84세)씨 역시 엄밀히 말하면 이 곳 토박이가 아니라 황해도 평산에서 14후회 이전에 이주한 소위 이북 분이다. 따라서 가을고사를 지내는 방법도 이북식이 섞여 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처럼 이북에서 원남한 가구수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한 마을의 풍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는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체의 위치와 형태

유영자씨의 시할아버지는 이북에서 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러나 공산당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4후회 이전에 본 고향이었던 이 곳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 이주한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고사를 지내지 않았으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조상을 잘 모시지를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하는 생각에 다시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는 조상단지를 단지가 아닌 궤까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는 대감옷, 범거자 등이 들어있었으며 대문에 폐달이 놓고 때되면 고사를 지내곤 했다고 한다. 이는 3년에 한번씩 굿을 할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꿔주곤 했는데 많이 넣을 때는 16벌이 들어갔다고 한다. 새 옷으로 바꿔줄 때는 본래 안에 들어있던 옷은 태웠다. 이런 방식은 이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복에서 했던 밥식대로 계속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감할아리는 전년방 구석에 있었는데 1년에 한번씩 칫모내기 할 때 그 밭을 빼내 밭을 지어서 일꾼들에게 빼미곤 했다고 한다. 백장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지식단지를 모셨었고 터주를 장독대에 모시기도 했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다. 제일 및 준비과정

시어머니가 고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했을 때에는 성남 창곡동에서 살았던 이복할머니라는 별칭의 만신에게 고사날짜를 물었으나 현재는 며느리인 유영자씨가 광불암이라는 암자에 가서 택일을 해온다.

라. 제의 절차와 내용

집에서 직접 떡을 써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밤낮간에서 시루떡을 해오는데 시간에 구애되어 없이 떡이 준비되는 대로 고사를 시작한다. 시어머니가 연로하신 관계로 지금은 주로 며느리인 유영자씨 혼자서 간소하게 고사를 치르는 게 보통이다.

제일 먼저 안시루를 바꾸에다 놓고 비춘을 하고 절을 한 후에 장독대 있는 자리에 가서 산 쪽을 바라보면 다시 비춘한다. 그 다음에 땅마다 떡을 다 놓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고사를 치를 때 7시루를 짜기도 했는데 그 때는 대감할아리 있는 곳, 장독대 있는 곳 등 7곳에 각기 다른 시루를 놓았다고 한다.

마. 제의 도구와 재물

유영자씨가 시집을 온 처음 얼마동안은 고사지낼 때 시루를 7개를 썼었다고 한다. 그 중 끝시루가 4개이고 백설기가 3시루(조상시루, 친성시루, 산시루)였다. 고사상은 성남의 대부분이 간소하게 치라는 반면 이 곳은 상대적으로 올리는 재물이 많았다. 상의 가운데는 시루를 옮겨 그 안에 막걸리를 떠놓으며, 왼쪽에는 돼지머리, 오른쪽에는 사과, 배, 감 등의 과실을 놓는다. 곳곳에 놓을 때마다 백과 과일, 술은 새 것을 놓지만 볶어는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동차가 있는 곳에는 새 복어를 꺼내서 놓는다고 한다.

정월고사는 지내지 않는 반면 칠석 때는 하얀 밀떡을 부쳐 절에 가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혹시 “동지에는 팔죽을 써 고사를 지내느냐”고 묻자 이 마음에서는 팔죽을 쓰는 사람이 없다 한다.

〈김 덕 목〉

제4장

판교 지역의 문학

I. 판교 지역의 구비문학

한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설화는 그 자체로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그 민족의 생활상이 매우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와 설화 문학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후대에 계승하는 일만큼 뜻깊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발을 앞두고 있는 판교 일대의 설화 문학을 조사, 보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개발 발표를 전후로 하여 본보바이들은 그들의 오랜 생활 터전을 떠났으며 오히려 부동산 이익을 쟁기려는 많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해 원활한 조사가 되지 못했음을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재화할 수 있는 이야기의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의 오래 사신 몇몇 노인분들이나 노인회장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고, 그나마 순순한 이야기보다는 그 지형과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따라서 한국의 설화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로부터 시작하여 직접 채록한 이야기와 다른 서지적 자료에서 찾았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1. 설화의 개념

설화(說話)는 노래가 아닌 말로 전승(傳承)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로, 신화(神話)·전설(傳說)·민담(民謡)이 이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설화와 민담을 동일시하거나 민담을 다른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두기도 하지만 설화가 말 그대로 이야기-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설화는 기록된 것도 있으나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며, 따라서 단순하고 간편한 표현형식을 갖는다. 또한 이에는 한 문화 집단의 생활, 감정, 품습,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서사민요·서사무가·관소리 등이 대개 운율이 있는 글이 말로 표현되는 데 반하여 설화는 산문으로 되어 표현된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설화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설화가 서사물, 즉 소설의 모태라는 관점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다. 그러나 모든 옛날 이야기가 다 설화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옛이야기 중에서 일상적인 갑답이나 역사적 사실 등은 문학성이 없는 것이므로 설화가 아니다. 갑답은 일정한 구조가 없고 역사적 사실은 꾸미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 상징성을 지니면서 서사 문학의 근원이 된다.

2. 설화의 특징

설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천된다는 점으로, 서사의 내용이 구연자로부터

청자에게로 직접 소통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전되는 이야기는 이야기에 대한 문화 집단 내부의 관습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끈을 끊으나 헤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의 일부분을 구연자가 재랄껏 변형시킬 수 있다. 즉 구연자는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 말씀씨를 발휘해서 이야기의 세부(細部)나 형태적 요소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구전에 적합하도록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며, 표현도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구전되기 때문에 보존과 전달 과정은 유동적이며 가변적이다. 이러한 구비 전승되는 설화를 문자로 정착시키면서 문헌 설화가 되고, 설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학적 복잡성을 가미하면 소설이 된다. 설화에서 소설로의 이행은 구비 문학이 기록 문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설화 중 민담의 일부는 전래 동화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 구전된다(보존과 전달상태가 가변적이다). → 설화의 구전은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에 화자 나름대로의 수식을 덧보태서 이루어 진다.
- 산문성 : 일상의 말로써 구연되며, 규칙적인 음격은 발견되지 않는다.
- 설화는 반드시 화자가 청자를 대면해서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된다.
- 구비문학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 문자로 기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흔히 가지는 것이 설화다.
- 설화를 정착시켜 기록문학적 복잡성을 가미하면 소설이 된다.
- 설화는 구비문학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다.

3. 설화의 갈래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설화는 보통 신화(神話, myth), 전설(傳說, legend), 민담(民謡, folktale)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신화, 전설, 민담으로 3분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사이에 확연한 선을 긋는 것은 곤란하며,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다른 것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를 하나 하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신화(神話, myth)

신화를 뜻하는 'myth'는 그리스어의 'mythos'에서 유래하는데, 논리적인 사고 네지 그 결과의 언어적 표현인 로고스(logos)의 상대어로서, 사실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그 뒤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신성한 서술(敘述)'이라 할 수 있다. 즉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하여 엮어져 전해오는 이야기로서, 신화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까닭은 이 말이 설화나 전설 또는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등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화라고 총칭되는 것이 다소 모호하기는 해도, 인간의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화에 학문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는, 각 문화에 따라 그 사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고의 이야기를 신성한 설화로 전승하여 왔으나, 그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활당무계하고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과 진귀한 일들이 속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부도덕

했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질서나 생활방식의 규칙이 생기기 이전의 혼돈된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의 구별도 이따금 무시되어 동물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고 동물도 인간도 아닌 선조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이다. 신화가 말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고에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청령 등의 구별이 없었거나, 있어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화를 선성시해서 전승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화는 인간의 운명과 질서에 대한 진실로 믿어졌으며, 규범으로서 세부적인 생활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각각의 문화 속에서 고유의 선성한 설화를 만들어내고, 또 전승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에는 언제나 신화가 반영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신화는 한 집단이나 민족의 기원 혹은 건국, 우주와 인간의 관계, 민족적 생존을 위한 투쟁, 지도 이념 등 한 민족 내지 인류 전체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신화의 세계는 반드시 초인간적인 존재, 즉 신들이 개입하여 일상적인 경험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문제가 일상적 인간의 차원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전실하고도 신설한 이야기로 수용된다.

한편, 인간의 영위와 신화의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통, 신화는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인인 남성들에겐만 그것도 함부로 입밖에 내서는 안될 비전으로 가르쳤다. 더구나 대개의 경우, 비전을 가르치는 데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깊은 끝까지 깨닫는 자의 수는 한정되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무의식중에 신화를 반영하고, 윤리와 질서를 반영시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 (1) 신화는 일상적 경험의 합리성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의 위엄을 다루거나 자연 및 사회 현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 (2) 신성성, 초자연성, 절단성, 학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3) 우리나라의 신화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국가로서 자리틀 잡은 1세기 경까지 해당한다.
 (4) 한천하는 우리나라의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간국 시조 신화”이다.

나라	신화	내용
고조선	단군 신화	고조선 건국신화로 출현민족의 이념이 제시됨
고구려	주몽 신화	동방왕의 출생에서부터 건국의 창업까지를 묘사한 분장족 주님에 나오는 신화
신라	박혁거제 신화	나중 근처에서 밀건현 앞에서 태어난 혁거제 사람들의 후대로 일금이 풍
	석달매 신화	풀에서 나와 미라진 뒤 낭비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일금으로 석달의 시조 설화
	김일지 신화	개암피 나루에 걸렸던 금궤에서 태어난다고 전해지는 경주 김씨의 시조 설화
가락국	김수로황 신화	앞에서 태어난 혼령의 아들을 출 가락국의 왕이 된 김씨 김씨의 시조설화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신화는 건국 시조와 그 원조의 생애담을 줄거리로 하는 일정한 유형을 보여준다. ‘신이의 탄생 → 신성의 결혼 → 등극 → 사후의 이적’이 그 유형이다. 이것은 탄생과 결혼과 취임 등의 일련의 통과체계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신화의 구성과 대응되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 유형은 전승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이의 탄생 모티프가 지상 세계의 하강 모티프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 하강 모티프의 경우에는 하강하는 주체가 갖단 아기가 아닌 성인이라는 특징을 지나게 된다. 이러한 주체는 건국 시조이기보다는 원조라고 보는 것이 옳다. ‘주몽신화’의 해모수는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2) 전설(傳說, legend)

민간신화 또는 구비문학의 한 유형으로, 구전의 대상은 원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사건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전승되어 왔으며, 바로 이 점에서

신화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전설은 신화의 신성성이 제거된 인간적 차원의 이야기이고, 또 이야기와 관련된 사물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어떤 지역의 바위, 연못, 나무 등 자연물이나 사찰, 역사적 인물 등에 얹혀 전해 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전설은 신화처럼 신성미는 없지만, 지역인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속성이 있다. 신화의 전설성은 관념에 의해 수용되지만, 전설의 전설성은 실제 존재하는 사물이나 인물에 의해 입증되는 셈이다. 그리고 신화가 주인공의 영웅적 일생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데 반해, 전설은 인물의 간들을 중심으로 대개 비극적 결말을 가져온다.

전설은 옛날에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믿어진 역사, 또는 역사화 과정을 거친다. 텐 처음부터 이야기 자체를 허구라고 생각했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다면 전승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산이나 호수 또는 곡물의 기원에 관한 것처럼 이야기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화에 접근하여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설은 그 역사성,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증명으로서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사항의 발증을 찾아야 하고, 기념물 또는 그곳에서 일었던 사관의 자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와 관련되는 사물을 직접 확보·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사실증명의 구체화를 시도하여, 현지에서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 그 시간적 생명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전설을 전할 때에는 분명하게 완결된 한 편의 이야기로서 말하는 경우와, 눈앞의 사태 즉 관심을 끄는 사물에 입각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진지하고 소박한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는 신앙 또는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언제나 역사상의 사건처럼 이야기하려 하였고 신빙성이 중시되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을 주인할 증거들이 필요했고 이는 현실성·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독립된 한 편의 이야기로서 기복이 많고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경우와, 눈앞에 있는 사물의 유래를 간단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때와 장소에 따라 길이와 내용이 자유자재였다.

- (1) 평범한 인간 혹은 비범하다 해도 예사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민물들을 쟁취 자로 한, 설계로 일었다고 믿어지거나 혹은 그러한 믿음을 흐리우는 이야기
- (2) 개별적 증거들의 동반, 원증과 저역성을 지니며, 이야기 속의 간동을 손쉬운 낙관적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은 진지함을 보여준다.
- (3) 설화 중 가장 많은 문헌 자료가 남아 있으며, 현대에 와서 수집된 것도 적지 않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 치리지> 등.

여기에 관교동, 운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단천과 삼천갑자 동방삭”의 전설과 그 밖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단천과 삼천갑자 동방삭”의 전설

‘단천’은 성남시의 중앙부를 남에서 북으로 통과하는 한강의 줄기로 ‘숯내’라는 순수한 우리말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있으나, 청백리 “이치직” 선생님의 호가 ‘단천’이라는 테세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분당 신도시 건설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는 단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여지고 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삼천갑자를 살았으니 얼마만큼 오래오래 살았겠는가를 엣수로 따져보면 약 18만년의 장수 기록 보유자로서 이는 천상천하를 막론하고 온 세상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기에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아가기 위하여 계책을 꾸몄으나 위낙 장수한 자연지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천상의 육황상제가 동방삭을 잡기로 결심하고 사자를 단천 부근으로 보내어 단천에서 金(목단)을 췄고 있도록 명령하였다. 왜냐하면 육황상제는 동방삭이 단천 땅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자는 육황상제가 지시하는 대로 단천에서 숯을 췄고 있었는데, 냇물에다 숯을 췄으니 물은 자연적으로 검은 물이 흐르기 마련이다.

그때 마침 동방삭이 단천을 거슬로 올라가는데 기이하게도 검은 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자 이 상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천을 이리

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냇가에서 숯을 썻고 있는 건장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동방삭은 그날 지나간 리가 없었기에 숯을 썻고 있는 사람에게 “왜 숯을 물에 썼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자의 대답은 “숯이 회어지도 못 씻는다”라고 말했다. 동방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은 숯이 회어질리 없다고 생각하여,

“나는 살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썻어서 회개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크게 웃는 것을 보고 사자가 ‘이자가 동방삭이 틀림없구나’하고 그를 사로잡아 혹황상제께 두忝을 끌어 하여 드디어 동방삭의 인생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 내를 ‘숯내’ 또는 ‘탄천’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2001) 참조.

② 지형, 지명과 관련한 이야기

- 달래내 고개 : 이 고개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상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울로 통하는 길로, 이 달래내 고개에는 옛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는 설화가 한 편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옛날, 어려서 부모를 여읜 마음씨 착한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도록 혼연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낮 남매가 제 나머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난다. 갑자기 뜬아지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흠뻑 비에 젖고 말았다. 여름 모시옷이 배에 짓벼 묻에 짹 달라붙어서 알몸에 다 들어다보일 정도였다. 뒤틀어 기댄 오빠는 동생의 성장한 모습에 그만 남성의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오빠는 누이동생에게 먼저 침에 기면 끝 뒤 따래 가겠노라고 하였다.

먼저 침에 도착한 동생은 오빠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해 그 고개 바위에 기로니 괴우성이가 된 채 오빠가 죽어있었다. 오빠는 자신의 천동풀에게 특징을 느낀 자신이 부끄러워 물로 자신의 남근을 씻어 자살해버렸던 것이다.

이를 본 누이 동생은 물면서 “죽지 말고 차라리 달라고나 해보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이 고개를 ‘달래내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송기덕, 역, 74쪽)

- **외루니고개** : 이는 산운동에서 석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뜻하는데, ‘외루니’ 또는 ‘외문이’라고도 부른다. 이 명칭은 우리말 지명이 한자화 되면서 ‘산’(山)이 ‘뫼’, ‘문’(門)이 ‘문’으로 표기된 것인데, 계곡이 깊고 깊고 앞 뒷산에 구름이 많이 끼여 있어서는 곳이라 하여 ‘산문’(山門)이라 부른다고 한다. 참고로 ‘외루니’는 다시 ‘윗외루니’(상산문:上山門), 즉 웃말, 중산운리(중간 말:中山雲里), 하산운리(아랫 외루니, 下山雲里)로 나누어지고 그 중 하산운리가 법정동으로 되어 있다. 통산 ‘외루니’하면 산운동으로 법정동인 운중동의 전체를 뜻한다.
- **쇠푸니(쇠문이) 고개** : 이는 운중동과 금토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쇠’는 쇠붙이를 뜻하거나 자물쇠, 혹은 중수지리에서 지남철을 뜻하기도 하고 또 돈을 속된 말로 ‘쇠’라고 하였다. ‘문’은 한 문, 두 문…의 ‘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고개를 넘어 다니며 장사를 하여 돈(쇠)을 벌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금토동에 쇠를 쟀던 광매이 있어서 채굴을 하였으므로 ‘쇠파니’에서 ‘쇠푸니’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송기덕, 여, 74세)
- **신선(神仙)바위** : 삼평동의 성내미에 있는 바위인데, 마당바위에서 남쪽으로 300m 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에는 옛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한번, 이 바위에는 신선의 짚신 자국, 지팡이자국, 신선이 팔던 말발자국 등이 남아 있다고 한다.
- **모록내** : 대장동의 장토리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석기천의 현자 속칭이기도 하지만 하천 구간 중 오목하게 파인 부분을 뜻하는 이름이다. 전국적으로 ‘아기장수와 용마’ 이야기가 여러 곳에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곳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장수가 태어나 타고 다닐 용마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억울하게 죽자 용마도 이 못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고 한다.

③ 우물과 관련한 이야기

- 운중동 우물 : 몇 백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몇 가구밖에 살지 않았을 때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어 고생을 하던 중, 어느 대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여기다 우물을 파면 샘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대사가 치목해준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팠는대 정말 물이 쓰고, 샘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샘은 여름엔 차고 겨울엔 따뜻하다고 한다. 지금도 마르지 않았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다 지금은 덮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중월, 남, 56세)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 우물과 관련한 지명 또한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 두레우물 : 삼평동의 봉들마을 가운데 있었던 두레박우물로, 1950년대 까지 마을의 공동우물이었다고 한다. ‘두레박’은 줄을 길게 배달아 우물을 빼 올리는 기구이며 옛말은 ‘드레+박(바가지)’으로 ‘물을 들어 올리는 바가지’를 뜻한다.
- 미듬골우물 : 이 지역은 삼평동의 독전과 산거리 사이에 있는 마을 벌판의 맷밋한 곳에 자리잡았으므로 ‘미듬골’이라 하였다는 설과 이 마을의 대동우물인 ‘미동골우물’이 물맛이 좋으므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뜻에서 ‘미동골’이라 불렸다고도 한다. 참고로 마을 중앙에 있었던 미듬골우물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폐정되었고, 미듬골과 성내미 사이의 고개를 미듬골고개(혹은 성내미고개)라 부른다.
- 웃우물 : 벽현동의 국농골 안에 있었던 우물이다. 인근 주민들이 웃이 오르면 이 샘무로 씻어서 나왔으므로 웃우물이라 부른다고 한다.
- 용의 우물자리 : 삼평동에 있는 들로 사충동과 경계에 있는 들이다. 이곳은 사충동 벌말과 가까운 곳으로 이곳의 ‘용의 우물(용해우물)’은

두레박 2개로 퍼내도 샘이 마르지 않으므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과 같다 하여 '용의 우물'이라 하고 그 들판을 '용의 우물자리'라 불렀다고 한다.

3) 민담(民謡)

민간에 전승되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뜻한다. 신화나 전설과 구분할 수 있는 민담의 특징으로, 첫째 신화나 전설은 과거의 특정시대에 일어났던 일회적 사건을 그리는 반면, 민담은 과거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을 그린다. 둘째 신화나 전설이 현존 증거물에 대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경험을 설명하려는 객관성을 띠는 데 반해, 민담은 경험하는 사람 즉 극줄인물의 다양한 운명을 주관적으로 서술한다. 셋째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는 달관적인 관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민담에서는 주인공을 돋거나 해를 가하기 위한 힘이 되고, 주인공을 예정하였던 목표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전설·민담 사이에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재로 본다면 이 세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

단순히 '이야기' 또는 '옛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이바구'라 하기도 하였다. 이 옛이야기에는 동화는 물론, 지역전설 이외에 야사(야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밖에 일화(逸話)나 우화(寓話), 우스갯소리, 그리고 성인들 사이의 쟁(逞)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민담은 신성미나 증거물의 존재와 같은 제약이 없어서 그 분포가 세계적이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살았는데..."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흥미 중심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민담은 신화, 전설에 비하여 그 구조나 표현이 훨씬 유동적이다. 민담의 기본 형식은 한 인물의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지만, 전설의 주인공과 달리

시련에 좌절되지 않고 끝밖의 행운을 만나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이것은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다는 민중들의 낙관적 상상력의 표현이며,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담이 입으로 전해질 때 구전민담이라 하고, 구전되던 민담이 문자로 기록되면 문헌민담이라고 한다. 구전민담이 구비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면, 문헌민담은 기록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민담의 생명은 구천된다는데 있으 며, 그것이 기록되면 생명은 죽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록된 민담이 다시 민중들에게 구천될 때 비로소 그 문헌설화는 생명을 지나게 된다. 민담자료는 특히 현지조사에서 직접 얻은 원문 그대로의 것, 곧 현장성이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민담의 표현양식은 고정된 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 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은 서두와 결말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 민담의 서두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등으로 시작되고, 결말은 ‘이제 끝이오’ 등의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대개 고정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 잘 살다 죽었지’ 등의 행복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과 이야기의 출처를 밝히는 말, 해학적으로 이끄는 말 따위가 그것이다.

- (1) 흥미거리의 이야기로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 혹은 그 이화의 인물이되, 갖가지 난관 에 부딪혀도 다행스러운 계기와 도움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
- (2) 통화적인 천진성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로서,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다 는 민중들의 낙관적인 상상력의 표현이다.
- (3) 민담은 이야기의 구조가 단순하고도 세세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승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다방면에 얹힐을 필요하게 길막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4. 설화의 일반적 차이

지금까지 설화에 속하는 ‘신화’, ‘전설’, ‘민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정리할 수 있다.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진술자의 태도	신뢰한다고 믿음	진실하다고 믿음	흥미롭다고 믿음
시간과 장소	确定의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과 장소	무엇하지 않을
증거물	포괄적(우주, 국가)	개별적(바위, 개울 등)	보편적
주인공과 그 행위	초능력 벌휘, 신[神]	비범한 인간의 활약	범범한 민관의 일상회
전승 범위	씨족, 민족에 한정	지역에 한정	세계 두루
자아와 세계의 관계	자아 = 세계	세계 > 자아	자아 > 세계

1) 전승자의 태도

신화의 전승자는 신화를 진실 되고 신성한 것으로 인식한다. 신화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이야기이다. 사실로서의 근거는 증거물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민담의 전승자는 민담이 신성하다거나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로지 흥미를 위해서 민담은 구연된다.

2) 시간과 장소

신화는 아득한 태초에 일어난 일이고 특별한 신성장소를 무대로 삶는 것이 보통이다. 단군신화의 태백산 아사달은 신성장소의 좋은 예이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 내지는 사실성을 입증해주는 구실을 한다. 민담에는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3) 증거물

신화의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다. 천지창조신화에서는 천지가 증거물이고, 전국신화에서는 국가가 바로 증거물이다. 전설은 이와 달리 특정한 개별적 증거물을 가진다. 산이나 바위에 관한 전설은 산, 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 곳에 있는 모양의 산, 바위만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전설의 증거물은 자연물과 인공물, 그리고 인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전설을 떠나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민담은 증거물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이야기 자체로 종결된다. 더러 증거물을 갖는다 해도 널리 존재할 수 있는 현상 등이고,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첨부된다.

4) 주인공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며, 그는 신이 아닌 능력을 발휘한다. 전설의 주인공은 시대, 지역의 제한을 받는 구체적, 역사적 인물로서 신화나 민담의 주인공 보다 폐소하며, 때로는 사물이 중심이 된 전설도 있다.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간이며 난관에 봉착하여도 결국은 이를 극복한다. ‘바보’, ‘효자’ 등의 일정한 유형성을 띠는 관념적 존재이다. 때로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 등도 있다.

5) 전승 범위

신화는 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승된다. 또는 씨족(氏族)적, 부족(部族)적 범위로 국한되기도 한다. 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민족의 신화가 다른 민족의 것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민족에게는 신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다. 일정한 지역의 전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취시켜 사회적인 통합기능의 구실을 한다. 민담은 어느 지역이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승은 공동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포는 범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세계관

신화는 주인공이 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종교적인 숭고함을 지향한다. 전설은 주인공이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좌절하기에 운명론적 비극성에 도달한다. 민담은 주인공이 인간적인 행동을 하나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이르러 초월자(超自然者)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로써 결말이 희극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으로 드러난다.

II. 판교 지역의 기록문학

판교 개발 지역의 구비문학만큼이나 보존의 가치가 높은 것이 기록문학이다. 이 지역과 관련한 문학과 기록문학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강정일당'과 '이경식' 선생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한 지역의 지명어에는 그 곳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자어 이전의 순수 고유어의 명칭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더더욱 잘 나타나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다양한 순수 고유어 지명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적·공간적 고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보고된 서지적 자료, 예를 들면『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이나『분당의 팔이름이야기』(1999)에 나타난 자료들을 참조하였고, 이를 참고자료로 삼아 실제 조사한 내용들을 추가하기로 한다.

1. 인물과 문학

1) 강경일당(1772~1832)

정일당은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사서(史書)와 문학서 및 철학서 등을 두루 섭렵하였다. 또한 정일당은 시문에 뛰어나 당시 문명(文名)이 높았고, 글씨에 능하여 홍의영·권복인·황운조 등의 필법을 이어 받았으며, 특히 해서를 잘 썼다. 학문에 정진하였던 강경일당은 평소 돋이 허약한 관계로 갖은 병치례를 하였다. 말년에는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끝에 1832년 9월 14일에 타계하였다. 남편 윤광연은 정일당의 시문을 잘 보존하였다가, 그녀의 사후 4년이 지난 뒤에 『정일당유고』를 간행하였다. 『정일당유고』는 시 38수, 명(銘) 5편, 서(序) 10편, 기(記) 3편, 설(說) 1편, 제발(題跋) 2편, 묘지명·행장·제문 각 3편, 잡저 1편, 부록으로 행장·묘지명·제문·뇌문·반장·이시반(二詩跋)·권칠반(認軸跋)·추만소발(追挽小跋)·전(傳)·한(한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천화숙(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이경석(1595~1671)

백현(伯軒) 이경석(李景南)은 본관이 천주이고 종실의 덕천군 6세손이다. 병자호란 당시는 부제학으로 있었는데 청태종이 서울 삼전도에 송더비를 세우게 하였다. 이때 그 비문을 임금이 장유, 조희일 두 사람에게 명하였으나 청나라에서 그 문장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왕이 백현에게 “순원(順願)은 신침(臣姦)됨을 차차(若此)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강(自強)을 피함이니 오늘은 오로지 그들의 비위에 맞도록 비문을 지으라” 하고 명하였다. 그가 명을

발들이 눈물을 머금고 비문을 치어 올린 것이 지금의 삼전도 비문에 새겨진 글이다. 비문을 짓고 나서 그는 “글 배운 것이 후회된다”고 탄식하였다며 천해진다. 그는 김상현 선생 등과 함께 철나라에 끌려가 심양에 구금되었다가 늦게 풀려 나왔으며, 대사헌 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고 문장이 뛰어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문집 50여권이 전해지고 있다.

현종이 백현(白軒) 이경석(李景石) 선생에게 내린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첩은 보물 제930호로 지정되었고, 선생의 유품 7점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속종이 「백현집」을 읽고 나서 그 갑회를 적은『어제명시(御製詔詩) 해석문(解釋文)』이 문학비로 세워져 있다.

백현집을 읽고 갑회를 꾸미하노라.
여러 배 구텐건한 어찌 그리 늦었는고.
온 종일 퍼 보아도 퍼로함을 모르겠다.
충성으로 균왕을 위하는 삼정은 문장마다
무엇하고 자설으로 국사에 진력함은 신밀도 감동하리라.
선조(현종)에서 채장을 하사하시니
제주가 유행하였으며 설조(효종)에서는
황감을 태마성에 내리시는 은총을 높으셨도다.
터당이 대사(台司)의 어진 재상되기에 합당하니
송조의 명선 문정(文靖)에 가히 전주리라.

현재 석운동 51번지 뒤편 고개 길가에 이경석 선생의 묘와 신도비 그리고 근래에 세운 문학비가 있다. 신도비는 옛비와 새로 세운 비가 나란히 서 있으며 묘소와 신도비는 경기도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운중에서 석운동으로 가는 고개를 넘어서 석운동 민가 못 미처 도로변(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운중동과 석운동 사이의 고개에는 ‘고개말’ 또는 ‘고개끝’과 ‘닭고개(되부니 고개)’ 두 개의 고개가 있다.

2. 지명과 문학

1) 낙생(樂生)

먼저 '낙생(樂生)'의 의미는 '생을 즐긴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열자(列子)의 「가제낙생(可憇樂生)」 가제일신(可憇逸身)에서 비롯된 말로 "몸을 벗어 날 수 있으면(육신의 욕망을 극복하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낙생(樂生)'은 불교에서 쓰이는「극락왕생(極樂往生)」의 준말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라의 향가인 '핀왕생가(願往生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한편, '낙생(樂生)'이란 별칭에 대하여는 병자호란 때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를 구하기 위하여 북상하였다가 판교 남쪽 힘환(마대)에서 청나라 군사에게 크게 패하자, 임금이 성을 나와 절태종에게 항복하였으므로 '성이 떨어졌다'는 뜻의 '낙성(落城)'이 '낙생'으로 변했다고 한다. 또 백현동 앞에 '낙성시장(落城市場)'이 있어서 '낙성'으로 불렸는데 '낙생'으로 변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고려 충정왕 때 이리(李理: 1298-1351)이 쓴 '청풍투기문'에는,

지침 기축년 여름 수필에 어버이를 뵈오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낙생(樂生)」에 이르니
광주목사 백화부가 군을 보내 초청하고 ... (후략)

이라 하여, 이미 1349년 4월 그가 고향가는 길에 '낙생의' 운운하였으니 고려 때부터 있었던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 국사봉(國思峰)

운중동의 서쪽 끝에 있는 높이 540.2m의 산 봉우리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분당구 운중동, 의왕시의 경계가 된다. 국사봉은 청계산의 한 봉우리로 고려가 망할 때 안령사를 지낸 송산(松山) 조전(1351~1425)이 청계산에 숨어 살았다고 한다. 그는 그의 형 조준이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어 함께 새 조정에 나가 벼슬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를 물리치고 남마다 이 봉우리에 올라가 망국 고려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였으므로 이 산을 국사봉(國思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태조가 친히 찾아와 그를 달랬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한 평생 절의를 지킨 고려 충신의 한 사람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2001) 참조

청계산의 최고봉을 '망경대(望京臺)'라 부르는데, 이곳 역시 조전이 이 봉우리에 올라 고려의 서를 개성을 바라보며 망국의 한을 달랬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사대사전에는 그러나 조전의 본 이름이 윤(胤)이며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선 개국 후 상장군이 되고 개국공신 2등에 봉해졌으며 태종 때 평성부원군으로 봉해지는 등 그 기록에 차이가 있다. 그는 형에 의하여 받게 된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를 종전(從大)이라 하였는데 '나라를 힘들고도 죽지 못함이 개와 같고, 또 옛 주안을 잊지 못함도 개와 같다'는 뜻이라고 전한다.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묘비에는 고려 때의 관직명만 쓰라" 하였으나 그 후손들이 유언을 어기고 '호조전서'라는 조선 태조가 내린 벼슬아름을 비석에 새겼다. 그런데 그 날 밤 천둥번개가 비석을 내리쳐서 깨뜨려 버렸다고 하며, 지금도 깨어진 돌비석의 하단쪽에 '조공지묘'라는 네 글자만 남아 있다. 그는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는데,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산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다음의 시는 송산 조전이 쓴 한시 중 '온산을 지내며'라는 시이다.

수양산이 그 도한 주나라 땅이전만

고비파 고사리도 맑은 배란 누가 되리
여기애 은산^{銀山}이 있음을 알았다면
충당 기자^{具子} 앞걸려 동방을 찾았겠네.

한면, '국사봉(國師峰, ·民·土·祀·寺·聖·聖·等)'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1백여 개소에 달하며 그 표기도 매우 다양하다. '국사'는 무속사회의 '굿'을 한자로 표기하여 생겨난 땅이름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개 산신당이 있었던 곳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 나라에서 삼산오악(三山五岳)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든지 각 고을에서 진산을 정하여 진호신(眞護神)을 모시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 가령 서울 꼭대산(남산)에도 국사당을 두어 산신을 모신 경우와 같다. 또 마을에서도 산봉우리를 절역(淨域)으로 정하여 그곳에서 계를 옮리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예가 많았고, 혹은 산 꼭대기에 제천단(祭天壇)을 만들어 만드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III. 판교지역의 지명

1. 판교동의 지명어

1) 연혁

판교동 지역은 법정동인 백현동, 삼평동, 판교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동인 판교동 관할로 된 곳이다. 판교동은 그전에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였는데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너분파워(방암)를 병합하여 판교리라 하였다. 삼평동은 조선시대에 광주군 낙생면 삼거리와 보령리 지역이었는데 1914년 이를 통합하여 '삼평리(三坪里)'로 고쳤으며, 백현리는 변동이 없었다.

1971년 9월 13일 도조례에 의거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성남시 관내의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이 되었다. 1975년 3월 17일 시조례의 의거 낙생출장소 관할이 되었고, 1989년 5월 1일 중원구에 편계되었다. 1991년 7월 1일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설치되고, 이어서 1991년 9월 17일 동 출장소가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분당구에 딸린 삼평동, 백현동, 판교동이 되었으나 1973년부터 관할 행정동은 판교동이다.

2) 어원

'판교(板橋)'라는 이름은 그전 낙생면 소재지인 이곳 '너더리' 마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너더리'는 '널다리'가 변한 말로 보고 있으며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옮기면서 '넓 판(版)'자와 '다리 교(橋)'자를 취하여 지금의 '판교'라는 이름이 생겼다. 곧 옛날 이 마을의 운중천 위에 판자로 다리를 놓고 건너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넓'은 '넓다'는 뜻이거나 '늘어졌다(산줄기, 또는 하천이 길게 늘어진 모양)'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넓제', '넓문이', '넓다리' 등의 이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넓'이 지형상 '넓'거나 '늘어'진 곳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더리'의 경우 '넓은 들'이 변화여 '너드리'가 되고, '너드리'가 다시 '너더리'로 된 경우도 많다. 곧 넓거나 늘어졌다는 뜻의 '넓'이 넓(너드, 너리), 놀(노루, 노리), 놀(느리, 느르) 등이 넓=판(版), 들(답=다리)=교(橋)로 변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지명어의 실례

- **판꽃:** 백현동의 새말 서쪽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이 지방에서 천설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자 이홍객이 망재에 살면서 소를 잡아 판(貫)으로 팔았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매루니고개(매루니고개):** 삼평동의 성내미와 하산운동 사이의 고개로, 그전에 성내미 마을 사람들이 하산운동이나 운중동을 다닐 때 이용했다 한다. 하산운동에서는 '성내미고개(수내미고개)'라고도 하는데, '왜루니'가 '산운'이므로 '매루니고개'라 한다.
- **장재(長子)꽃:** 삼평동의 성내미 웃말 서쪽에 있었던 골짜기로, 그전에 큰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며 근래까지 이곳에서 주춧돌과 기와조

각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성내미’란 이름도 이 부자집에서 벗설을 높게 쌓아 ‘설내미’라 한 것이 ‘성내미’가 되었다고 한다.

- **잣고개(백현 : 柏隣·잣고개잣너머잣너머)**: 백현동의 마을이름이자, 젓너머에서 너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름이다. 전해지기는 고개 마루 턱에 큰 잣나무가 있어서 이 고개를 ‘잣고개’, 마을이름도 ‘잣너머’라 불렀다고 한다. ‘잣고개’를 한자화하면서 ‘백현(柏隣)’이 되어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로 되었다는 것이다.
- **화랑모개(화랑모랭이·화람모)·화랑보·화랑보들·화랑보개울**: 판교동과 삼평동 사이의 운중천·글토천이 합류하는 그 남쪽 산모퉁이를 화랑 모, 화랑모개(계), 화랑모랭이라 하고, 개울을 화랑보개울, 보를 화랑 보, 그들을 화랑보들이라 한다. 『성남시사』에는 옛날 판교의 주막집 주모가 죽어서 이곳에 묻었으므로 화랑의 묘 부근이라는 뜻의 ‘화랑모 이끼’가 ‘화랑모개’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화랑이(花郎)’는 옷을 잘 차려 입고 노래와 춤을 전문으로 하는 놀이꾼이나 박수, 사내무당을 화랑이라 불렀으므로 그와 관련된 이름으로 보인다. 그 묘로 인하여 화랑보, 화랑보들, 화랑보개울(운중천) 등의 이름이 생겼다. 그런데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이름이나 유적은 주로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이름이기보다는 조선시대의 ‘화랑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운중동의 지명어

1) 연혁

운중동은 조선시대에 광주군 낙생면에 속한 곳으로 석운리(石雲里: 도루

니), 산운리(山雲里: 하산운리, 중산운리, 상산운리), 대장리(大莊里: 혹은 태장리)로 나누어졌던 곳이다.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 폐치·분합에 따라 중산운리와 산운리는 합해서 운중리가 되었고, 두밀과 하산운리가 합해져 하산운리가 되었으며, 태릉, 장부터, 무두만이가 합해져 대장리, 바라미(망산), 도루니가 합해져 석운리가 되었다.

2) 어원

'운중(雲中)'이라는 이름은 1914년 일제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며 그전에는 중산운리(中山雲里), 산운리(山雲里), 하산운리(下山雲里)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이때 산운리와 중산운리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운중리(雲中里)'가 되었다. 이 지역은 석운동(石雲洞)이 '돌우니(도루니)'이고 산운동(山雲洞)이 '뫼부니' 하산운동(下山雲洞)이 '아랫뫼부니'로 불리워지던 것을 한자 이름을 붙이면서 돌 죽(石), 빼 산(山)을 붙이고 뒷소리 '우니'는 '운(雲)'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석운동=도루니'는 '산으로 불러싸인 마을' '산운동=뫼부니' 역시 산골마을을 뜻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또 '운중동'의 유래에 대하여 '산에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운중동이라 부른다 한다.

3) 지명어의 실례

- 농바위: 대장동의 장부터와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경계의 하천 가운데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옷을 넣어두는 창자인 '농'처럼 생겼으므로 농바위라 부른다.
- 된봉(된봉산): 석운동에서 운중동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가는 뒷 산인데, 매우 가파르고 고개가 험하므로 '된봉' 또는 '된봉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되다'는 일이 매우 힘들거나 반죽이 물기가 적어서 빽빽한 경우에 '되다'고 하는데 이 산이 높고 험하기 때문이다.

- 두밀(杜密·두풀) **두밀산**: 하산운동의 운중천 남쪽에 있는 마을이 두밀(두풀·드풀)이며 그 뒷산을 두밀산이라 한다. 이곳은 조선 말기에 천주교 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살았기에 ‘두밀’이라 부른다고 한다.
- 바라산리(**망산**: 馬上山, 밭화산리, 바라미): 석운동의 서쪽 산골에 있는 마을로 분당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양달’과 ‘옹달’로 되어 있다. ‘바라산리’는 산골이 깊고 높아서 나그네가 그 산을 바라보며 가야 하므로 ‘바라산’ 또는 ‘망산’ ‘바라미’라 부른다고도 하고, 인접한 인근의 수지읍 고기리 바라산(높이 428m)이 바라(곡식을 담는 그릇)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 서덟산서덟골: 운중동의 중산운리 북쪽에 있는 높이 330m의 산으로, 지도에는 ‘서둘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산운리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므로 ‘발데기’ 또는 ‘물턱’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산에 돌이 많으므로 ‘서덟(너덟)산’이라 부른다 한다.
- 심뱅이(꼴): 대장동의 철골 동북쪽에 있는 굽짜기로, 끔바위가 많이 나서 ‘실뱅이꼴’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그 전에 여승들만이 거처하며 수도하는 절, 즉 ‘승방(勝房)’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라 한다.
- 장배미풀: 하산운동의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털로, 땅이 틈의 내력에 대하여 ‘논배미가 길어서’ 장배미가 부른다는 설과 ‘옛날 장씨네 전답 이었다는 설’ 등이 있다.
- 장자(**長者**)터골: 운중동의 큰 터골 부근에 있었던 옛터로, 전에 큰 부자가 살았다는 하여 ‘장자터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장자’는 나이 많은 어른을 뜻하기도 하지만 큰 부자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제5장

판교 지역의 실태 1

(삼평 · 백현 · 궁내동)

I. 조사 마을의 개요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조사로 보면 관교의 인구는 총 4,761명으로 그 중 남자는 2,511명 여자는 2,250명이다. 세대는 총 1,720세대이고, 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 2동, 연립 1동, 단독 561호이다. 관할면적은 8.29km²로 성남시의 6.2%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은 8개 풍, 31개 반으로 담당 공무원은 남 6명, 여 2명의 총 8명으로 되어 있다. 관할하천은 2개 소인데 운중천 4.3km, 금토천 1.2km, 총면장 5.5km이다. 공원은 2개 소로 547,208m²이다.

II. 조사 마을의 실태

1. 삼평동

삼평동(三坪洞)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동이다. 조선시대 한성부 광주군 낙성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삼거리(三里里)와 보평리(庇坪里)를 병합하여 삼평리(三坪里)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 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삼평동으로 개칭되어 관교동 관할이 되었다.

1975년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성남시 중원구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설치되고 이어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분당구 관할이 되었다. 법정동인 이 동은 행정동인 관교동에서 관할한다. 삼평동은 삼거리의 '삼'자와 보평리의 '평'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 지명에 보평, 성내미, 고운골, 진챙이들, 고려장터, 궁골, 농바위, 불다풀, 독점마을, 도성고개, 동안보, 뒷골, 마당바위, 베루니고개, 미동골, 삼거리, 삼태불, 셋골, 섬벌들, 수봉, 쉽마골, 안골, 어리골, 원너머고개, 흉우풀자리, 원골, 음골, 이대가리밭, 장자골, 조산들, 참새미, 화랑모개 등이 있다.

보평은 마을의 운중천에 화랑보, 제찬보 등이 있어 보(洑)와 들관의 뜻을 따서 보평 또는 둑들이라 하였고, 성내미는 마을에 살았던 큰 부자가 빵이나

은 벗섬이 동쪽의 삼거리 마을에서도 다 보일 정도였으므로 성내미라고 부르다가 성내미로 편하였다고 한다. 궁궐은 예전에 나라에서 평산 신씨에게 내린 사례지라고 하며, 도성고개는 신라 말기의 고승인 도선(道訖)이 지나간 고개라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또한 득점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용기점이 있어 불여진 이름이고, 미동골은 마을의 우물인 미동골 우물의 물맛이 좋아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불여진 이름이다. 용우물 자리는 사충동과의 경계에 있는 들인데, 이곳에 있는 우물의 샘이 마르지 않아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과 같다 하여 용의 우물이라 하였으므로 불여진 이름이다.

판교인터넷인증지가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393번 지방도가 교차한다. 북쪽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임체교차로가 판교인터넷인증지를 통하여 접속되고 있다. 주요기관으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일이구용급구조단 등이 있다.

성남시청에서 작성한 성남시 관내 각 구청 관할별 조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삼평동 지역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평동(三坪洞) 입석(立石)

소재지 : 분당구 삼평동 575 전

시대 : 청동기 시대

종류 : 선사유적

삼평동 성내미 마을 안쪽의 도로변 경작지에 남향하여 서있다. 이 유적의 주위로는 해발 100m 내외의 아트만한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입석이 있는 경작지는 배후의 산지로부터 완만하게 빙어내려 온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인근의 삼평동 야산 기슭에서 무문토기 팬 등이 발견된 예가 있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주민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20여 년 전 현재 입식이 있는 밥 가장자리의 실개천에 걸쳐놓고 다리로 했다가 밥 주인이 거듭 화를 입어 무당을 불러 첨을 쳤더니 이 풀을 원래 상태로 두라 하여 다시 세워 두었다고 한다.

입식의 형태는 전후면이 편평한 판석형이며 상단부가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제질은 육안상 화강편마암류로 보여지며 규모는 높이 113cm, 폭 70cm, 두께 18cm이다. 이러한 판석형 입식은 충북 보은 지산리와 진천 월산리 등지에서 보고된 예가 있다.

2) 삼평동 유물산포지1(三坪洞 遺物散布址1)

소재지 : 분당구 삼평동 산60-5 일 일원

시 대 : 통일신라 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구릉 남사면상의 경작지 일대에 형성된 유적이다. 판교-구리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판교분기점이 북쪽의 구릉 너머에 연접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무문토기 편과 다량의 빗살무늬토기 편이 채집된 적이 있는 지역이다. 이후 이 유물들과 관련된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발굴을 실시하였는데, 채집된 유물들과 연결지을 수 있는 선사시대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분과 조선시대 회곽묘가 발굴 조사 되었다. 석실분에서는 단락고배편이 출토되었다.

이후의 조사에서는 약간의 인화문토기 편과 동시기로 보이는 기와 편 등이 채집되었다. 유물의 산포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으나 배후의 야트막한 구릉산 일지 등을 고려할 때 고분유적의 보존 가능성이 높다.

<채집유물>

① 토기 구연부편

회칠색 경질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로 가면서 바깥으로 외반하고 있다. 구연 끝 부분은 둥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뒷 부분에 홈이 파여 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 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추정 구경 11cm, 잔존고 1.6cm이다.

② 토기 구연부편

단지나 항아리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는데 동체부에서 약간 외반하면서 둑 바로 구연이 형성되었다. 내외면에 특별한 장식은 없고 회전물 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회미하게 갈색 속심이 형성되었다. 잔존고 3.1cm, 두께 0.63cm이다.

③ 인화문토기편

투명의 드림 부분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조를 띠고 있으며 절면에 실선과 점열분이 혼합된 모티프의 문양대가 인화시문 되어 있다. 문양의 길이는 대략 1.2cm 정도이며 한 줄의 실선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한쪽이나 양쪽에 6~8개의 점으로 이은 점열문이 같이 시문되었다. 토기의 끝 부분은 'Y'자형으로 갈라져 있으나 바깥으로 나간 쪽은 두껍게 처리되어 있는 반면 안쪽부분은 얇고 짧게 간략화된 경향이 있다. 기벽두께 5mm, 잔존고 1.9cm이다.

④ 인화문토기편

동체의 일부분으로 생각되는 인화문토기편. 연한 회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거친 회전물 손질 흔적이 있고 절면에는 세로 밭향으로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기벽두께 0.7cm, 잔존고 2.6cm이다.

⑤ 질그릇편

회청색 경질의 질그릇 등체부면, 원래 형태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겉면에는 짐선문이 타날되고 있고 내면에도 김선문 계통의 박자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두께 0.6cm, 잔존고 5.7cm이다.

⑥ 연질토기 저부편

황회색 연질토기 저부편, 원래의 형태를 알기는 힘들지만 평제로 추정되며 바다에서 완만하게 기베이 올라가고 있다. 전체적인 두께는 5~6mm 남짓으로 얇은 편이며 연질이어서 그런지 표면바리가 심한 편이다. 특별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겉면에 물손질 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4.5cm이다.

⑦ 토기편

겉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 황회색 토기 등체부편. 두께로 보아 비교적 규모가 큰 개체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강도는 높으나 겉면에서 미세한 가루가 묻어 나을 정도로 소성되었다. 두께 1cm, 잔존고 5.3cm이다.

⑧ 토기편

겉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편. 내외면 모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규모는 작은 편이다. 타날문은 한번 길이 3mm 정도의 정방형에 가까운 격자 형태를 하고 있다. 두께 0.5cm, 잔존고 4.3cm이다.

⑨ 토기편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편. 배도에 미세한 석립이 많이 함유되고 있고 내면에도 희미하게 격자문이 타날된 흔적이 확인된다. 두께 0.6cm 잔존고 4.3cm이다.

① 질그릇 제부면

정화한 기형을 과악하기는 힘들지만 평자에 약간 외반하면서 동체부가
이어지는 질그릇 편. 전체적인 색조는 회청색을 하고 있고 단면에 회미하게
연한 회색 속심이 형성되어 있다. 바닥두께는 4.8mm 정도로 동체에 비해
얇은 편이며 가장 아래부분은 약간 밖으로 돌출시켜 기형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하였다. 겉면에는 거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폭 4.8mm 정도로
동체에 비해 얇은 편이며 가장 아래부분은 약간 밖으로 돌출시켜 기형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하였다. 겉면에는 거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폭 2mm 정도의 익자선도 한 줄 형성이 되어있다. 내면에는 회천물 손잡이
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 두께 0.75cm, 잔존고 5.4cm이다.

② 기와편

회청색 기와편. 겉면에는 침전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마포흔이 뚜
렷하게 남아 있다. 두께는 1~1.2cm 정도로 얕은 편이다. 잔존고 6.2cm이다.

3) 삼평동 유물산포지 2(三坪洞 遺物散布址 2)

소재지 : 분당구 삼평동 580-2 전

시대 : 삼국시대, 조선시대

종류 : 유물산포지

삼평동 유물 산포지에서 마을 안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오면 북쪽의
야산 쪽으로 뻗어 들어간 작은 길이 나온다. 이 길의 막다른 곳 고트머리에
있는 소규모 경작지 일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채집된 유물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의 자기류와 토기편 등이지만 약간의 삼국시대 토기편
도 있다.

<채집유물>

① 질그릇 구연부편

진한 회청색 질그릇 구연부편.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하기 힘들다. 구연은 거의 수평적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단순한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내외면에 회전물 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두께 0.6cm, 잔존고 1.5cm이다.

② 질그릇 구연부편

개체의 크기가 작아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심하게 외반하는 부분의 일부로 태토에 석립이 포함되어 있고 내면에 회미한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두께 0.6cm, 잔존고 1.5cm이다.

③ 질그릇 동체부편

회청색 질그릇 동체부편이다. 겉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침선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석립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기벽두께 0.7cm, 잔존고 4.5cm이다.

④ 질그릇 동체부편

회청색 질그릇 동체부편. 겉면에 침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특별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토에는 가는 석립들이 포함되어 있고 단면에 짙은 자주색 속심이 형성되어 있다. 기벽두께 0.7cm, 잔존고 3.7cm이다.

⑤ 백자편

연한 회색백자편. 규모와 기벽의 상태로 보아 잔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바닥에 굽은 모래밭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추정 저경 2.9cm, 잔존고 3.3cm, 기벽두께 0.4cm이다.

4) 삼평동(三坪洞) 옹기가마터

소재지 : 분당구 삼평동 산2-1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흐지

삼평동 옹기가마터는 판교인터체인저화 인접한 삼평동 독점마을의 오성 카센터 뒷편 구릉일대이다. 현재 옛 터는 흔적이 없으나, 노인들은 이곳을 '동이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카센터 앞의 삼덕례카차의 넓은 부지는 수십 명의 일꾼들이 작업하던 작업 터였다고 한다.

2. 백현동

백현동(白鶯洞)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동이다. 조선시대 한성부 광주군 낙생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백현리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백현동으로 개칭되어 판교동 관할이 되었다.

1975년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성남시 중원구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철치되고 이어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분당구 관할이 되었다. 범정동인 이 동은 행정동인 판교동에서 관할한다. 백현동은 마을의 고개에 큰 잣나무가 있어 잣고개 또는 잣너미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옛 지명에 웃말, 아래말, 중간말, 양지말, 수풍안, 관풀, 국농관, 낯건너풀, 능안풀, 돌무더기풀, 되령계모통이, 팔내풀, 마당풀, 면답풀, 새늘풀, 서낭고개, 수풍안, 한디너마풀, 장태벌, 치아풀, 한의풀 등이 있다.

능안풀은 덕양군 묘소와 사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마당풀은 마을에

큰 당집이 있었으므로 불여진 이름이다. 수풍안은 마을에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 곳으로 수풍안골이라고도 한다. 또 한의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이 없는 곳이어서 일찌 모내기를 하였으므로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주요기관으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판교사업장 등이 있다.

성남시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백현동 지역 문화유적 내지 특별한 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현동 유물산포지(柏峴洞 遺物散布址)

소재지 : 분당구 백현동 수터너머골 일원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유물산포지

백현동 뒷편 아산 새동산(해발 103m)의 남동편 수터너머골 일원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유물의 산포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인데 특히 골짜기의 중간쯤에 근현대의 건물 혼적이 남아 있다. 주변 지역은 관목이 빽빽하게 들러싸고 있고 양옆에 나란히 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에는 분묘군이 형성되어 있다.

채집된 유물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자기류와 토기편 등이다. 인근의 분묘 군에서 훔쳐들어 온 것들로 보기에는 유물이 많고 또 생활유물이 다양 섞여 있는 점으로 보아 건물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포지가 계곡을 따라 경사진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단연하기는 어려운 설정이다.

<해집유물>

① 백자 접시편

파괴가 심하여 전반적인 유색은 짙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태토가 비쳐 보일 정도로 얇고 투명하게 시유되었다. 내저면에는 태토비침분흔적이 2개소 확인되었고 굽 주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굽의 형태는 죽점굽이고 굽주위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저면에는 굽 지름의 2배정도 규모로 얕게 내저원각되어 있다. 추정 구경 15cm, 추정 저경 6cm, 높이 3.8cm이다.

② 분청사기 저부편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접이나 사발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약의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며 현재 날아 있는 부분에는 저부까지 한면에 걸쳐 시유되었다. 특별히 포개서 구운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내면에 백상감 선문재가 3줄 확인된다. 추정 저경 5.6cm, 기벽두께 0.56cm이다.

③ 백자 저부편

연한 크림색 색조를 띠는 백자 저부편.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가는 빙렬이 형성되어 있다. 정확한 형태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대접이나 사발의 일부로 추정된다. 굽은 역삼각굽을 하고 있으며 굽지름보다 약간 큰 규모로 희미하게 내저원각되어 있다. 추정 저경 1.6cm, 찬존고 3.1cm, 기벽두께 0.6cm이다.

④ 분청사기 구연부편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내외면에 모두 백상감되어 있는데 걸면에는 4줄의 수평선과 그 아래로 비스듬한 선문이 상감되었다. 내면에는 구연에 접하여 초문 문양대 아래 우절문이 있다. 기벽두께 3.5cm이다.

⑤ 칠그릇 구연부편

외반된 구연부만 남아 있다. 용기의 전자립 형성된 구연부인데 끝 부분이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위로 약간 돌출되었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청색이고 전면에 회전물 손질 흔적이 남아있으며 태토에는 가는 석립이 함유되어 있다. 두께 0.87cm이다.

⑥ 칠그릇 구연부편

겉면에 자연추가 천자되어 절은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회청색을 띠고 있다. 단면에는 짙은 자주색 속실이 형성되어 있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석립이 함유되어 있다. 구연은 끝 부분에서 한바퀴 둑글게 맑아서 성형하였으며 외면에 한 줄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고 내면에는 회전물 손질 자국이 있다. 기벽두께 0.6cm, 잔존고 5.1cm이다.

⑦ 대상파수편

적갈색 대상파수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어 있다. 겉면에서 미세한 가루가 물에 나오도록 연결 소성되었다. 속심도 형성되지 않았고 태토에 석립도 확인되지 않는다. 파수부 높이 2.9cm, 두께 1cm이다.

⑧ 기와편

회청색 기와편. 등면에는 특별한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나 배면에 마포흔이 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부분으로 갈수록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끝 부분에는 깊이 5mm 정도 와도흔이 있는데 깊이가 전체 두께의 1/3정도이다. 두께 1.6~2cm, 잔존고 6.9cm이다.

⑨ 기와편

연한 회색기와편. 정도는 높은 편이나 겉면에서 미세한 가루가 물어나고 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고 내외면 모두 특별한 문양은 확인

되지 않는다. 측면에 두께의 절반정도 깊이로 와도흔이 형성되었다. 두께 4~2.1cm, 잔존고 9.2cm이다.

2) 경윤희 묘(丁胤璣 墓) 및 묘간(墓碣)

소재지 : 분당구 백현동 262-1번지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경윤희(1531~1589)는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경석(景石). 호는 고암(顧庵)·순암(順庵). 아버지는 좌찬성 응우(應牛)이며, 어머니는 군수 송충세(宋忠世)의 딸. 뇌계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 7) 진사시를 거쳐, 1556년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전적이 되고, 이듬해 정언에 이어 별조좌랑·수찬·지평·부교리·이조정랑을 역임하고, 1560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다시 부교리·사인·필선·장령·집의를 거쳐, 1566년 문과중시에 다시 장원하여 문명을 벌쳤다. 이듬해 판결사를 거쳐 수년간 수령으로 근무하였다. 1578년(선조 11) 남양부사로 제직사 경기감사로부터 관아의 공역(供役)이 번잡하고 무겁다는 이유로 파직이 청하자여겼으나 황의 배리로 면책에서 그쳤다. 그 뒤 창단부사를 거쳐 예조·호조의 참의를 지내고, 1588년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돌아갔다. 문장이 뛰어났고, 특히 사록문(四六文)에 능하여 한때 홍문관과 예문관의 서책을 많이 찬송하였다. 저서로는 「고암집(顧庵集)」이 있다.

묘역은 백현동 아랫마을 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향(東向)이며 정부안(貞夫人) 동래 정씨(東萊鄭氏)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었으며, 크기는 남북 직경 650cm, 높이 130cm이다. 묘역에는 봉분 중앙에 신구(新菊) 묘표 2기, 상석, 4각 향로석과 좌우에 8각 망주석, 안두(掩頭)의 문인석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고석 없이 계체석 중간에 놓여 있으며, 크기는 높이 25cm, 너비 162cm, 두께 94cm이다. 향로석은 높이 31cm, 너비

25cm이다. 망주석은 좌가 높이 170cm, 우가 높이 160cm이다. 문인석은 이복 구비가 뚜렷하며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다. 턱에는 희미하나마 잣끈의 표현이 있다. 홀(笏)을 마주 잡은 두 손은 굽은 손가락의 표현이 있으며, 짧은 옷소매와 관복을 걸치고 있다. 크기는 좌우가 높이 190cm, 얼굴부분 56cm이다.

봉분 중앙 2기의 묘표 중 원래의 묘표는 비파와 비신 월두형(月頭形)으로 있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비(二面碑)로, 전면 상단에는 종3열로 '통정대부수강원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정윤회지묘정부인동래장씨부좌(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丁胤輔之墓貞夫人東萊鄭氏附左)'의 비문이 있다. 후면의 비문은 마모로 알아볼 수 없다. 비신은 흑색으로 번색되어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비파 높이 107cm, 너비 100cm, 두께 56cm, 비신 높이 127cm, 너비 상 39.5cm · 하 31.5cm, 두께 21cm이다.

신묘표는 비파와 오석의 비신 및 운문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4열로 '통정대부수강원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고암정공윤회지묘 배정부인동래장씨부(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丁公胤輔之墓配貞夫人東萊鄭氏附)'의 비문이 있다. 비문은 밤제후손 규복(奎福)이 찬하고, 12대손 규온(圭恩)이 서한 것으로 나주정씨고암공파종회(羅州丁氏顯庵公派宗會)에서 1976년 건립한 것이다.

묘갈(墓碣)은 묘역의 하단에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8자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복동향하여 있다. 비파와 옥개석은 순백색을 띠며, 비파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으며, 상단에는 전후 2면에 걸쳐 전서(篆書)로 '고암정선생묘갈비문(顯庵丁先生墓碣碑文)'이다. 비체는 '통정대부수강원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고암정선생묘비문(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顯庵丁先生墓碑文)'이다. 비문은 통훈대부 전강원도감서관(通訓大夫前江原道參書官) 원설(元燮)이 찬하고, 청균관학생 준설(峻燮)이 서하였으며, 후손 규창(奎昌)이 감동(監董)하였다.

크기는 비파 높이 38cm, 너비 93cm, 두께 61cm, 비신 높이 149cm, 너비

55cm, 두께 24cm, 옥개식 높이 46cm, 너비 92.5cm, 두께 63cm이며 총고(總高)는 233cm이다.

3) 매국대신 이완용(李完用) 생가 터

소재지 : 분당구 백현동 221 또는 233

시 대 : 근대

종 류 : 기타 목조물

이완용(1858~1926)은 조선말기 고종, 순종대의 문신, 친일파,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경태(敬德), 호는 일당(一堂),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 백현동) 출신, 석준(甫俊)의 아들이며, 관중추부사 호준(皓俊)의 양자이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지 주서가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의 학원(學員)으로 들어가 영어와 신학문을 배웠다. 1887년 주미특파전권공사 박정양(朴定暉)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이듬해 5월 병으로 귀국하여 승경원동부승지·이조참의·외부참의·전보국회관(電報局會閱) 등을 지냈다. 이때 다시 주차미국참관관(駐箚美國參贊官)으로 미국으로 갔으며, 12월 대리공사로 승진하고 1890년 돌아와 구미파로 일려졌다. 그 뒤 내부총의·성균관대사성·형조참판·동지의 금부사·동지성균관사·동지총추관사·천환국총관·육영공원관리·교환서총관 등을 거쳐 1894년 김홍집(金虹集) 내각의 의무협판이 되었다. 이듬해 5월에는 박정양 내각에서 학부대신과 중추원의관으로 기용되었으며, 김홍집 내각에서도 학부대신을 지냈다. 명성황후 사해사건 후 학부대신에서 물리나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Allen, H. N.)의 주선으로 미국공사관에 피신하였다. 1896년 이병진(李炳晉) 등과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파견하도록 한 공로로 박정양 내각의 외부대신 겸 학부대신에 취임하고 농상공부대신 임시 서리까지 겸하였다. 독립협회에도 한때 관여하였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친러파로 몰려 평안남도관찰사·

전라북도관찰사 등 외관으로 전전하다가 1901년 한적인 궁내부특진관이 되어 내직으로 돌아왔다. 1905년 학부대신이 되어 일본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伊藤博文)가 조약체결을 계의하자, 일본군의 무력시위 아래 어전회의를 열어 고종을 협박, 조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사5적이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공로로 의정대신 임시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까지 겸하였다. 1907년 의정부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 서리까지 겸하였다. 이 때 6월 이른바 내각관제가 공포되자, 내각총리대신으로 대국내각의 수반이 되었으며, 궁내부대신 서리를 겸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초대통감 이토의 사주를 받아 고종의 회위를 강요하였고, 숭종이 즉위한 뒤 정미7조약의 체결에 관여하여 내정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정미7적이 되었다. 그해 8월 10일 군대해산을 돋는 등 일련의 친일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육일동화장(旭日東花章)을 받았다. 1909년 12월 이계명(李在明)의 칼을 맞았는데 목숨은 건졌다. 1910년 8월 22일 어전회의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하게 하는 동시에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회(韓日兩國聯合全權委員會)가 되어 통감 태라우치 마사다케(사내정의; 宋內正毅)와 관사로 찾아가 합병조약을 체결하고, 29일 나라를 일제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 조약의 체결 뒤 공식적으로는 백작의 작위와 전무처리 수당 60여 원 및 퇴직금 1,458원 33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서도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비롯하여 중추원 부의장·조선귀족원 회원·농사창려회 회장·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일본제국군인후원회조선지부 평의원·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일센(日鮮)의 융화’를 내세워 한국황족과 일본황족간의 혼인을 권장하는 이른바 동화정책에도 앞장섰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부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에는 후작이 되고, 농림주식회사고문·교육조사위원·총독부산업조사위원·조선플랫폼회회장·조선사편찬위원회고문·조선농업교육연구회고문 등의 명예직을 겸하며 끝까지 일제에 기생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에 묻혔으며, 절체행적과는 달리 당대의 명필이

었다. 편서로는 『황후폐하치사문(皇后陛下致詞文)』이 있다.

현재의 생가는 백현동 아래말 및 가계인 이한석씨 댁으로 옛 집은 헌리고 새로 지은 것이다.

3. 궁내동

궁내동(宮內洞)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동이다. 조선시대 한성부 광주군 낙생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궁내리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궁내동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 낙생면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성남시 중원구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설치되고 이어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분당구 관할이 되었다. 법정동인 이 동은 행정동인 금곡동에서 관할한다.

궁내동은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의 다섯째 아들인 덕양군(德陽君) 이기(李基; 1524~1581)의 묘소와 그의 사우(祠宇)인 정회사(清信祠)가 있어 궁안, 궁내로 불여진 이름이다. 이곳 덕양군과의 묘역에는 덕양군과 영가군 부인, 풍산군 이종란, 귀성군 이철, 불례군 이행윤 등 전주이씨 일족의 묘가 들어서 있다. 옛 지명에 웃말, 아래말, 중간말, 고개나무골, 궁안마을, 능안골, 대사들, 밤나벌, 밭터리들, 배나무골, 원수들, 장터거리, 절골 등이 있다.

대사들은 옛날 절골에 살던 스님이 관리하던 논을 대사(大師)의 논이라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밭터리들은 예전에 디딜방아와 둘레방아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또 원수들은 옛날 고을 원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물을 마셨던 샘을 원수라고 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단원으로 흐르는 궁내천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풀제이트(서울풀제이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징수소)가 있다. 궁내천은 새 갈래로 나뉘어진 궁안마을 골짜기의 하천으로 궁내동 풀제이트 북쪽에서 시작하여 한줄기가

되어 고속도로 밤을 통과하여 탄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궁내동 풀제이트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지역 요금징수처로서 원래는 서울 서초구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 있다가 교통량의 폭주로 이곳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궁내동 소재 주요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교통방송 교통정보종합상황실, 서울방송 교통종합상황실, 기독교방송 도로공사포스트 등이 있다.

문화체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병자, 정묘호관때 공을 세운 충숙공 이수(李舜) 선생묘(경기도 기념물 24호)가 있으며, 중종의 다섯째 아들 덕양군 이기의 묘와 그의 부인 권씨가 묻힌 무덤이 있다. 이곳은 덕양군이 평소 풍류와 사냥을 즐겼던 곳이라 한다.

성남시청 작성 자료를 통해 이 지역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행윤 묘(李銅胤 墓) 및 묘갈(墓碣)

소재지 : 분당구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이행윤(1593~1645)은 광해군·인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승(汝承), 덕양군(德陽君) 기(岐)의 증손. 증산군(豐山君) 증란(宗麟)의 손. 구천군(龜川君) 수(時)의 아들. 사도시침정(司導寺庭正) 정인수(鄭麟壽)의 외손이다. 1612년(광해군 4) 종시(宗試)에 2회나 장원하여 봉래군(蓬萊君)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명선계(明善階)와 가선계(嘉善階)에 올랐다. 또 오성(鷺城) 이항복(李恒福)과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가 장시관(場試官)으로 만나보고는 종실에서 열세가 나왔다고 칭송하였다. 부친이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자 이를 따라가 유배지에서 조석으로 부친의 공양과 시별(侍別)에 정성을 다하였고, 1623년(인조 1) 부친의 봉작이 복구되지 상경하였다. 이듬해 이괄(李括)의 난에는 공주까지, 1627년(인조 5) 정묘난(丁卯亂)에는 강화

도까지 어가(御馬)를 호종하였던 공으로 부종관(副從官)을 겸하고 풀계를
마하였다.

묘역은 궁내동 선영의 제일 상부에 동향(東向)하여 완산현부인 죄씨(完山
縣夫人崔氏)와의 합장분이다. 봉분의 하단에는 높이 40cm, 한면 길이 195cm
인 장태석을 이용해 둘레 15.1m로 호석(護石)을 8각 형태로 두른 특이한
형태이며, 봉분의 높이는 160cm이다. 묘역에는 묘간, 8각 망주석, 문안석
등의 옛 석물과 혼유석, 삼석, 4각 항로석 및 우측에 백색화강암의 비파와
오석의 비신 및 8작지붕 옥개석을 갖추어 1992년 건립한 표표가 있다. 망주
석은 높이 140cm의 소형이지만 화려하며 높이 10cm, 너비 50cm의 망형(方形)
간주금이 특이하다. 문안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좌가 높이 158cm, 머리부분
54cm, 우가 높이 148cm, 머리부분 48cm인 3등선의 신체비율이다.

묘간(墓闕)은 봉분 중앙에 위치하며 비파와 비신 월두형(月頭形)이다. 비
파는 상부에 천후 7염, 좌우 3염의 단관복련문이 조식되어 있다. 비선의 비문
은 4면에 있으며, 천면에는 종2열로 ‘중의대부겸오위도총부부총관봉래군지
묘 완산현부인 죄씨부좌(中義大夫兼五衛都摠府副總管蓬萊君之墓 完山縣
夫人崔氏附左)’라 하여 묘주(墓主)를 밟히고 있다. 후면의 비제는 ‘유명조선
국중의대부봉래군겸오위도총부부총관묘갈명(有明朝鮮國中義大夫蓬萊君
兼五衛都摠府副總管墓碣銘)’이다. 비문은 마모가 심하나 이경여(李敬雨)
가 짓고 이재서(李載書)가 썼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파 높이 26cm, 너비 102cm, 두께 61cm, 비선 높이 128cm, 너비
상 71cm·하 66cm, 두께 21cm이며 총고(總高)는 154cm이다.

2) 이수 묘(李睟 墓) 및 신도비(神道碑)

소재지 : 분당구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이수(1569~1645)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명원(明遠), 중종(中宗)의 증손, 덕양군(德陽君) 가(嘉)의 손, 풍산군(豐山君) 종련(宗麟)의 아들, 광주목사(廣州牧使) 박간(朴諫)의 죄손, 사도시첨정(司導寺敎正) 정인수(鄭麟壽)의 사위, 15세에 때에 따라 귀친부정(龜川副正)을 제수받았다. 임진왜란시 국왕을 호종하였다가, 분조(分朝)의 명에 따라 선친관(宣傳官)에 제수되었다. 임란을 겪는 동안 선원록(憲園錄)이 헤어져 없어졌으므로, 1604년(선조 36)에 종친 중에서 문장과 덕망이 있는 자를 뽑아 수집하고 바로잡게 하였는데, 공을 낭관(郎官)으로 삼아 정리하도록 명하였기에 참여하여 일을 끝내자 특별히 한 계급이 올려졌다. 1611년(광해군 3)에는 규례에 따라 정의대부(正義大夫)로 승격되고 봉군(封君) 되었다.

1614년에는 일진왜란 때에 왕세자를 호종한 공으로 후에 사용원제조(司叡院提調)를 겸하였다. 이때 이이첨(李爾瞻)이 광해군을 부추겨서 영참대군(永昌大君)과 국구(國舅)인 김제남(金悌男)을 모함하여 죽게 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배하였다. 공이 이를 통문하여 1617년(광해군 9) 종재(宗宰)인 금산군(金山君) 성윤(誠胤) 등과 함께 소를 올려, 이이첨의 죄를 극렬하게 논하면서 윤선도 등을 변호하다가 순천(順天)에 유배되었고, 광해군 13년에 풀려 돌아왔다. 순천에 귀양가서 「망북장기(望北亭記)」를 지었는데 그의 기문 끝 부분을 보면 ‘이 몸이 지방에 있다고 임금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찌 일락인들 없었겠는가’라고 한 것으로도 망북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망북정 전문을 보면 문장력이 뛰어남도 알 수 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관직에 복귀된 후 인조 2년 이관(李冠)의 난이 일어나

국왕이 광주로 피난할 때 호종하였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는 강화도로 어가들 호종하여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摠管)에 올랐다. 77세인 1645년에 낭소문동 점에서 별세하자 현복대부(顯福大夫)로 증직되었고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

묘역은 궁내동 선산의 봉래군(蓬萊君) 이향운(李炳胤) 묘 바로 아래에 동향(東向)하여 있으며 무인 정씨와의 합장묘인 봉분이다. 봉분의 하단에는 높이 35cm, 한면 길이 2m인 장대석을 이용해 둘레 15.6m로 호석(護石)을 8각 형태로 둘렀으며, 봉분의 높이는 140cm이다. 이수 묘의 아래에는 구성도 정중구설군과 증현부인왕님삼씨 증현부인파평윤씨(贈顯夫人昌寧成氏 贈顯夫人坡平尹氏)의 묘가 위치한다.

봉분 중탕에는 비파와 비신 월두형의 묘갈·흔유석·상석·4각 향로석, 좌우에 8각 망주석·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4각의 석주가 반치고 있는데, 높이 31cm, 너비 162cm, 두께 98cm이다. 향로석은 높이 36cm, 너비 31cm이다. 망주석은 높이 172cm 가량으로 간주석에 석수가 양각되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72cm로 머리부분 56cm인 3등신의 신체비율이며, 옷소매가 풀으며 훌(笏)을 마주 잡고 있는 손가락의 표현이 뛰어하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24호로 관리되고 있다.

<이수 신도비>

묘갈(墓碣)은 오랜 세월 풍화로 바보가 있으며 특히 비신 하단부로 결락이 있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줄2열로 “소덕대부겸오위도총부도총관증현복대부구천군치묘 ○○현부인증군부인정…(昭德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顯祿大夫龜川君之墓 ○○縣夫人贈郡夫人鄭…)”의 비문이 있다. 비문은 김집(金集; 1574~1656)이 칸하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썼다. 김집은 조선중기의 문신·서예가로 포천군 가산면의 이향복신도비(李恒福神道碑), 연천군 군남면의 백유황묘갈(白惟黃墓碣), 파주시 과주읍의 성흔신도비(成暉神道碑)의 비문을 서(書)·칸(題)하였으며, 송준길은 충시열

의 글씨와 함께 세상에서 '양송체(兩宋體)'라 칭할 정도로 글씨와 문장에 뛰어나 양주군 장적면의 충숙공백인절선도비(忠肅公白仁澤神道碑), 용인시 이동면의 이재신도비(李材神道碑), 모현면 이사직묘간(李時翼墓碣) 등 많은 비문을 남겼다.

크기는 비파 높이 24cm, 너비 98cm, 두께 60cm, 비신 높이 150cm, 너비 상 67cm·하 62cm, 두께 21cm이며 총고(總高) 174cm이다.

신도비는 묘역 하단 정화사 우측에 동향(東向)하여 근래에 백색 화강암으로 마련한 비파 및 비신과 8자지붕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천후 2면에 있으며, 상단에는 천후 2면에 걸쳐 전서(篆書)로 '증시충숙구천군완산이공신도비명(贈諡忠肅龜川君完山李公神道碑銘)'으로 되어 있다. 비제는 '유명조선국행소덕대부겸오위도충부도총관중현화대부오위도충부도총관증시충숙구천군완산이공신도비명 병세(有明朝鮮國行昭德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顯祿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贈忠肅龜川君完山李公神道碑銘 幷序)'이다. 비문은 우참찬(右參贊) 이재(李暉; 1680~1746)가 찬하고, 10대손 전행부호군(前行政副軍) 이승휘(李承徽)가 쓰고, 9대손 전행지증추부사(前行政知中樞府事) 이태(李泰)가 이승휘(李承徽)의 전액을 했다. 건립연대는 숭정기원후5정유(崇政紀元後五丁酉) (1897) 10월이다.

크기는 비파 높이 26cm, 너비 122cm, 두께 62cm, 비신 높이 201cm, 너비 78cm, 두께 29cm, 옥개석 높이 52cm, 너비 108cm, 두께 110cm이며 총고(總高) 279cm이다.

3) 이기 묘(李岐 墓)

소재지 : 분당구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이기(1524~1581)는 본관은 천주, 자는 벽고(伯高)이며 증종의 다섯째 서

자이다. 어머니는 숙원이씨(淑媛李氏)이고,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예조판서 친(親)의 딸이며 영가군부인(永嘉君夫人)에 봉하여졌다. 9세 때 덕양군(德陽君)에 봉군(封君)되었으며, 어머니를 일찍 사별하여 충종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인 인종·명종과도 우애가 돈독하였다. 명종 때 종친부(宗親府)·종부사(宗簿寺)·사용원(司寶院)·문소전(文昭殿)·연온전(延恩殿) 등에서 관직을 역임하였다. 선조 대에도 종실로서의 존례(尊禮)가 용숭하였고, 특히 음률에 해박하였다.

공은 평생 귀한 신분임에도 교만하지 않았으며 겸손과 절약을 삼가 실천하였다. 1581년(선조 14)에 할년 57세로 세상을 마나니 부음을 들은 선조는 크게 슬퍼하여 사흘동안 조회를 열지 않고 예관(禮官)에 명하여 조문하게 하고 태상(太上)에 명하여 제물을 내려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 해 9월에 광주 낙생리 와동(현 성남시 궁내동 산 17)에 장사지냈으며, 12년 뒤에 명가군부인(永嘉君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공의 산소에 봉분하였다.

이기 문인석의 안면 세부 묘는 궁내동 선산의 나지막한 구릉 중턱에 동향(東向)하여 있는 4기의 묘 중 제일 하단에 위치한다. 봉분의 하단에는 높이 45cm, 한면 길이 185cm인 창대석을 이용해 둘레 15m로 호석(盪石)을 8각형 태로 둘렀으며, 봉분의 높이는 170cm이다. 봉분 중암에는 비파와 비신 월두 형의 표표·흔유석·상석·동자석·4각 향로석, 좌우에 8각 망주석·금관 조복형의 문인석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2개의 4각 석주가 받치고 있는데, 높이 23cm, 너비 152cm, 두께 95cm이다. 향로석은 높이 32cm, 너비 35cm이다. 동자석은 높이 88cm에 소발(素髮)로 두 손을 모은 손 쪽양에 직경 2.5cm의 흠이 뚫려 있다. 망주석은 높이 176cm 가량으로 간주석에 석수가 양각되어 있다. 문인석은 좌가 높이 178cm, 우가 높이 190cm이며 특히 좌측 문인석의 경우 머리부분 63cm인 3등신의 신체비율에 머리가 얼굴이 짙죽하다. 눈을 감고 있는 인자한 모습에 턱에는 갓끈의 표현이 뚜렷하다.

표표(墓表)는 비파와 비신 월두형(月頭形)으로, 비파는 전후 6엽, 좌우 2엽 씩의 단관복련문이 있다. 비신의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전면에 종2일로

‘○ 영가군부인치묘(○ 永嘉君夫人之墓) ○ ○ 택양군치묘(○ ○ 德陽君之墓)’의 비문이 있다. 세카방개 변색이 되어 있으며 크기는 높이 22cm, 너비 94cm, 두께 60cm, 비신 높이 134cm, 너비 상 61cm, 하 59cm, 두께 16cm이며 총고(總高) 156cm이다.

4) 정희사(靖僖祠)

소재지 : 분당구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사묘

정희사는 궁내동 전주아씨 묘역 하단에 동향(東向)하여 있으며 택양군(德陽君) 이기(李岐)를 배향한 사당(祠堂)이다. 속을 대문에 담장을 두르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사당이 있으며, 주심포 기둥에 청록기와를 얹었다. 내에는 충숙공(忠肅公) 이수(李洙)의 신도비 외 2기의 비가 동향하여 나란히 있다.

5) 이숙 묘(李塾 墓)

소재지 :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이숙 묘역은 궁내동 전주아씨 선영의 이형운(李明胤) 묘역에서 좌측으로 약 100여 미터 거리의 능선 삼부에 동남향(東南向)하며 부인 여산출씨(瑞山朱氏)와의 합장분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50cm, 직경 540cm이다. 이숙 묘의 바로 하단에는 봉산군(蓬山君) 이형신(李衡信)의 묘가 위치한다.

묘역에는 봉분 중앙에 혼유석·상석·향로석·우측에 백색화강암의 비와 비신 필두의 묘표 및 좌우로 망주석·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삼석은 고석 대신 계체석 위에 놓여 있는데, 크기는 높이 25cm, 너비 136cm, 두께 80cm이다. 향로석은 4각으로 높이 34cm, 너비 28cm이다. 망주석은 8각으로 좌가 높이 184cm, 우는 높이 190cm로 척수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좌가 높이 166cm, 머리부분 58cm, 우가 높이 160cm, 머리부분 60cm로 눈꼬리를 위로 치켜 뜨고 조각수법이 치밀하며 25등신의 신체비율이다.

묘표(墓表)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여 있으며 비파와 비신은 월두형(月頭形)이다. 비파는 마모되어 흑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좌·우면이며, 전면에는 종3열의 큰 글자로 '유명조선어모장군행충좌위부사자
이공치묘 유인여진송씨부좌(有明朝鮮榮海將軍行忠佐衛副司果李公之墓
儒人鷗山宋氏附左)'의 비문이 있다. 비문은 원임대광보국승록대부령증추
부사자봉조좌 총시열(原任大臣輔國榮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貢 宋時烈)이 찬하고, 문인 권상해(權尚夏)가 썼다. 건립연대는 숭정기원후74년신
사(崇靖紀元後74年辛巳: 1701, 익종 27)이다.

크기는 비파 높이 12cm, 너비 88cm, 두께 53cm, 비신 높이 128cm, 너비 59cm, 두께 17cm이며 총고(總高) 140cm이다.

6) 이형신 묘(李煥信 墓) 및 묘간(墓碣)

소재지 :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이형신(1622~1682)은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여우(汝友), 허양군(德陽君)
기(岐)의 증손, 풍산군(豐山君) 종관(宗關)의 손, 구천군(龜川君) 수(洙)의
아들, 험정(欽正) 정인수(靜麟壽)의 외손. 광해군 때 부친이 유패당하자 적소
(嫡所)까지 따라가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하였다. 인조와 효종의 대상(大喪)
때에는 혼전제관(魂殿祭官)이 되어 모든 일을 고례에 따라 시행하였다. 현종

이 해마다 온관을 행행(行幸)할 때는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 사용원
제조(司書院提調)로 이를 수령하였으며, 1679년(숙종 5)에는 복선군(福善君)
남(相)의 모함으로 판학되었다. 1681년 이상진(李尚眞)·김수항(金壽恒)의
상소에 힘입어 수직(壽職)으로 가의개(嘉儀階)에 올랐다.

묘역은 궁내동 전주이씨 선영의 사과군(司果公) 이숙(李塾) 묘 바로 아래
에 동남향하여 신인증첨주군부인한씨(慎人贈淸州郡夫人韓氏)와의 합장분
이다. 봉분의 하단에는 높이 44cm, 너비 240cm인 장대석을 이용해 둘레
16.65m로 호석(護石)을 원형으로 둘렀으며, 봉분의 높이는 180cm이다.

묘역에는 봉분 중앙에 혼유석·상석·4각 항로석 및 우측에 신구의 묘갈
(墓碣) 2기와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고석 대신 적방형 장대석 위에 놓여 있는데, 크기는 높이 32cm, 너비 158cm,
두께 95cm이다. 항로석은 4각으로 높이 36cm, 너비 32cm이다. 망주석은 8각
으로 좌가 높이 198cm, 우는 높이 194cm로 석수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문인
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좌가 높이 188cm, 머리부분 60cm, 우가 높이 198cm,
머리부분 62cm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묘갈(墓碣)은 봉분 우측에 신구의 비 2기가 나란히 위치하여 동남향하고
있는데, 봉분쪽의 원래 묘갈은 비좌와 비신 월두형(月頭形)이다. 비좌는 흑적
색으로 번색되어 있으며,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문이 조식
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특이하게 상부에는 횡2열로 ‘신
인증첨주군부인한씨지묘(慎人贈淸州郡夫人韓氏之墓)’의 비문이 있다. 현
재 비신은 청색을 띠며, 일부 표면이 결락되어 있으나, 비문은 푸렷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반면 후면은 종횡으로 절 및 상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
다. 건립연대는 숭정기원후74년신사(崇淸紀元後七十四年辛巳; 1701, 숙종
27)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cm, 너비 100cm, 두께 66cm, 비신 높이 132cm, 너비
64cm, 두께 26cm이며 총고(總高) 157cm이다.

원래의 묘갈 바로 옆에는 백색화강암 비좌와 오식의 비신 및 8자지붕 옥개

석을 갖추고 1974년 진립된 신묘갈이 위치하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4열로 ‘증홍록대부겸오위도총부도총관행가덕대부겸오위도총부도총관봉산군지묘 신안증청주군부인한씨부좌(贈洪祿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嘉德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蓬山君之墓 僉人贈清州郡夫人韓氏附左)’의 비문이 있다. 후면의 비제는 ‘유별조선국증홍록대부봉산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행가덕대부봉산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묘갈명방서(有明祖鮮國贈洪祿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嘉兩銘 幷序)’이며, 공의 약력과 신묘갈을 세우게 된 동기 및 배청주군부인한씨(配淸州郡夫人韓氏)의 행적을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묘갈문은 숭정후부인(崇頤後茂寅; 1698, 숙종 24) 8월에 진립되었으며, 묘갈문은 치사봉조呻(致仕奉朝貢)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음기를 찬(撰)하고 가선대부행성균관대사성(嘉善大夫行成均館大司成) 조상우(趙相遇; 1640~1728)가 서(書)했음을 알 수 있다. 조상우는 이경석(李景石)·송준길(宋浚吉)의 문하이며 글씨를 잘 써서 장연왕후(莊懶王后)의 속책문을 쓰는데 선발되었고 왕명으로 능원대군(陵原大君)의 비문을 썼는데, 이로 인해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글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다. 그의 필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광주군 남종면의 여류길묘비(呂裕吉墓碑), 남양주시 화도읍의 능원대군이증신도비(陵原大君李拯神道碑), 별내면 화접리 음천뢰신도비(尹天齊神道碑), 양평군 강상면의 심권신도비문(沈權神道碑文) 등이 있다.

7) 숙의김씨 묘(淑儀金氏 墓)

소재지 :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숙의김씨 묘역은 택양군 이기률 폐향한 경희사(淸信祠) 우측의 소고 벤에

인접한 나지막한 능선에 남서향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50cm, 직경 520cm이다. 묘역에는 봉분 중앙에 묘표·흔유석·살석·향로석·장명등 및 좌우로 망주석·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고석 대신 계체석 위에 놓여 있는데, 크기는 높이 26cm, 너비 158cm, 두께 98cm이다. 향로석은 6각으로 높이 48cm, 너비 23cm이다. 장명등은 간주석에 높이 14cm, 너비 18cm의 화창석이 있으며, 사모지붕에 보주가 얹혀 있다. 크기는 높이 170cm이다.

망주석은 8각으로 좌가 높이 176cm, 우는 높이 170cm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좌가 높이 180cm, 머리부분 62cm로 좌수(左手)는 위로, 우수(右手)는 아래로 하여 흘(笏)을 잡고 있다. 짧은 옷소매에 관복은 발목까지 높이 뜨리고 있다. 우측의 문인석은 높이 184cm, 머리부분 66cm로 양 손은 깍지를 끼고 흘(笏)을 잡고 있다. 아울러 턱에는 갓끈의 표현이 있다.

묘표(墓表)는 봉분 중앙에 남서향하여 있으며 비파와 비신은 월두형(月頭形)이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비이며, 전면에는 종1열로 ‘숙의김씨지묘(宿儀金氏之墓)’의 비문이 있다. 후면의 전립면에는 마모로 확인이 곤란한 상태이다.

크기는 비파 높이 26cm, 너비 84cm, 두께 53cm, 비신 높이 153cm, 너비 상 53cm, 하 52cm, 두께 15.5cm이며 총고(總高) 179cm이다.

8) 숙원이씨 묘(淑媛李氏 墓)

소재지 : 궁내동 산17-1

시대 : 조선시대

종류 : 묘지

문인석은 좌가 높이 198cm, 머리부분 62cm이며, 우는 높이 204cm, 머리부분 60cm이다. 턱 밑에 갓끈의 표현과 배듭은 ‘판(八)’자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두 손은 깍지를 끼고 흘(笏)을 잡고 있으며, 짧은 옷소매에 관복은 발목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우측의 문인석은 좌측 안면불과 턱에 총알 자국이 있으며, 흔의 상부는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묘丘(墓丘)는 불분 중앙에 서향하여 있으며 비좌와 비신은 월두형(月頭形)이다. 비신의 비문은 천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1열로 ‘숙원경주이씨자 묘(淑媛慶州李氏之墓)’의 비문이 있다. 건립연도와 건립자는 승절기원부친 후92년기해 4월(崇績紀元戊辰後92年己亥四月)에 5대손 ○이 기백(繼伯)으로 있을 때 고쳐 세운 것이다. 비신은 흑색으로 번색되었으나, 비문은 뚜렷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32cm, 너비 99cm, 두께 62cm, 비신 높이 168cm, 너비 상 64cm·하 60cm, 두께 18cm이며 총고(總高)는 2m이다.

〈조계 곤〉

제6장

판교지역의 실태 2

(운중 · 석운 · 대장 · 하산운동)

1. 분당구 운중동의 개황

운중동은 성남시 분당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운중동의 자연 환경은 청계산 줄기인 광교산과 바라산이 남북으로 위치한 관계로 전형적인 산지 마을에 해당한다. 운중동은 농지가 헐소하여 산을 이용한 생계 수단이 보전화된 화훼나 약초, 농원 등의 형태가 부가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운중동은 동쪽으로 분당구 판교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의왕시 청계동과 경계하고 있다. 남으로는 용인시 수지읍과 접하고 있으며 동남 방향에서 보면 분당구 금곡동과 인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구역의 측면에서 보면 운중동은 인접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비례하여 반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는 항공 업소에 대한 개발의 욕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 운중동의 유래

운중동은 원래 중산운리(中山雲里), 산운리(山雲里), 하산운리(下山雲里)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운중이라고 지칭된 것은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한 정책적 강요에 의해 운중이라 호칭되었다. 산운리와 중산운리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운중리라 하였다는 것이다. 석운동의 경우 순수 한글의 뜻은 둘우니이고 산운동의 경우는 뵐루니이고 하산운동은 아랫뵈루니로 불리는 것이므로 운중동은 이런 배경에서 지명으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석운동의 경우 산과 구름에 관계된 것이므로 산골마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운중동의 연혁

조선시대 운중동은 광주군 낙생면에 속한 곳으로 석운리, 산운리, 대장리로 분할되어 존치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 구역의 개편 과정에서 중산운리와 산운리를 합하여 운중리로 지칭되었고, 두밀과 하산운리가 통합되어 하산운리가 되었다. 태릉, 장부리, 모두만이가 합해져 대장리로 지칭되었고 바라미, 도무니가 합해져 석운리가 되었다. 해방 후 1971년 9월 도조례가 개정되어 운중동은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운중동으로 되었다. 1975년 3월에는 낙생출장소의 관할 지역으로 편제되었다가 1989년 5월 중원구 관할하에 있었다. 이어서 1989년 6월 분당지구 개발지원 사업소 소속으로, 1991년 7월에 분당출장소 관할하에 있다가 1991년 9월에 분당구 관할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설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위치(시진 지도 자료)

행정구역상 운중동은 설남시 분당구에 속하며 법천동으로는 운중·대장·석운·하운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중동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운중동은 5개동과 23반으로 세분화되어 관할되는 상황이다. 분당구에 소속된 운중동은 상대적으로 면적 면에 속한다. 운중동을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의 자원이 부족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일반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비중을 보면 분당구에서 운중동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 운중동의 세대와 인구수

	주택수	세대수	인구수		
			합계	남	여
1997		788	2,164	1,182	982
1999		773	2,160	1,164	996
2000		825	2,237	1,205	1,032
2002	423	930	2,408	1,310	1,098

2000년 성남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운중동의 경우 총세대는 825세대로 집계되어 있다. 총인구는 2,237명으로 남자가 1,205명이고 여자가 1,032명이다. 대부분 한국인이지만 외국인도 37명이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1>을 보면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운중동의 인구는 2,408명으로 나타난다. 남자가 1,310명이고 여자가 1,09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수의 경우 171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운중동 구성원의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비교적 자연 조건은 적절하지만 교통이나 교육 여건

도표 2> 분당구 인구 구분비표 (2000년) 자료 :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동별	세대	인구	남	여
분당구	123,933	392,326	194,081	198,265
분당동	9,043	29,599	14,294	14,715
수내 1동	5,257	15,932	7,848	8,084
수내 2동	3,689	12,042	5,960	6,082
수내 3동	4,881	15,505	7,864	8,111
정자 1동	8,340	26,864	13,338	13,526
정자 2동	7,719	23,180	11,373	11,807
정자 3동	5,783	18,353	9,047	9,306
서현 1동	9,629	30,908	15,155	15,783
서현 2동	6,446	21,008	10,408	10,600
미래 1동	8,080	25,783	12,851	12,935
미래 2동	5,063	16,642	8,039	8,403

동별	세대	인구	남	여
아탑 1동	5,695	18,392	9,133	9,259
아탑 2동	5,384	20,288	9,883	10,405
아탑 3동	10,159	32,345	16,135	16,218
민교동	1,717	4,660	2,503	2,156
금곡동	14,062	42,881	21,135	21,746
구미동	11,201	35,987	17,907	18,078
운중동	825	2,237	1,205	1,032

이 미흡하여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표 2>에 따르면 설남시 분당구에서 차지하는 운중동의 위상은 미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구에서는 분당구민이 392,326명인데 운중동의 주민은 2,237명으로 약 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대별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에는 825세대인 반면에 2002년에는 운중동은 930세대로 증가하였다. 75개 세대가 증가한 것은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 수는 423호로 집계되는데 주거 형태로 분류해 보면 모두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중동의 인구 구조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표 3>을 참조해 보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14세 이상의 남녀를 치장하는데 노동기준법에 14세 미만 남녀의 노동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60세에 정년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적용시켜 운중동의 인구별 분포 상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운중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도

구분	합계	남	여	구분	합계	남	여
0	15	6	9	51	25	18	7
1	20	12	8	52	27	16	11
2	18	14	4	53	37	17	20
3	23	14	9	54	34	22	12

구분	합계	남	여	구분	합계	남	여
4	28	12	16	55	30	18	12
5	27	13	14	56	38	16	12
6	25	13	12	57	26	14	12
7	17	10	7	58	20	14	12
8	14	7	7	59	27	16	11
9	29	23	6	60	26	16	10
10	24	16	8	61	33	13	10
11	28	15	13	62	26	14	12
12	29	19	10	63	17	10	7
13	34	18	16	64	17	10	7
14	29	10	19	65	23	13	10
15	35	20	15	66	19	11	8
16	31	16	15	67	17	4	13
17	39	17	22	68	21	12	9
18	38	21	17	69	24	7	17
19	46	26	20	70	30	10	10
20	39	22	17	71	13	4	9
21	46	29	17	72	5	1	4
22	44	27	17	73	14	8	9
23	41	17	24	74	9	2	7
24	39	26	13	75	7	2	5
25	35	20	15	76	12	6	7
26	34	18	16	77	12	4	8
27	32	19	13	78	7	4	3
28	33	14	19	79	11	3	8
29	41	27	14	80	6	2	4
30	32	22	10	81	5	2	3
31	32	17	15	82	4	3	1
32	43	28	15	83	5	0	5
33	24	14	10	84	4	0	4
34	47	30	17	85	4	2	2
35	19	10	9	86	3	1	2
36	39	24	15	87	4	1	3
37	40	23	26	88	2	1	1
38	36	17	21	89	0	0	0
39	33	17	16	90	1	0	1
40	52	34	18	91	0	0	0
41	50	35	15	92	2	1	1
42	53	34	19	93	0	0	0
43	39	21	18	94	0	0	0

구분	합계	남	여	구분	합계	남	여
44	48	27	21	95	1	0	1
45	46	27	19	96	0	0	0
46	42	27	15	97	0	0	0
47	47	28	19	98	0	0	0
48	47	23	24	99	1	0	0
49	36	15	23	100	0	0	0
50	31	10	21	249	1,315	1,094	

2002년 7월 기준의 통계 자료인 경기도 성남시 읍·면·동의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운중동의 인구 2,409명 중 남자 1,315명이고 여자가 1,094명으로 합계된다. 0세에서 15세까지는 391명이며 16.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 인구인 60세까지의 인구는 1,653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6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365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5.2%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71.7%를 차지한 반면에 노년층은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중동의 인구 구성은 노인층의 비율이 급증하여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도표 3>에서 나타나는 운중동은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의 인구가 68.6%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화 사회의 전형적인 인구 구성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소년층이나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부양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운중동 토지 지목별 현황

성남정계연보에 의하면 운중동의 관할 면적은 18.11㏊이며 분당구 전체 면적의 12.77%에 해당하는 규모 면적이다. 운중동의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5,641,186㎡ 중 땅이 393,545㎡인 반면에 논은 401,994 ㎡를 차지하고 있다. 임야는 4,180,803㎡이며 대지는 162,302㎡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운중동의 경우 공장용지나 학교용지가 없는 것은 자연 마을인 관계로 인위적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상 주민의 편의를 관찰하는 동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6명이다.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통해서 주민에 봉사하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이다. 동의 행정에 대해 총괄하는 등장을 필두로 5명의 동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업무 관찰은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절보화 사회에서 추가되는 전산 통신이 업무를 위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전산화된 주민등록을 발행하는 것에서 주민 자치나 사회 문화에 대한 업무가 일정 부분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의 협력이 강요되는 형태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주민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경동사무소 현관

운중동 주민자치 조직의 현황

■ 동장 협의회

회원 : 5명

회장 : 이 대환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 24명

회장 : 이 춘길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원 : 7명

회장 : 한 성대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 새마을 부녀회

회원 : 6명

회장 : 김명옥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바르게 살기위원회

회원 : 26명

회장 : 김창일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III. 운중동의 경제적 산업 구조

성남시의 경우 사업체수가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에는 사업체수가 36,923업체로 2000년에는 38,749업체로 감소하였다. 산업종사자의 경우는 1997년과 98년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IMF를 맞이하여 축소하였다.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행정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사업, 오락 문화 등에 관련된 사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4> 분충동 산업별 사업체(총사업자)의 변화

산업별	1997		1999		2000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총합계	93	662	89	1,066	89	1,191
농림·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17	114	17	92	16	75
천연 가스수도	1	84	1	46	1	80
건설업						
도매·소매업	12	40	18	68	13	71
숙박·음식점업	9	48	13	56	10	75
운수·창고·통신업	2	2	3	349	6	349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2	242	4	385	1	2
사업서비스업					2	377
공공행정·사회보장	1	13	1	11	1	8
교육서비스업	3	66	3	58	3	115
보건·사회복지사업						
문화·예술					4	24
기타금곡·사회·복지·개인서비스업	5	53	6	30	4	9

도표 4>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운중동은 사업체수가 69개이며 종사자는 1,191명으로 나타난다. 분당구의 사업체가 11,345업체임을 감안하면 0.6%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미흡함을 드러낸다. 종사자수에서도 분당구가 71,279명인데 반해 1,191명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1.7%를 차지하고 있다.

IV. 운중동 관내 유적지 및 주요 기관

1. 운중동 관내 천주교 유적지

▶ 천주교 유적지

설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주목되는 유적지는 천주교 박해 유적지인 동굴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설남시 분당구와 의왕시를 잇는 342번 지방도 중간쯤에서 위로 올라가 서울 회파 순환 고속 국도 밑의 터널을 지나 국사봉 등성이를 오르면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새남터에서 순교한 서 투도비코(불리외, Beaulieu) 신부가 박해를 피해 숨었던 동굴을 볼 수 있다.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 순교한 선교사를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인 26세의 불리외 신부는 박해에 의해 희생되었다. 조선 땅에 발을 들인 지 겨우 9개월, 고국인 프랑스에서 조선까지 무려 10개월의 여정 후 도착한 조선에서



천주교 유적지

9개월 동안 한신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 불리외는 1840년 프랑스 보르도 교구의 랑гон(Langon)에서 태어나 1857년 보르도 신학교에 입학해 1862년 졸업장을 받았다. 이듬해 파리 외방 천교회에 입회했고 1864년 사제품을 받음과 동시에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그 해 7월 프랑스를 출발한 불리외 신부는 다음해 1월 27일 열 달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비로소 조선 땅에 도착하였다.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 한양에서 몇 심리 떨어진 조그만 교우촌에 머물러 있던 불리외 신부는 병인박해가 시작되던 1866년 2월 성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조선말에 능숙해 있었다. 이로 인해 베르뇌 주교는 그에게 한양에서 동남쪽으로 수십리 떨어진 경기도 광주(廣州) 지방을 임치로 맡겼다. 임지 방문 후 불리외 신부는 한양으로부터 베르뇌 주교가 제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우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월 27일 새벽, 포졸들이 둔토리(현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에 있는 이씨의 집을 포위했다. 베르뇌 주교를 밀고한 교우의 말에 따라 괴루나(현 성남시 운중동)로 내려온

포졸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불리와 신부는 뒤이어 불같힌 도리 신부와 함께 이튿날인 28일 한양으로 암송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한 불리와 신부는 결국 3월 7일 베르뇌 주교, 브로트니에르·도리 신부와 함께 세남터 행장에서 효수되었다. 스물 여섯의 나이에 순교한 그는 1968년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라졌다.

2. 운중동 관내 주요 기관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경

운중동에는 국학연구의 요람이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운중저수지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가치관의 팽배와 아노미 및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발전적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도약의 정신적 기초를 쌓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한국학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는 보물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소, 「대불징다라니」 등 귀중한 문화재 7점이 보존되어 있다.

① 설립 배경

개항 이후 근세 백여 년 간 지속된 수난과 시련은 우리의 정신문화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일제하의 식민지 문화의 잔재와 광복 후 갑자기 밀어닥친 서구문화의 범람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정신문화는 엄청나게 훼손되고 그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었으며 민족 문화의 철체성마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근현대사의 역정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 계승과 창조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과제에 입각해 대동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 근대화 과정의 산물로서, 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 문화의 수요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정신문화가 그에 상응하는 깊이를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발전과 근대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이상의 국가발전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국가의 근대화나 선진화에는 경제력 및 과학기술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정신력도 함께 필요한 것이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경제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설립되고, 과학기술의 입국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노력과 정책의 일환이었다.

1961년 김건한 군사정부와 그 뒤를 이은 제3공화국은 절대적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조국근대화 작업을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 기간 위에서 70년대의 제4공화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역점을 둔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양질의 노동력과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정책과 우수한 기술 판로에 의한 정부 주도적 경제 운용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저력이 되었다.

자본과 기술 및 자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근대화 작업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정책실패와 부작용을 놓기도 하였다. 예컨대 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한국경제가 고도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시장기능의 위축, 과잉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 외채 누적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한 정책이든 실패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개인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경제개발정책의 수행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여타의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 비해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그것이 이룩한 성과를 가지고 앞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왔다.

급속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의 바람직하지 못한 독점적 관행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유신체제 하에서 반정부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의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파상적으로 관찰할 때 정치·사회적 갈등의 증대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근대화로 인한 전통적 사회 규범과 가치관의 붕괴가 가져오는 혼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 및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건전한 정신문화의 정립과 창립이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정신·문화적 발전이 뒤따라야 하며, 역사발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동시에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겪으면서 잊었던 정신적 피해와 6·25의 동족상잔으로 벗어진 동족간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구도 포함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입각한 시대적 요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학술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관심있는 지식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7월 21일 본 연구원의 설립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청계산 중턱의 현 위치를 설립 후보지로 정하고, 1977년 1월 20일 본 연구원 설립안을 확정했다.

② 설립 목적

본원의 구체적인 설립취지와 목적은 설립 추진 초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치안」에 따르면 “우리 고유의 문화·사상 및 윤리를 재발견하고 민족의 습기로운 얼을 되살려 이를 국민지도층에게 고취함으로써 주체성이 회복한 국민정신을 고무, 발양, 심화하며 나아가 민족중흥의 기운을 전작케 함”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1978년 2월 28일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서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고, 주체적 역사관과 전진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함”으로 수정되어 다시 명문화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고 주체적 역사관과 전진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함”을 설립목적으로 한 연구원은 또 개방적 연구기관임을 표방하고, 유능한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길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공동 협찬까지 마련함으로써 그 사업범위를 넓히려 하였다.

민족과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정신적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해 나간다는 절은 본원이 개원 이래 현재까지도 견지하고자 했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V. 대장동(별장투리, 우두만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운중동의 법정동리의 하나이다. 광주군 낙생면 대장리인데 원래는 태장리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추측컨대 1914년 일제에 회한 행정구역 통폐합 시 태릉(胎陵), 장토리(王土里), 무두만이(無頭蠻伊)를 합하였으므로 태릉, 장토리의 합성지명의 별명인 태장리로 지칭된 것이 아닌가 한다. 태릉은 임금의 태(胎)를 묻었기 때문에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태장리(太王里)가 대장리로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1. 대장동 사업자 분석

대장동은 토지 지목의 형태에서 보면 임야지대가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대장동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것은 사슴 농장이나 난 농장 등이라 할 수 있다. 대장동의 사업자는 19개소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장의 형태나 음식점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장동 대식난농원 사례를 살펴 보면 자영업 화훼의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대식난농원은 이 지역 화훼농의 전형을 나타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동사무소에서 좌측으로 난 길을 따라 500m 정도 가면 대식난농원에 이르게 된다.

일본인으로부터 난에 대한 권유를 받고 국내에서 경험을 쌓은 뒤 난 재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난을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 성남시는 타지역에 비해 꿈꽃지원이 비교적 많고, 교통이 좋고 6개의 시장(고양시, 경기화훼조합, 성남시 난조합, 양재동 한국화훼유통, 남서울, 남산, 과천)이 있어 유통이 원활하고 운송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이 농원에서는 *Symbiclin*, *Phalaenopsis*, 호접란, 덴파란 순으로 난을 재배한다. 지금은 육줄, 재배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면 앞으로 대장동의 경우 농원에서 특약 작물 재배를 지향하는 한편 관로 유통망을 적절하게 개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I. 판교 조사 마을의 실태

판교 마을의 조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하산운동과 석운동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하산운동과 석운동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형적인 농촌과 산지의 모습을 일정 부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주변부에 형성되는 읍식업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1. 조사 마을 토지 거래의 문제점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주변에는 여전히 소규모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접수건수 전수는 지난해 10월 1천 663건, 11월 1천 490건, 12월 1천 667건으로 급격한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별 거래추이를 보면 판교 개발예정지 외곽인 수내동이 지난해 10월 142건에서 12월 214건, 이매동이 155건에서 170건,

금곡동이 99건에서 120건, 동원동이 5건에서 18건, 하산운동이 4건에서 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지개발 폐정지에 들어가 토지보상지역인 판교, 삼평, 운중동 등은 각각 한 달에 10건 이하로 매매되어 침체된 토지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으며 석운동은 지난해 12월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 토지거래계약 하가구역 지정이후 허가 신고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는 7건에 불과하여, 개인점수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토지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270㎡, 상업·녹지 33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자격도 엄격 제한된다. 조사 마을이 개발 예정지에 일부 편입되거나 주변 지역에서 투기 가치가 상승한 상황이다. 당국에서는 엄격한 조치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음성적인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하산운동의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이런 음모임의 일환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조사 마을 하산운동(아랫뫼루니)

운중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판교동과 인접한 범정동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에 속하였으며 뵙루나(산운동)의 아래쪽에 해당되므로 아랫뫼루니 또는 하산운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병합하였으며 1971년 성남시 관할이 되었고 1975년 낙생출장소에 속하였으며 행정동인 운중동에 통합되었다.

하산운동은 범정동 중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의 측면에서 보면 하산운동의 총면적은 332만 3,000㎡으로 이 중 논이 32만 2,000㎡이고 밭은 23만 3,000㎡으로 나타난다. 경작 면적은 총면적의 16.7%



화산운동의 험길

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농경지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로 임야지대는 199만 3,000㏊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하천과 계방, 구거 용지가 일정 부분 차지한 반면에 체육용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야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대지는 9만 9,692㏊이고 도로용지는 6만 1,837㏊를 차지하며 빈약한 상태이다.

1) 화산운동의 경제적 산업 구조

화산운동의 경우 사업자는 28개소로 나타난다. 대락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를 분석해 보면 창화 2, 음식점업 3, 농원 3, 가구업 8, 건축업 5, 기타 등으로 집계된다. 화산운동의 사업체는 가구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골재나 벼들 생산업체 등과 건축업체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화산운동의 사업체는 소규모의 영세적인 형태임을 알 수



하산운동의 경로당



하산운동의 가옥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판교 신도시의 경우 단순하게 빠드 타운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개발된다면 유흥이나 위락 산업만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개발의 초점은 주거는 물론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의 유치와 부수적 문화 시설의 삼호 보완만이 진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산운동은 사회 복지 시설이 미흡한 형편이며 자체적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하산운동교회가 있다. 특히 마을회관은 주민의 자치적인 문제를 결정하거나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한 경로당이 있다. 분당구 하산운동에 위치한 주요 기관은 현대 사회의 제반의 문제점을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현대사회연구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위락시설로는 숲과 인접한 지역에 남서울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다.

2) 하산운동 자작농의 사례 분석

하산운동의 자체 논과 밭을 포함한 경작 면적은 전체 면적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산운동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 대

게 자소작농이라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가 농민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근대사회처럼 지대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 하산운동의 거주자의 농가의 일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하산운동의 비 제비 농가 현황

번번	제비 농가수	제비면적(㏊)	소유주
1	백00	1,468 3,366	점00
2	미00	2,235	점00
3	백00	2,515	미00
4	미00	1,157	

1번의 경우 박씨 농가는 자소작농의 형태이다. 2번과 3번은 순소작농으로 나타나며 4번의 사례는 자작농에 해당한다. 1번의 박씨 농가는 자신의 경지가 3,366㏊이고 1,468㏊의 경작자는 소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번의 이씨 농가는 자작농인데 경작지가 1,157㏊으로 350평에 해당하는 영세한 규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산운동의 농업 종사자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여 자급자족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작에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하산운동의 농가 사례

하산운동의 경로당에서 만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분들 중 한 분을 선택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포함하여 약 1,500여 평을 경작하였다. 논농사는 주로 쌀 농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밭농사는 주로 콩, 팽, 깨 등을 재배하는 한편 무, 배추, 감자 등을 재배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밭농사는 주로 자급 자족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농사는 노인들이 직접 경작하는 형태이며 자녀는 모두 출가한 상황이다.

1년 수입은 100만원 정도이며 농사를 위해 일부 대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1년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지출비는 경조사비용 20만원을 지출한다. 문화비나 통신비 같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류비나 기타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산운동의 농업 종사자는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임이나 농기계 지출 비용도 없기 때문에 농업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3. 조사 마을 석운동(바라산이)

운중동에 속한 법정동의 하나로 문답구의 죄서단이 되며 문당구의 가장 오이고 남쪽에 응인사 수지율 고기리, 서쪽에 의왕시 청계동과 접한다. '돌=석(石), 분=운(雲)'이 되어 석운동이 된 곳이다. 따라서 석운동은 산으로 물러싼 마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석운동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바라미를 병합하여 낙성면 석운동리가 되었다.

1) 조사 마을 석운동의 특성

석운동의 경우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는 422만 6,524m² 운중동에서 세 번째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운동의 토지 면적의 특징은 밭이 논보다 면적이 넓다는 점이다. 밭의 면적이 33만 2,443m²인 반면에 논은 26만 1,576m²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농경지대는 석운동의 전체 면적 중 14.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야가 341만 4,334m²이고 대지가 3만 8,059m²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산지 마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야가 전체 면적에서 80.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가 대부분인 자연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에서



석운동 마을의 전경

도 산과 구름을 연상시키는 명칭이 자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천과 구거 면적을 계획하면 학교용지나 공장용지, 유원지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서 보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석운동은 대지가 전체 면적의 4.9%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 부적합하다. 따라서 농업지대에서 나타나는 킷션촌이나 마을 구성이 어려웠던 내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되면서 산지에 대지를 조성하고 유품들이 일부 들어서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이 곳은 판교 신도시가 형성된 후 위탁 시설이나 충식업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석운동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인 자율 발법대를 조직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장 김정운 등 회원 17명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석운동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석운동은 조사 마을 중 사업자가 적은 것이어서 마을의 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석운동의 사업자는 11개소로 나타나는데 음식업이 8개소로 음식업에 치중되어 있다.

2) 석운동 화훼업자의 사례

석운동에서 화훼농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관한 사례이다. 지출과 수입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관계로 대략적인 상황만을 검증하기로 한다. 드라이 플라워에 종사하는 화훼농은 부모를 포함하여 8인 가족의 자영업자이다. 20년 동안 종사하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기본으로 소재를 이용하는 융용 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작업하는 형태이며 노지에서 옥잠화라는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부업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6> 석운동 화훼농가의 월별 지출입

항 목	수 입	지 출	비 고
급여(직업소득)	700만원		드라이 플라워
큰업소득	300만원		육상화 재배
기타수입			
주거비		30만원	25평은 전세 토지는 본인 소유
주식비		150만원	
난방 및 연료비		30만원	
인력비		15만원	
교통비		150만원	차량 3대
공과금 및 세금		30만원	
고통비		100만원	자기풀으로 풀학
파손비			
회식 및 주식비		20만원	외식은 자주하는 편
검조사비		30만원	
저축		80만원	노후대책 보험 등 총 17개
통신비		30만원	핸드폰을 포함하여 전화가 8대
문화생활 및 레저금월			
자동차 유지비		20만원	사업용 포함 3대 운영
집기 및 비설비			
기타 관리			
총액	1,000만원	595만원	

도표 6>에 따르면 화훼농가의 1년 총수입은 1억원 정도이고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500~600백만원이라 한다. 실제로 전국 도시지역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4분기 중 273만 4,900원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석운동 화훼농가는 도시의 중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출비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 활동비 등의 지출이 현저하게 적은 반면 통신비와 교육비, 경조사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인 도시지역 가구의 경우 소득이 많은 상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53만원인 반면에 하위 계층의 소득은 100만 6,000원이다. 특히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698만 4,000원으로 들어난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은 76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사한 화훼농가는 상위권 계층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한 사례 자영업자의 경우 그 동안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새로운 종류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제는 토지의 확보인데 석운동의 경우 지가가 상승되어 터산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하는 차세로 종사한다면 희망적이라는 말을 부인하고 있다.

4. 석운동 관내 유적지

이경석의 묘소

이경석(李敬石, 1595~1674)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차는 상보(尚輔), 호는 백현(白軒),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일찍이 진사가 되고 2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의 이란이 되었으며 중시에 급제하였다. 별자호란 동안 활명을 받아들여 삼전도비의 비문을 작성하였다. 삼전도 비문이란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자리에 세운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 : 현 서울시 종파구 소재)를 말한다.

이경석이 삼전도 비문을 쓴 이유는 친청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직책이 문안을 담당했던 예문관 제학(提學)이었기 때문이었다. 희색상 할 수 없이 말은 악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석이 사망했을 때 송시열과 문도들은 그가 생전에 삼전도 비문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이경석은 친청파가 아니라 북벌에 관여했다는 학파로 청나라에 제포되어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인조가 막대한 뇌물을 조사관들에게 주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반청파였다. 청나라 임금은 이경석을 '조선 조정에 영원히 등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석방을 허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경석의 묘소는 명분론과 실리에 대한 깊은 사색을 되뇌이게 한다.

5. 석운동 관내 주요 기관

대한송유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는 임직원이 340명에 달하는 주요 기관이다. 대한송유관공사(DOPCO)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2001년 1월 28일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민영화 이전 최대 주주였던 정부 지분을 참여 주주사인 정유사 면로 분할 형태로 민영화를 완료한 것이다. 민영화 이후 석유제품 운송의 특수물류 부분만 다루던 사업범위를 개인물류, 기업물류 등 종합물류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하고, 2010년까지 세계 최대 종합 물류회사로 탈바꿈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처럼한 석유수송 수단인 장거리 송유관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 1990년 대한송유관공사를 정부와 정유 3개사, 항공 2개사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천에서 수도권 북부 지역인 고양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55km의 경인송유관을 1992년 완공했으며, 1997년에는 여

수와 울산에서 수도권 남부의 성남까지 이어지는 900km의 남북송유관 건설
공사와 종착지인 성남저장소를 완공하였다.

1998년 7월에는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에 의해 면도 운
영되던 호서구간을 전국 송유관망과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
기 위해 통합하였다. 한국 최초의 송유관에 대한 운영권을 1999년 9월에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송유관
운영 전문회사가 되었다.

이 외에도 석운동에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들어서 있으며 유통시설은 없으
나 한국 신성남전력소, 현대자동차 전문학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VII. 판교 마을 여성

1. 여성들의 삶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지난 10년간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상관성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더욱 투자하고, 여성들 모둔 부분에서 주류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판교 마을의 여성에 대해 성남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표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나 조사 자료의 수집이나 표본 축출이 미흡했음을 밝혀둔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경제 위기의 직전까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상당한 향상을 이루었다. 가족법 개정을 비롯하여 납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호법,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공·사적 영역에서 납녀평등과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전진은 정부의 체계적인 여성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여성운동의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성의 공적 영역에 많이 참가할수록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표를 나타내는 세 요소로써 수명, 문맹율, 출산율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기본적 생활의 질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조건이다. 지난 1년간 여성의 위기를 느끼는 것의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의 급속한 주변화이다. 고용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은 1998년 8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의 49.5%에서 47.6%로 1.9% 저하시켰다. 남자 감소율이 0.1%임을 감안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여성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남자의 5.7%감소에 비해 8.3%라는 높은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취업자는 수직인 감소뿐 아니라 고용 형태 역시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2. 운중동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1999년을 기준으로 성남시 인구는 921,204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의 인구는 715,809명이다. 성남시의 취업률이 51.3%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인구는 367,206명이다. 전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35%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32.9%, 나머지는 일시적, 일용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남성노동자의 63.4%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음과 비교하면 여성은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에 한정시켜 여성의 문제점을 걸로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와 판매직이 조사 대상에서 61.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무직이 15.1%이며 춘전문직은 6.6%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운중동의 경우 여성은 1,094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791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 중 72.3%에 해당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보다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운중동은 주위 여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대략적인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겠다. 성남시의 여성 근로자들은 주로 음식 숙박업,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개인 사업이나 공공서비스가 36.6%이고 음식 숙박업의 종사자가 31.4%, 팜공업 분야는 21.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평소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실태를 알 수 있다. 평소 경제활동의 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주로 일하는 상태는 26.6%이고 틈틈이 일하는 상태는 9.8%, 가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44.5%이고 학교나 학원에 종사하는 경우가 9.6%, 기타가 10.8%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동 여성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비율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은 농업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반적인 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삶에 대한 일단을 파악하기 위해 판교동과 석운동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례 1>은 너더리킬에 위치하여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세밀한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여성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 4인 가족으로 전세를 살며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이다. 사례 1>의 가구는 슈퍼마켓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남에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대업이 주요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슈퍼를 운영하여 하루 평균 매출이 5만원 정도이지만 반면에 부업과 임대업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슈퍼마켓을 경제활동은 주로 여성의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여성이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로 일하는 형태이다.

사례 2>는 석운동에서 화훼농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관한 사례이다. 드라이 플라워에 종사하는 화훼농은 부모를 포함하여 8인 가족의 자영업자이다. 20년동안 종사하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기본으로 소재를 이용하는 융용 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작업하는 형태이며 노지에서 옥광화라는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부업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훼농의 경우 여성의 남성과 대등하게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원의 중요 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곱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월평균 수입을 정화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아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역시 책정하기 어렵고 소액의 지출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특히 문화 활동비 등의 지출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운중동 여성의 보편화된 현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생활 수준 열악화는 남성의 경우 가족의 쌈계 책임자, 여성은 괴부양자라는 성별 노동분업의 뿌리깊은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갈락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생활 수단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여성 정책은 기존의 사고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문제이다. 정부 실업정책에서도 여성은 미전히 주변화되어 있다. 99년 실업대책 예산 중 여성훈련 및 취업지원강화 차원에서 계획된 여성 실업대책 예산은 실업대책 예산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여성 실업대책은 일부 직업훈련과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책 정도인데,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그 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네다가 최종도 적고, 그마저 전통적 여성직종에 몰려있으며 적연령, 신규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형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은 여성 실업대책 관련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참여와 비판'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안과 밖의 기회공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여성운동의 중요한 전략과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여성대중 조직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올라오는 여성들의 힘으로 스스로 세력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발전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안적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적도

로만 발전이 가능되고, 정치 및 사회전반의 균형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발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은 바로 오랜 틀을 비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밑그림 형성과정에 주체적 참여하는 것이다.

〈서 승 갑〉

부록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정리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는 그 동안 중앙중심의 역사연구로 인하여 구체적인 생활의 장인 지방에 대한 연구가 미약했던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변천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향토의 인물 연구는 자신과 관련 있는 조상이나 지역의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친족끼리의 유대감 및 자기 성씨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그러한 의식을 갖게 함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한 인물의 삶에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사상 등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인물 연구는 역사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로서 그 시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긴요한 작업이다. 때문에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된 성남의 지방사 연구에서도 인물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부터 주목되어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남의 인물 연구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역할을 파악해본 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 관교 및 성남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성남의 인물 연구와 관련된 기관개인의 역할

성남의 인물 연구와 관련해서는 크게 기관이 주도한 경우와 개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를 많이 축적한 '성남문화원'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성남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그리고 세 번째로 '경원대학교·경원전문대학·한국정신문화원' 네 번째로 '경기도'의 역할을 파악해보겠다. 다음으로 개인의 경우 인물 연구와 관련하여 개별 차서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관의 역할

첫 번째로 성남 인물 연구와 관련된 문화원의 역할을 살펴보자. 1979년 진립된 성남문화원은 문화학교의 운영 및 매년 10월 산성문화제를 주관하는 등 활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성남 인물 연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國譜 彙一堂道稿』(上半部)(1998), 『女流文人 姜靜一堂』(1992)을 비롯하여,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2001)의 제7장 '성남의 인물과 문학'에서 고려시대 5명·조선전기 25명·조선후기 17명의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성남문화연구』,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토론회 발표논문집』 등을 통해 성남의 인물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인물 연구와 관련된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城南文化研究』

① 『城南文化研究』1(1994)

張三註, 「城南의 世別經正斗 人物考-道稿錄 中心으로-」

② 『城南文化研究』2(1995)

韓春曉, 「莫汗地城南 種土史 訂正。」

③ 『城南文化研究』3(1995)

張三註, 「금강동 쟁선 김씨에 관한 연구」

韓春曉,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④ 『城南文化研究』5(1999)

한준섭, 「浦口 李姓의 研究」

⑤『城南文化研究』6(향토문화연구소, 1999)

한화숙, 「1930·50년대의 여성운동과 集会」

한준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⑥『城南文化研究』7(향토문화연구소, 2000)

백남숙, 「조선후기 朝後 南士輔의 정치운영론」

한준섭, 「近現代 城南의 権力式論」

최교현, 「설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산미정신의 원형」

⑦『城南文化研究』8(2001)

백남숙, 「高麗末과 銀朝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연구」

문수연, 「설남시의 集村研究」

(2)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① 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향토인물연구-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예류문사 강정일당-(1997)

민병하, 「둔촌 선생의 성리학적 치위」

최영희, 「감자사화와 관리」

한준섭, 「한국 여성의 표상」

김미란, 「강정밀당의 생애와 문학」

② 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與과 金陵

南公翰), (1999)

신현봉, 「백현 이경석의 노경질선」

이은순, 「백현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강태선, 「백현 이경석의 시세계연구」

이장희, 「임조 순조년간의 학풍과 남궁정의 위상」

최교현, 「금릉·남옹정의 생애와 학문」

박순임, 「금릉·남옹정의 문학론」

③ 제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2000)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 생애와 사상」
최교현,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예국 - 속임운동」

④ 제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중), (2001)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중의 활동」
박순임, 「이중의 한시연구」
박경봉, 「이중의 생애와 사상」
고혜령, 「한산 이씨 문중 검토」

⑤ 제7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2002)

한준립, 「赤川 李之眞의 面白史 稿略」
최교현, 「淸白리 이맹태의 정치철학과 공자유리」

(3) 토론회 발표논문집

① 제1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松山 趙鼎 인물 연구), (1999)

한준립, 「松山 趙鼎 人物研究」

두 번째로 설남사의 경우 인물 연구와 관련하여『설남시사』(1993)와 토지박물관과 함께 간행한『설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 등이 주목된다. 1993년에 간행된『설남시사』는『설남시지』(1982)에 없었던 '인물'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설남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과 함께 간행한『설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에서는 설남시의 문화유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설남 주요 인물의 무덤 및 묘비나 묘관 그리고 무덤의 위치 및 무덤 주인공의 행적까지 설명함으로서 설남 인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로 경원대학교의 경우 학교가 주관한 성남의 인물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역사·철학부의 전화숙 교수가 성남의 한국근대 여성운동 및 성남지역 여성사를 선사시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전제적으로 살핀 것을 비롯하여 강사들도 함께 성남의 인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원전문대학 학보사에서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성남의 뿌리」(1989)를 간행하여 성남시 죠 銘名의 유래와 경작인은 물론이고 朝女안 벽계 도미의 카 등을 서술하였고, 1978년 개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을 간행하여 성남의 인물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네 번째로 경기도가 발행한『경기금석대관』(1990),『경기금석대관』5(1991년),『경기금석대관』6(1992)과『경기인물재(상,하)』(1991),『경기문화재대관』(1998) 및 경기도 박물관의『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1999),『경기문화유적지도』Ⅱ(2000) 등에는 성남에 있는 무덤·묘비·인물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대의 밝은 항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여성인물을 찾아서1)」(2001)에서 허난설헌부터 최용신까지 15명을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살펴보는 가운데 성남의 강정현당에 대해 聖人이 되고자 했던 주체성 강한 실학자로 소개하였다. 한편 경기도가 한양대학교와 함께 주관하여 간행한『성남 분당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89년)에 이어 나온『新唐地原 文化遺蹟 綜合 學術調查報告書』(1991)에서도 이중·한효순 등 성남지역 주요 인물들의 묘 및 신도비 등이 수록되었다.

2) 개인

개인의 성남 인물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 「성남의 인물」에서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인물을 다루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성남 지방사회와 관련하여 개별 논지를 간행한 장삼현과 한준심에 한정

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경원전문대학 직업윤리 교수인 장삼현은 1989년 학보사가 주관하여 ‘성남의 지명과 인물·남한산성사·팔주의 인물’을 수록한『성남의 뿌리』를 간행할 때 지도교수였고, 「성남의 세거성씨와 인물고분묘를 중심으로」(『성남문화연구』1,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4)에서 성남시에 소재한 墓를 중심으로 품계나 관직을 가진 성남시의 인물 651명 및 분당구 8개·수정구 6개·중원구 6개 등 성남 주요 성씨의 世居地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금광동 광산김씨에 대한 연구』(『성남문화연구』3,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5)에서 金光明에 은거하며 고려왕조에 피리를 지었던 金若時의 충절과 효도 및 조선시대 김약시의 후손 중 11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관직생활 등을 서술하였다. 이어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바탕으로 성남 45개 동의 유래와 지명 및 세거성씨를 비롯하여 성남에 인물에 대하여 ‘33개 성씨의 인물·新溫 및 封君人物·殉死·孝子·請白吏·抗日運動·著述’ 등을 수록한『성남의 지명과 인물』(해양문화사, 1997)을 간행하는 등, 성남 인물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시조사인 국문학자·성남지역 연구가인 韓春燮은『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城南文化研究』6,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에서 성남시 향토인물 선정의 기준을 ‘개인 문집이나 공동 판자 또는 성남시에 표소가 있는 경우와 성남시 세거성씨의 인물’로 한정하여,『성남시사』 및 장삼현 교수의『성남의 뿌리』와『성남의 지명과 인물』등에 수록된 인물 중에서 ‘고려시대 6명, 조선전기 24명, 조선후기 15명’을 성남시 향토인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자고 했다. 아울러『松山 趙弼 人物研究』(제1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松山 趙弼 인물 연구, 1999)에서 조선의 고려왕실에 대한 면치 않는 지조를 언급하였고,『斐川 季之直의 請白吏 精神』(제6회 학술대회논문집: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2002)에서 이지직의 청백리 정신을 밝히는 등 성남 인물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 동안『성남문화연구』1~8에 발표된 논문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성남 문화 유산』(동법사, 1999)에는 이楫·강정일당·한말 의병장 등의

인물이 수록되었으며, 문학작품을 통한 인물 연구가 돋보인다.

2. 성남의 인물

성남의 인물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의 이집·조견·김약시, 조선시대의 한계희·이중·이경식·남공철·갈정일당, 근대의 강위·남상목·윤치장·이명하·한백봉·한순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청백리인 이지직과 이명태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이지직은 아버지인 이집과 함께 그리고 이명태는 고조인 이중과 함께 서술하였다.

1) 고려시대

고려시대 성남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고려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려와 조선에 동시에 출사한 경우는 조선시대의 인물로 간주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가장 연구가 많은 이집을 비롯하여, 조견·김약시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① 李集(1327~1387)

고려시대의 인물 중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李集에 대해 우선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이집의 생애와 사상에 간략하여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가. 연구현황

우선 이집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趙正煥, 「李集과 신곡」, 『高李合輯』, 창간호, 1997.
- 李家烈, 「신도비명」, 『동춘선행 유고』, 1992.

- 閻內河, 「고려말기의 성리학과 문촌」, 『高李會報』, 2호, 1994.
- 閻內河, 「둔촌 선생의 성리학적 지위」, 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논
卷(通稿) 이집(李集)선생』,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1997.
- 尹思浩, 「둔촌 이집 한시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남복, 「道村 李集研究」, 『한국중세사연구』, 4, 1997.
- 한준섭, 「道村 李集의 研究」, 『朝鮮文化研究』, 5, 향토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

이중에서 이집과 관련해서는 이남복·민병하·한준섭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첫 번째로 이남복은 위의 「道村 李集研究」에서 이집의 父인 李衡이 地方의 慮史로 國子監試에 합격하고, 그의 다섯 아들이 모두 文科에 及第함으로서 廣州 이씨의 가문이 드러났다. 이집의 관직 경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고려후기의 대표적 지식인이다. 관료였던 三疇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며, 文章과 風義가 뛰어난 성리학자라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閻內河는 「고려말기의 성리학과 문촌」 및 「둔촌 선생의 성리학적 지위」에서 이집은 당대의 고별한 성리학자들과 교류하고 도덕과 문장이 뛰어났고, 皓然之氣를 길렀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본과 藉判書의 폐상을 성도한 후 아버지를 업고 경상도로 피신하여 4년간의 고초를 견디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민병하의 발표 「둔촌 선생의 성리학적 지위」에 대한 약점 토론자 조병로는 향토인물의 책관적인 평가는 그의 역사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제관 계획에서 제조명해야지 차듯 조상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夸張하여서는 않된다며, 고려중기 신유학 또는 원대의 실천윤리학적인 학풍이 둔촌 이집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며 고려말 사원전의 혁파나 전계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등에 대해 이집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한준섭은 「道村 李之直의 靑白吏 精神」(『제6회 학술대회논문집: 조선 시대 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2002)

에서 이집의 장남 추之直의 南白吏 賈신에 대해, 본인과 친구들의 漢詩를
불해 살폈다.

나. 생애와 사상

이집은 1327년(忠肅王 14) 李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廣州이다. 이집의 初名은 元鈞이고 字는 成老, 호는 里巖子 또는 南川이라고 하였다. 부인 鄭州 黃氏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으며, 21세인 1347년(忠穆王 3)에 國子監試에 합격하였고, 29세에 知貞寧 李公璽·同知貞寧 安輔에 의해 문과에 급제하면서 그들과 席主·門生관계를 맺게 된다. 忠肅王代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후炖은 권문세족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권문세족과 정치적 입장은 달리하는 신홍사족과 정치적으로 제휴하였다지만, 좌주인 이공수가 신돈의 집권 후 면직당하는 것 등으로 해서 이집의 신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1368년(광민왕 17·42세) 이집이 신돈의 잘못을 논박한 사실을 藝評書가 신돈에게 고자질하자, 이집은 다가온 罷를 피하기 위해 부친을 업고 妻子를 데리고 경상도 水川의 崔元道 집으로 피신했다. 1371년 신돈이 축출되자 개성의 옛 집으로 돌아와 새로 운 삶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이집을 集으로, 字를 沐然으로, 호는 蓮村’으로 고쳐었다. 1374년 廣尚道巡閱使를 따라 습浦에 出謫하였으며, 그 후 후駟大夫判典校事事에 제수되었다가 끈 사직하여 여주 川寧縣에 은거하였다. 1387년(祺王 13)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고, 후손들은 묘소가 위치한 중원구 하대원동에 墓居하였다. 조선 성종조에 좌증되었고, 1697년(숙종 23) 朋諱을 받은 鮑巖書院에는 이집 등의 위패가 모셔졌다. 이집의 세 아들 및 사위인 劉敵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다. 특히 청백리인 큰 아들 이지직은 初名이 途이고 자는 伯平이며 호는 南川이었는데, 1380년(고려 무왕 6)에 문과에 급제하여 충주 牧使와 關東의 按察使 등을 역임하였으며 1400년(조선 정종 2) 昭悼의 뜻때 賤文閣直提學으로서 檢諫하다가 罷를 당할 뻔하였으나 太宗 이방원의 배려로 罷를 면하

고 廣州의 崑川에 은거하였다.

한편 이집은 문집과 철의가 뛰어 났으며, 당대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이색·정몽주·이승인·정도전 등과 교류하였고 우희가 돈독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집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 상당한 정체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그 점은 이집이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퇴신한 정도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菩提의 실천자였고, 그의 시에는 莫民思想이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것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詩文集으로 『遁村遺稿』가 있는데, 1992년 국역되었다.

(2) 趙府(1351~1425)

가. 연구현황

조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연구가 있다. 韓忠熙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20 (1991))에서 「조선왕조실록」(태조·경종·태종·세종)을 참고하여 조견은 조선왕조에 출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형 趙府으로 인하여 개국 공신에 책록되었고, 형의 출사관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德義를 지켜 은거하였으며, 자손에게도 고려에 대한 철의를 당부하였다는 誤說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준섭은 「松山 趙府 人物研究」(제1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松山 趙府 인물 연구,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에서 몇몇 백과사전에는 조견이 개국공신으로 관직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평양 조씨 송산공 종회보와 기타 문중 기록에는 한결같이 조선개국 이후의 벼슬내력이 없다며 터무니 없는 생애 소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견은 不事二君의 정치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하였고, 인문철학을 몸소 실천한 송백같은 지조에서 오늘의 역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반대의 평가를 감안하면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물론이고 「조선왕조실록」 등 官撰史書와 평양 조씨의 문중 기록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조견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생애와 사상

조건은 1351년(충정왕 3) 父 檀德格와 母 고황 오씨 사이에서 여섯째 아들로 탄생하였다. 본관은 平壤이고, 初名은 廉이며 號는 松山이다. 檀德의 동생이며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31세까지 불경을 익히면서 여러 곳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1382년(우왕 8) 환속하여 정몽주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라 崑南按康使 등을 지냈다.

그런데 고려왕조가 멸망한 후 조건의 행적에 대해서는『조선왕조실록』과 『燕翼錄記述』 및 평양 조씨 송산공 종회보와 기타 문중 기록 등이 서로 다르다. 먼저 『太祖實錄』·『定宗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 등에 의하면 조건은 1392년(태조 1) 삼장군으로서 이설계 축대에 참여하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1400년(정종 2) 삼사우복아, 1405년(태종 3) 좌군도총제가 되고 평성군에 봉해졌다. 1419년(세종 1) 판우군도총제부사에 보임되었고, 1421년 71세로 퇴임할 때 세종으로부터 几杖을 받았으며 같은 해 평성부 원군에 封封되었다고 되어 있다. 반면 『燕翼錄記述』 및 평양 조씨 송산공 종회보와 기타 문중 기록 등에는 조건은 고려왕실에 대한 저조를 치렀다고 하였다. 즉 1392년(공양왕 3) 고려가 망하자 조건은 離面川(현재의 智異山)으로 隱居하고 이름도 里을 里으로 그리고 宇도 里大으로 고쳤다. 조선의 건국 후 李太祖가 仁智縣을 계수하고 편지로 불렀으나 사양하였고, 두류산에서 절계산으로 옮겨와 은둔하고 있을 때 이태조가 직접 찾아와 설득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았으며 자식과 손자들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감안할 때 조건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고려멸망 후의 조건의 행적에 대한 재관적인 검증이 요청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조건은 1425년(세종 7)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묘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미수동에 위치하여 있고 성남시 학토유적 제3호 지정되었다.

(3) 金若時(1335~1406)

가. 연구현황

김약시에 대해 張三益은 「金光洞 光山金氏에 關한 研究」(성남문화연구 3,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5)에서 陰村 金若時는 고려왕조에 의리를 지켜 조건 등과 같이 杜門洞 72번에 올랐으며, 김약시의 후손 중 忠孝·氣節·義理·德行·文章 등이 뛰어난 11명(金葉·金顯誠·金感·金彭翰·金止男·金顯男·金賢韓·金暉·金字仁·金宇亨·金得男)의 약력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박남옥은 「高麗末과 朝鮮初의 韓南地域에 관한 연구」(『城南文化研究』 8,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1)에서 고려말 조선 초의 성남지역의 역사를 개관하는 가운데 고려 말에 성난에 정착한 문촌 이집의 후손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조선시대 태조-세조대를 거치면서 韓忠派 지정하는 명문가를 이룬 반면, 김약시와 조건은 고려왕조에 대한 지지를 지켜 두문동 72번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나. 생애와 사상

김약시는 1335년(충숙왕 4)에 태어나 1406년(태종 6)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光山이며, 1383년(우왕 9)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進賢館直提學에 이르렀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등극하자, 김약시는 關京을 등지고 부인과 함께 걸어서 金光里에 온거하였다. 이성계가 직제학으로 임용하려 했으나 부름에 응하지 않고, 金光里 山谷洞에 은거하면서 여생을 마쳤다. 이렇게 두 왕조를 섬기지 않고, 고려에 대한 의리사상을 견지하였던 김약시는, 순조때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金光里라는 평칭은 인근 주민들이 광산 김씨가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생겨났으며, 금광동과 불어 있는 단대동 역시 충절을 지킨 분이 사신 곳이란 의미인 '丹崖'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1392년 김약시의 은거생활로 시작된 光山김씨의 금광동 정착은 1972년 개발 이전까지 약 580년 동안 지속되어, 현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은

광산김씨의 세거지였다. 김약시의 묘는 금광동 산에 있었으나,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광민산으로 옮겨졌다.

2) 조선시대

성남의 인물 연구는 조선시대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문수진의 「성남시의 팔성촌 연구」(『성남문화연구』8,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1)에서 '성남은 도성과 가까워 270여 개의 世居地가 있었고, 그 형성시기는 주로 조선 초기였다'는 지적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성남은 도성이었던 한양과 치리적으로 가까웠으므로 서울의 관세가들이 낙향을 하거나 선조의 묘를 쓴 후 후손들이 아주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의 조선시대 인물로 연구된 경우 대부분 묘소가 성남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성남인물에 대해 시대순으로 韓繼禡·李暉·李景瑞·南公權·姜群一堂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韩繼禡(1423~1482)

가. 연구현황

문수진은 「문경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제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문경공 한계희』,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0)에서 한계희는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되고 훈구세력의 중심에 서서 직무에 소홀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고 왕실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忠君愛國 사상을 견지하였으며, 성리학은 물론이고 불교와 도교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고 보았다. 한편 문수진의 약정 토론자인 한동희는 문수진의 견해에 대체로 동조하면서 한계희가 공신목에서 자신을 배답라고 한점 등을 감안하면 그를 훈구파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계희의 忠君 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종을 물아내고 왕이 된 세조를

반대하여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사육신의 忠君과 비교해서, 세조를 지지하였던 한계희의 행위를 忠君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 생애와 사상

한계희는 1423년(세종 5)에 父 韓惠와 母 成氏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淸州이며, 字는 子衡이다. 1441(세종 2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447년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正字에 임명되었다가 곧 集賢殿正字가 되어 7년 동안 침현전에서 근무하였다. 세조의 두터운 총애를 받아 1455년(세조 즉위년)에 세자무문학, 이듬해 좌팔선·침의, 1457년 예문관 직제학·세자무보탁으로써 경연과 세자의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그 후 여러 요직을 거쳐 146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조판서를 담당하였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하자 南山를 제거한 공으로 추증정난익대공신 3등으로 서원군에 봉해졌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순성명랑경제화리공신 2등에 책록되고 1478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1482년(성종 13)에 세상을 떠났으며, '大江輔國忠獻大夫議政府副議政溫文靖公'으로 추증되었다. 한계희 무덤은 聰碑地로 받은 현재 분당구 활동에 있으며, 그 곳은 청주 한씨의 김성촌이 되어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한편 한계희는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되고 훈구세력의 중심에 서서 왕권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렴하고 公平無私하였다. 그는 법전·의서·불서·사서 간행과 관련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우선 세조대에 『經國大典』의 書具 편찬은 물론이고 성종대에 『經國大典』의 교열작업을 담당하였고, 간경도감의 제조를 맡아 불경을 간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았으며 1464년(세조 10)에는 김수온·노사신 등과 함께 『金剛經』을 번역하였다. 이어 악방제조를 담당하였을 때 『의방유취』를 간행하였는데 의서의 편찬은 그의 민본사상과 연결되며, 1466년 이조판서로 재직시 최항·김국광 등과 함께 『東國通鑑』을 편찬하였다. 아울러 소격서의 제조를 오래 맡은 것에서, 한계희는 도교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계희는 忠君愛國 意識을 견지하

고, 유교·불교·도교사상을 두루 살펴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주증(1525~1600)

가. 연구현황

먼저 정은경은 「宜祖朝 정치세력의 동향과 李成桂의 활동」(제6회 학술회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1)에서 조선 중기 객번의 정치상황 속에서 북인계열이지만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증은 서인과 북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국시에 매진하였으며, 한산 이씨의 인물들을 추적해 본 결과 문중이 걸고 달파형설의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약정토론자인 백남록은 아천군 이증 등 한산이씨 가문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하여 혼인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증이 동인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천화숙은 문중이 당파형설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주된 근거의 하나이므로, 다소 예의가 있다고 하여 당파형설에서 문중의 영향력에 회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발표자의 결론에서도 이산보를 제외한 이산해·이증·이덕행·이기 등 대부분의 한산이씨들이 북인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박경룡은 「李成桂의 생애와 사상」(제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1)에서 이증은 문장이 뛰어났고 외교·국방에 높은 안목을 지녔으며, 행실이 바른 친형적인 선비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약정 토론자인 이연복은 그가 채임 하던 시기는 李·西당黨이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아천군 이증의 정치경향을 밝혀야 하고, 그가 국방의식에 높은 안목을 지녔다고 하는데 동시대에 활약한 이을곡·이궁익·유성룡 등의 문집 인물평에는 아천군에 대해 이 같은 표현이 보이지 않으므로 좀 더 연구성과가 축적된 후에야 그러한 평가가

직질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고해령은 「한산 이씨 문중 검토-중앙공원 내 한산 이씨 묘역을 중심으로」(제6회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중),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1)에서 이곡과 이색의 업적을 살펴본 다음, 중앙 공원 한산이씨 묘역내의 인물들에 대해 李廷龍·李旼·李之茂·李增·李廣直·李廷龍·李旼·李澤·李圭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약정 토론자인 조병로는 '이곡과 이색의 원에 대한 인식, 불교에 대한 다소 포용적인 이유, 고려말 대토지 사유화 전전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치향은 무엇인지 및 주증의 왜구 침입시 역할·이경류의 상주전투·도정 이지환의 사상'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중의 5代孫인 수조태(1688~1735)에 대한 연구도 있다. 즉 지교현은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 철학과 공직윤리」(제6회 학술대회논문집: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2)에서 청백리 이병태는 탕평책을 반대하였고, 활천군수 시절 음식·의복·거처 등을 극도로 검소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회생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약정 토론자인 전보한은 봉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탕평책을 반대한 이별태의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서승갑은 이상적인 청백리상과 실용주의적 청백리상 중에서 이병태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탕평책을 반대한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타당성을 지니는지 등을 지적하였다.

나. 생애와 사상

이중은 1520년(중종 20) 李之叔과 金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韓山이고, 자는 以謙이며 호는 北星이고, 李稿의 7대손이다. 1549년(명종 4)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60년 별시 문과에 명과로 급제한 후 명종 대에 승문원 정자·홍문관 부수찬·홍문관 수찬·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571년(선조 4) 이후 부교리·이조정랑·사헌부 킷의·승지·전라감사 등을 담당하였다. 1589년 渡長으로서 鄭汝立獄事를

多鞠하는 곳을 세워 이듬해 주雞功(主雞功) 3등에 책록되고 開川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가 遷避하게 되자 헬조관서로서 고양까지 호종하였으나, 넷째 아들이 상주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생겨 왕을 따라 가지 못했다. 즉 아천군의 6男중 4남 추慶流(1564~1592)는 임진왜란 때 朝鮮에 파견된 助防將 邊境의 종사관이었는데, 貢州에서 遷避使 李鍇의 지휘를 받으며 檀軍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다. 장례는 상주로부터 그의 爰馬 등에 실려 온 衣冠만으로 치루어졌고, 주인의 소식을 전한 후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울다가 죽은 애미의 무덤이 이경류의 묘소 아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임금을 호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은 1593년 1월 13일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의 단해를 받아 하루만에 물러나기도 하였다. 그 후 비변사 담상관을 거쳐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고 예조·공조판서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이중이 이처럼 주요 부서의 관리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청렴하고 성실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의 정치성향이 중도적이었기 때문이다. 1600년(선조 33) 75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大臣朝國忠獻大夫議政府領議政開川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이중의 무덤은 현재 문당구 수내동에 있으며, 수내동은 前山李氏의 世居地였다. 후손(이중·이경류·이제·이정률·이병태)인 李秉泰(1688~1733)는 자는 幼安이고 호는 重山이었는데 1723년(경종 3) 문과에 합격하여 주로 清要職과 합천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1796년(청조 20) 청백리로 선절되었으며 1811년(순조 11) 文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한편 이중은 행실이 바르고 청직하여 아첨을 하지 못했으므로 1564년(명종 19) 홍문관 正字로 있을 때 檢訂을 거슬려 北幕으로 좌천되기도 하였고, 1568년(선조 1) 명나라 조사가 왔을 때 홍문관 부수찬으로서 連接從事로 활약 만큼 문장이 뛰어났다. 이중의 국방사상은 1573년(선조 6) 승지로서 군적의 폐단과 북방 경비에 대해 건의한 것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1587년 서인 조현의 상소에서 폐구를 막기 위한 계책을 세우는 데에 적합한 인물로 등인이었던 이중 등이 거론된 점에서 이중의 군사적 지식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집의 문집은 유실되었고, 후손이 몇 회에 걸쳐 수집한 이집의 시와 설록의 관련기사를 엮은 『北崖道稿』가 있다.

(3) 李景奭(1595~1671)

가. 연구현황

우선 이경식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은순, 「李景奭의 政治的 生涯와 三田渡碑文 是非」, 『한국사연구』60, 1988.
- 이은순, 「老少論의 時局と政治-李景奭의 政治的 生涯와 三田渡碑文 是非」, 『朝鮮後期政治史研究』, 발간자, 1988.
- 이은순, 「백현 이경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白軒 李景奭과 國政 向外觀),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
- 신현봉, 「백현 이경식의 노경필선」, 『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白軒 李景奭과 國政 向外觀),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
- 강태선, 「백현 이경식 사세계 연구」, 『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白軒 李景奭과 國政 向外觀),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

이중에서 이경식의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조선후기 담쟁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한 이은순의 연구이다. 1980년 이은순은 『李景奭의 政治的 生涯와 三田渡碑文 是非』에서 이경식이 「삼전도 비문」을 친술한 지 30여 년 지난 후, 박세당이 이경식을 칭송하고 송시열을 論述하는 내용으로 「이경식 신도비문」을 작성하자 송시열을 지지하는 노론과 박세당을 지지하는 소론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야기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삼전도 비문」과 「이경식 신도비문」 등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爭論은 이경식과 송시열 그리고 박세당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양반 이후 국제질서와 사회변화속에서 국가재건과 민생회복 그리고 새로운 질서수립을 위한 이념투쟁인 동시에 서국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점론 대립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즉 明清交替로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聞에게 군사

적으로 굽복되어 對前事人 가 강요된 현실적 정치여학 관계를 인정하여 주자학적 派別義理에 얹매이지 않고 賢利外交를 펼치려 한 이경석을 지지한 소론과, 華夷論에 입각한 崇明事大主義 기초한 충시열과 그를 존중한 노론파의 정견의 차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충시열을 비롯한 노론측은 양단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국가재건과 민생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이념으로 주자학적 派別義理를 재화립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이경석의 정치적 생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론은 兩亂 이후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자학적 외리만 평목적으로 묵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발향에서 실리본적 이념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논문의 내용은 1988년 「朝鮮後期黨爭史研究」에 「李少淵의 時局觀論-李景奭의 政治的生涯와 三田叢書文 挑述是非-」으로 게수록 되었으며, 1999년 발표된 「백현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은 앞의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편 이은순의 「백현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에 대한 약정 토론자 조병로는 효종때 북벌계획이 李景奭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져 章廟이 있었을 때 이경석은 관련자를 비호하였다는 점에서 송시열이 승병북벌을 내세워 이경석을 폄하하였다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경석에 의해 밟탁된 충시열이 이경석과 대립하게 된 데에 대한 順承관계나 성리학적 이념차이 등을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신현봉은 「백현 이경석의 노결정신」(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선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에서 李謙정신이 이경석의 생애를 일관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삼전도 비문을 작성함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유품을 뒤집어 썼다고 보았다. 하지만 약정 토론자인 조재근은 이경석이 삼전도비문을 작성한 것은 노결정신의 표출이 아니라, 성리학적인 名分論보다 현실타협적인 입장은 존중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생애와 사상

이경석은 1595년(선조 28) 李惟倪의 離職任所인 충청도 제천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순州이고, 자는 相輔 호는 白軒이다. 定宗의 10子 德川君 추후생의 6代孫이다. 10세 전후부터 18세 연상의 伯氏 李景稷에게 글을 배웠으며, 程朱 위주의 학문에 청진하였다. 19세인 1613년(광해군 5) 진사가 되고 1617년 중광별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仁穆大妃의 唐妃上訴에 가담하지 않아削籍되었다. 1623년(인조 원년) 양성시에 급제한 후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檢閱·奉敎 등 清職을 역임하였고, 1624년 이괄의 난 때에는 승정원주서로 호종하여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1626년 이조 좌랑과 이조 정랑에 올라 인사행정의 실무를 맡았으며, 1627년 경묘호란대에는 醫巫使 張旼의 訂事官이 되어 강원도 군사의 모집과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1632년 대사간에 제수되었는데, 父 惟虹과 큰 형 景稷이 모두 宰列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1636년 계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고, 인조가 항복한 뒤 도승지에 발탁되고 曾文闡提學을 겸임하여 『三田復辟文』을 찬술하였다. 1641년 청에 불모로 간 昭顯世子의 虎節가 되어 심양에 있다가, 청나라 선박이 宣川에 정박한 사건을 조사하라는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西北지역에 되돌아 왔으나 조선의 관련사실을 두둔하다 清帝의 노여움을 사 멀구희 관리로 둘용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귀국하였다. 3년 동안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晉州의 板橋와 石門에서 은거하다가 1644년에 복직하여 이조판서·우회정·좌회정을 거쳐 1645년 55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올라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1650년(효종 1) 효종의 북벌계획이 주産 린 등의 밀고로 청에 알려져 조사를 받았는데, 이경석은 국왕을 비호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청제의 별예 피해 白馬山城에 囚籬安置되었다. 1653년 풀려나 영중추부사로 임명되었고, 1664년(현종 5) 善老所에 들어갔으며 1668년 几杖을 하사받았다. 1684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묘는 분당구 석운동에 있으며, 석운동은 이경석의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저서로는 『白軒集』등이 있다.

이경식은 仁祖·孝宗·顯宗 등 3代 50여 년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丁卯胡亂, 丙子胡亂 후의 국가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 번째로 朝清外交에서는 丁卯胡亂, 丙子胡亂 이후 청나라의 외교에서 晉明義理에 바탕을 둔 주자학적 명분론에 얹매이지 않고, 明清交替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反朱子學的 實利論을 전개하면서 隨後의 國家再建에 전력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이경식의 정치사상이 잘 드러난다. 두 번째로 이경식은 당색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며,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豊色 제거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으며, 숨은 인재를 찾아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이경식을 배척한 송시열도 이경식이 천거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정책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軍閥과 養兵과 갈화보다는 恒民策과 均賦策을 추진하였다. 즉 우의정으로 재직하던 1646년 진휼정책에 힘을 다하였으며, 영의정으로 재직시 우의정 김육이 건의한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이경식은 높고 귀한 자리에서도 향상 노고를 감내하는 積謙절선이 일생 동안 한결같았으므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명예를 탐니하지 않고 안일함에도 짓지 않았다고 한다.

④ 南公轍(1760~1840)

가. 연구현황

백남욱은 「급물 남공철의 정치활동」(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雨과 金陵 南公轍),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 및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城南文化研究, 7,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2000)에서 남공철은 정치운영의 모순을 과거제도와 문관인사의 폐단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여 변생을 억제시키려 하였지만, 설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는 보수적인 학문과 정치성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치교현은 「급물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雨과 金陵 南公轍),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와 「성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城南文化研究』,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0)에서 남공철은 「儒에 말미암지 않은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불가·도가의 경전을 도외시하고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였다. 하지만 주자학을 지극히 높이면서도 양명학은 찬양하였고, 학문이 正道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문장이 實用에 합당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과 같다고 한 점에서 남공철의 학문적 태도를 正道와 實用으로 보았다. 한편 박순임은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제4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昌潤과 金陵 南公徹),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9)에서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도를 인정한 남공철의 사고는 매우 진보적이며 파격적이었는데, 그 원인은 시대적으로 크게 변화가 요구되는 과도기라는 점과 복학파 인물들과의 교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공철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며 그가 보수적인 정치인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정치인이나의 평가를 위해서는, 그와 동시대에 살면서 보수파로 지목되는 정치인 및 실학자로 분류되는 인물들과의 정체제도 개혁론이나 學統·家系 등을 면밀하게 살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생애와 사상

남공철은 1760년(영조 36) 서울에서 父 南有容과 母 안동 김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元平, 호는 思穎·金陵이며 본관은 宜寧이다. 1763년 4세부터 부친으로부터 受學하였고, 10세에는 모친으로부터 「논어」와 「맹자」를 배웠다. 13세에 韓昌和의 딸과 혼인하였고, 16세에 古文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史馬遷』과 『歐陽修』의 글을 좋아했는데, 특히 구양수의 문장을 厲正한 법도라 하여 존중하였다. 1780년(정조 4) 20세의 나이로 초시에 합격하고, 아버지가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1784년 藍浦로 세마를 제수받은 후에 산청과 일실 현감을 지냈다. 1792년 53세로 전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규장각 칙과·사간원 현납·홍문관 응교 등을 역임했으며 「生平手稿」편찬에 참여하여 정조의 우대를 받았다. 좌부승지·병조참의를 거쳐 1796년 대사성이

된 후 후진교육에 힘썼다. 1800(순조 즉위년) 貞純王后가 垂簾聽政할 때 남공철은 김조순 등과 함께 韶謙閣臣 4인이 되어 索道에 나갔으며, 부제학이 되어 『正宗實錄』번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공조판서·대제학·병조판서·무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후 1823년 영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영충 추부사가 되었다가 1827년 다시 영의정이 되고 『五子銘』의 일무도 맡았다. 1828년 영의정으로서 水災에 필요한 비용을 세자에게 알도록 책자를 만들게 하였으며, 1832년 73세때 宮闈營造와 災異防止 등에 건의를 하였고 『昌勤大將』이 되었다. 1833년 首川의 『後事』를 마치고 나서 베슬길에서 물러났으며, 1840년(현종 6) 81세에 세상을 떠났다. 현재 수청구 글토동에 묘소가 있다.

남공철은 어려서부터 자운 韓愈라고 할 정도로 학문과 문장이 탁월하였고, 연암 박지원으로부터 六經古文을 터득하여 학문을 성숙시켰으며, 김조순을 비롯한 당대의 명망있는 인사들과 넓은 교유관계를 맺었다. 남공철은 무려 49년이라는 관직생활을 하였고 고위관직을 오랫동안 역임한 점에서 정치적 조화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정치활동은 순조대에 두드러졌다. 그는 당시 정치의 모순을 과거제도와 문관 인사의 폐단으로 보고 직무를 公明正大하게 처리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 했는데, 이것은 예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생안정책이었다. 그의 학문은 六經에 말미암지 않은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는 신념으로 불교와 도교의 경전을 도의시하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였지만, 陽明學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공철은 한편으로는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는 보수적인 학문과 정치성향을 띠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학문성향도 엿보인다. 저서로는 『金陵集』·『初齋續稿』·『初齋再續稿』·『歸愚堂集』·『高麗名臣傳』 등이 있다.

⑤ 姜靜一堂(1772~1832)

가. 연구현황

먼저 姜靜一堂에 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全承吉,「靜一堂遺稿」,『國研資料』3-1, 1974.
- 李榮子,「靜一堂의 文學研究」,高麗大學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준섭·金林平,『鄉土文化의 人物 (1) 女流文人 姜靜一堂』,『성남문화원』, 1992.
- 한준섭,『鄉土文化의 人物 (1) 女流文人 姜靜一堂』,『성남문화원』, 1996.
- 한준섭,「한국여인의 표상」,『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여류문화 강정일당』,『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7.
- 한준섭,「여류문인 강정일당」,『성남문화유산』, 둘째사, 1999.
- 김미란,「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제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여류문화 강정일당』,『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7.
- 이순구,「조선후기 경기예성지식인의 생활실학」,『山區地域과 真理思想』, 한국철학연구회·경기사학회, 1999.
- 李廷春,「姜靜一堂의 生平과 學問」,『朝鮮時代史學報』, 13, 2000.
- 경기도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려고 걸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경기女性, 2001.

이 중에서 한준섭·김미란·이영준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준섭은『鄉土文化의 人物 (1) 女流文人 姜靜一堂』에서 향토문화의 인물 강정일당의 생애 및 習德을 지닌 문인의 위치 등을 살펴보았고,『한국여인의 표상』에서 생안의 도를 깊이 살펴 그 이치에 따라 살았던 강정일당을 성남시민의 어른으로 추앙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큰 인품은 한국여인의 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미란은『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에서 강정일당은 아이들과 남편에게 성현과 같이 되기를 기약하며 공부에 힘쓰라고 하였고, 성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데도 여인들이 太祖이나 太祖와 같은 훌륭한 여자가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라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추迎春은 「姜靜一堂의 生平와 學問」에서 姜靜一堂은 任元黎堂(1721~1793) 보다 50년 후에 태어났지만 그녀를 사숙하여 여성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강정일당은 임윤지당처럼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도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인의 경지를 목표로 한 강한 理志와 결단을 보였으며, 학문과 수행의 기본적 원리를 즐용에서 찾아 실성의 수양을 위한 誠과 敦의 공부에 몰두하여 安心立命의 경지에 이르러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安心自足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비록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회활동·교육·문화에 대한 제약은 심하였지만, 학술과 문예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강정일당처럼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한 것은 18세기 이후 여성들의 의식성장을 보여주며, 이것은 근대적 맹아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 생애와 사상

강정일당은 1772년(영조 48) 충청도 청천에서 父 錠在侯와 母 安東權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晋州이고, 호는 靜一堂이다. 정일당의 어머니는 權龍亞의 동생 權潤明의 女孫이었다. 정일당은 20세에 6살 연하의 충주의 尹光庭(과 결혼하였는데, 시어미니는 許文으로 평성이 높았으며 호가 静一堂이었다. 시가와 친가는 명문의 후손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였다. 때문에 정일당은 혼수를 해갈 형편이 못되어 결혼 후 3년이 지난 후에 시집으로 갔으며, 남편은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여러 지방을 다니며 산업활동을 하다가 작은 재산마저 당진하였다. 고향에서 경제적 기반을 살피한 후 정일당 부부는 서울 근처로 거처를 옮긴 후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일당은 삶마느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아이를 9명이나 낳았으나 모두 1년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만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짊아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형제와 친척들의 혼례와 상례를 치루어 주기도 하였다. 정일당은 결혼 전에도 교육을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학문을 익힌 것은 시집은 후였고, 남편이 학문을 할 때 끝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였다. 정일당은 몸이 허약하여 평생

을 고생하였는데 1822년 큰 병으로 사흘 동안 기절한 후 소생하였을 때 그가 평생 저술한 「答問」·「編言」·「行錄」 등 수필권을 유실하였고, 1832년(순조 32)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현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으며, 1986년 성남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었다. 1989년 과행 윤씨 종친회에서 금토동에 정일당의 祠堂을 지은 후 1998년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재조성되었으며, 1992년부터 성남시에서는 정일당의 인격과 기풍을 기리기 위해 '강정일당 상'을 제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시상하고 있다.

한편 강정일당은 여성이라도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를 도달할 것으로 믿었고, 진정한 도를 얻지 못하면 살아도 즐거움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학문과 수행의 기본원리를 중용에서 찾아 성과 경의 공부에 몰두하는 등 수양과 실천을 통해 만년에 성품의 본래 면모를 체득하였고, 安心立命의 정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정일당은 藥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와 글씨 등이 뛰어났다. 시의 주제는 '학문에 대한 집념·신성수양·도덕적 교훈' 등 진리를 탐구하고 군자다운 자기 철학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며, 서체가 매우 강건하고 단정한 것은 부단한 연습과 간인한 심성수양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시문집으로 『정일당유고』가 있으며, 1998년 성남문화원에서 『정일당유고』 중 「詩·銘·書·尺牘·別紙·記·說·題跋」을 국역하였다.

(6) 기타

장창현은 「城南의 世臣姓氏와 人物考-墳墓를 中心으로-」(『성남문화연구』1,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4)에서 성남에서 世居하였던 姓氏 중 자손이 번창하고 출세하여 훌륭한 人物을 배출한 성씨가 '분당구 8개, 수정구에 6개, 종원구에 6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인물연구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분당구의 경우 '석문동의 전주이씨 이경석, 수내동의 한산이씨 이중·이병태, 율동의 청주한씨 한계희'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구미동의 전의이씨, 궁내동의 전주이씨,

을동의 순홍안씨, 정자동의 주희壽의 후손, 관교동의 연안이씨' 등 5개 성씨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수정구의 경우 '금토동에 무덤이 있는 강정일당 및 의령남씨인 남공철, 복정동에 무덤이 있는 전양(진주) 강씨인 강위(근대의 인물에서 서술)'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고등동의 탁수이씨, 금토동의 남원윤씨와 안동권씨, 신홍동의 동래정씨' 등의 인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세 번째로 중원구의 경우 '금광동 광산김씨 및 하대원동의 광주이씨 이집·이지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도촌동의 고성이씨, 상대원동의 여산옹씨, 여수동의 전주이씨, 하대원동의 칠원윤씨' 등의 인물 연구는 없다. 비록 자료가 전혀 없거나 매우 소략한 경우도 있겠지만,『조선왕조실록』CD-ROM 및 전산으로 일련되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되는『비변사동록』과『승정원일기』 그리고 문집·金石文·『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조하면 인물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내용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 근대

성남지역의 근대 인물과 관련하여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강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비교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강위는 물론이고 의병장 날상복·윤치장·이명하 및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한백봉·한순회 등을 통해 성남의 근대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① 姜位(1820~1884)

가. 연구현황

강위는 조선후기의 인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가 1876년 開進 이후에도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의 인물로 설정하였다. 우선 강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李光熙, 「慈禧의 人物과 思想에서 開化思想으로서의 蔡熙의 一斷面」, 『中華학지』, 17, 1976년이 논문은 「朝鮮開化思想研究」, 『朝鮮』, 1979년에 제수록되었음.
- 김현기, 「慈禧 1835-1884의 關作思辨研究」, 경희대 석사논문, 1984.
- 진명희, 「慈禧의 詩文思想」,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주승연, 「慈禧 蔡熙의 思想과 文學觀」, 「朝國學報」, 43, 일지사, 1986.
- 주승연, 「慈禧의 思想과 文學觀에 對한 考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주승연, 「慈禧의 關化思想과 朴文政」,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글문화연구소, 1991.
- 주승연, 「慈禧의 關化思想과 朴文政」, 「연동한문학논집」, 6, 1997.
- 박영경, 「慈禧의 현실인식과 개화사상」,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장선희, 「韓國 五代의 慈禧 研究 : 蔡熙과 之計活動을 중심으로」, 천남대 박사논문, 1997.
- 이혜순, 「慈禧의 朝鮮에 나타난 시대정신」, 「이화여문논집」, 15, 1997.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강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시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그의 시가 개성이 뚜렷하고 관습적인 표현을 배격한 창신성으로 인해 당대 최고의 시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개화사상에 대해서도 몇몇의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광린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광린은 개화파와 개화사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냈는데, 「慈禧의 人物과 思想-貢學에서 關化思想으로서의 轉換의 一斷面」에서 강위는 실학자 閔魯植과 金正喜 밑에서 經學을 배웠는데 洋夷의 침범하에 있는 중국을 1873~1874년 2차례 시찰하고 나서 洋夷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실학사상을 개화사상으로 전환시켰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의 사상적인 전환에는 중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영향 때문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중인들이 역관으로써 중국 등을 다녀와 해외사정에 밟았지만 신분이 낮아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자 양반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계몽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강위는 詩와 사상사적인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광주군 중부면 복정리(현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는 강위의

선조들이 고려후기부터 세거하였던 지역이고, 강위도 이곳에서 탄생하고 문학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학보인물로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가 남긴 문집이나 기타 저작이 1978년 아세아문화사에서『姜珥全集』上·下로 영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의 인물인 강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성남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나. 생애와 사상

강위는 1820년(순조 20)에 경기도 광주군 충부면 북정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菖陽(昌州)이다. 이름은 城·性鵠·璋(文璉)이고, 자는 仲武·堯章, 호는 秋琴·慈紀·聽秋園·古雅堂 등이었다. 어버지가 부과를 거쳐 公州 醫判 등을 역임하였으며, 형·큰 아들·손자 2명이 무과에 합격하였다. 강위는 어렸을 때 痘瘍하여 11세에 서당에 갔고, 14세에 향시를 보았다. 그 뒤 서울에 올라와 영의정을 지낸 韓元容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의 손자 韓健朝와 함께 공부하다가 24세에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버리고, 關學行 문하에서 4년간 程學을 배웠고 그가 죽자 스승의 뜻에 따라 제주도에 유배중인 金正煥를 찾아가 3년간 지도를 받았다. 1848년 김경희가 석방되자 함께 서울로 되돌아 왔다가, 1년 뒤 김경희가 복청으로 유배를 가자 다시 따라 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 30세 이후에는 전국을 두루 유람하면서 시를 썼다. 1862년(철종 13)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난 후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렸을 때 친구 정건조의 요청으로 2만 9천여 자에 이르는 시무책『擬三故絲弊策』을 작성하였지만 田政·軍政·選舉에 관한 개혁안이 너무 혁신적이라며 제출하기를 꺼리자 불살라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다. 강위는 중국을 1873~1874년 2차례 시찰하면서 洋夷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정하였고,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규수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항을 주장하였으며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때 仲愬으로 참석하였다. 1880년 김옥균의 추천으로 修信使 김홍길의 書記로 일본에 가서 동양 삼국이 합세하여 서양인으로부터 도록을 당하지 말자는 黃亞을의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중국대사관의 참관으로 파견된 黃道憲의 聘美

拒俄策을 적극 지지하였다. 1882년 김옥균의 渡日 때 동행하였다가 王午軍
變 소식을 듣고 김옥균 등은 귀국하였으나, 강위는 중국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돌아온지 1년 만 뒤인 1884년 4월 5일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현재 성남
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하여 있다.

강위의 사상 형성에는 김정희의 영향이 지극히 커졌다. 강위는 憨學多識한
김정희로부터 배운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스승
의 자유스러운 생활태도를 배워 학문에까지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강위는
유학은 물론이고 考學 및 金石文을 강조하는 김정희의 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불교·유양법 등 유학 이외 분야의 책도 섭렵하였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전국을 방랑하였다. 한편 강위는 중인들과
가까이 어울렸는데 그들은 선분이 높지 않고 학문과 시문에 능한 사람이
많았으며, 해외사정에도 밝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양반 혹은 刑罰의
특권을 없애어 귀친의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
은 해외물정에 맑은 중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중국을 여행하면서 洋書의
군사면에서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화사상으로 전환된다. 문길과
해외 여행 때의 일기 등을 수록한 『義兵全集』 상·하가 1978년 아세아문화
사에서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② 남상목 · 윤치장 · 이명하(의병장)

가. 연구현황

성남의 의병장 남상목·윤치장·이명하에 대한 인물 연구로는 한준섭의
『城南지역 義兵史 연구』(『城南文化研究』3,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
소, 1995)와 『近現代 城南의 歷史試論』(『城南文化研究』7,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0)이 있다. 우선『城南지역 義兵史 연구』에서는 義兵將
남상목·윤치장의 功勳記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近現代 城南의 歷史
試論』에서는 남상목·윤치장은 물론이고 이명하의 공훈기를 추가로 살펴보

았다. 하지만 날장목·윤치장·이명하 의병장에 대한 훈장 추서 내용 및 윤치장의 체포사유 등에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대한민국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의병장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비록 자료가 부족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병장의 가계와 학통 및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남상독 의병장에서 드러나듯이 의병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성남 지역 의병운동의 지역적 특징과 차이를 참여계층이나 의병장의 신분 분석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생애와 사상

기) 南相程<南相基>(1879~1908)

남상독은 1876(고종 13) 경기도 광주군 낙성면 하신리에서 父 南哲眞과 母 함평 이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范陽이고, 자는 文一이다. 儒家風 가정에서 자라나, 유년기에는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小學·孝經·論語·四書 등 四書에 몰두하였다. 철제산 기슭 '드풀암'의 울창한 수목을 일개가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위해 낙생·언주·돌마면 등 3개 농민을 총동원하여 벌목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감독이 마을 주민을 혹사하면서 감정 대립이 생겼다. 이에 날장목이 주민의 대표로서 항의하다가 체포되어 육설과 배절을 당한 후, 일개를 증오하여 28세의 나이로 家事를 계쳐 두고 향일 의병 대열에 나서게 되었다. 1907년 7월 경인도 용인군 용천곡을 중심으로 의병 50여명을 휘하에 두고, 구식총 10자루와 拳銃 10자루로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 후 음성전투에서 패한 후 폐천군 30여 명을 이끌고 竹山 칠정사에 이르러 전봉구 휘하의 의병 100여 명과 합세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안성으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08년 11월 판교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다 일제 알잡이의 밀고로 인하여 '느릿골'에 잠복 중인 일본 현병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창파일로 서대문 형무소에

사 1908년 11월 4일 순국하였다. 묘소는 청계산 뒷내골에 있다가, 대전국립묘지 해국지사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3년 전국포장을 그리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c) 尹致章(1876~1972)

1886년(고종 13)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에서 生 尹致章과 母 沈槐
生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8세 때 詞堂에서 小學·孝經·論語 등을 익혔고, 향리 先代의 가풍을 이으며 15세에 韓昌山과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다. 1907년 군대해산에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5년 음력 10월 광주군 낙생·연주 등에서 의병 70여 명을 규합하여 광주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음력 12월경 광주군 黑洞에 주둔한 일본 기병대와 전투를 하였고, 부하 8명이 전사하였다. 1908년 2월 충군장 오사과 외 2명으로 하여금 광주군 연주면에 사는 박승호로부터 군자금 100원을 거두고 그를 의병에 입대하게 하였으며, 이어 박승호에게 돈 40원을 주어 경성에 가서 탄약을 구입하도록 맹하였다. 1908년 10월 11일 일주에서 체포된 후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어 1909년 1월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꿈소 결과 15년으로 단축되었고, 일본왕실의 왕자 출생으로 1923년 석방되었다. 1972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묘소는 청계산 자락의 성남시 수진구 금토동 뒷산에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어 1983년 전국포장을 그리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d) 朱命憲(1878~1921)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에서 1878년(고종 15)에 출생하였다. 別名은 桂九이고, 字는 又文이며 호는 參學이다. 楠臘齋의 문인이다. 1902년 대한제국 제천군 主事를 역임했고, 1905년 황학수 등과 함께 제천에 東明學校를 설립하였으며, 1907년 유인석 의병장 밑에서 소모장으로 활약하여 친일파인 청풍·단양·영춘군수를 참살하였다. 1919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3·1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 이후 10월에 만주로 망명하여 安東縣 三道溝의 독립

군 제3지대원에 소속되어 1920년 河野 순사부장 등을 살해하였다. 같은 해 三道講師 중국인 藤吉末 집에서 평북 계삼부일경찰대에게 포위 습격을 받아 교전하다 김근태·백학원·안중석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장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3) 한백봉 · 한준희

가. 연구현황

지교현은 「율동 광주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제5회 학술 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회, 성남문화원 부산 향토문화 연구소, 2000)에서 문당구 율동에 세거한 청주한씨의 인물 중 1919년 율동 만세운동을 주도한 韓百鳳과 1927년 신간회 광주지회 초대 지회장이며 1937년 중일전쟁 직후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는 韓顯魯 등의 애국·독립운동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약정 토론자인 박순임은 다른 집성촌과 달리 이 지역에서 애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데에는 문중의 결속력이나 영향력이 커울 것이라며, 율동에 한씨 집성촌이 만들어진 후 조직 및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문중 조직의 정신적 구심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어 한준섭은 3·1운동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심층도 있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생애와 사상

① 韓百鳳(1881~1950)

한백봉은 1881년(고종 18)년에 한란의 29세 손으로 태어났다. 자는 聖儀, 호는 桑軒, 본관은 청주이다. 광주군 둘마면 東里에 거주하였으며, 1919년 고종 황제의 인선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광주의 유지들과 만나, 고종의 장례식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3월 26일부터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을 의논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중 어른들과 마을의 원로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읍·동과 인근의 주민들에게 민생운동의 청당심을 주지시키고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유창식·한순회등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제1대 낙생면장을 역임하였던 남태희와 협의하여 둘마면과 낙생면이 연합하되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거사일을 분당리의 장날인 27일로 변경하였다. 26일에는 마을 뒷산의 봉화를 피웠으며, 3월 27일 분당리 장터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고, 한백봉의 선창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군중들은 둘마면 내의 각 동리를 순회하면서 시위운동에 돌입하였고, 남태희가 이끄는 낙생면민은 물론이고 대왕면민이 합류하여 서위군중은 3000여 명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자 횃불을 들고 밤늦도록 행진하였다. 28일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3000여 명이 둘마·낙생·대왕면을 오가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시위 군중은 남한산성안에 주둔한 현병 1개 소대의 무력진압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한백봉은 체포되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1년형을 언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속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전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4) 韓順會(1885~1964)

한순회는 1885년(고종 22) 태어났으며, 한란의 28세손이다. 호는 霽菴이고, 본관은 칠주이다. 광주군 天道教區長이었던 그는 1927년 8월 좌우합작 운동단체인 신간회 초대 廣州支會長으로 선출되어 읍동의 한백봉·동부면의 유인목·경안면의 박기환 등과 함께 지회활동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신간회가 해체된 1933년 이후에도 한순회는 김제계·최준문과 더불어 일제구 축과 조국독립을 기원하는 특별기도문을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매일 식후마다 외우게 하여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에는 김제계·최준모·홍준의와 함께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국독립의 호기를 가지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 회사금 모집에 나섰다. 그리하여 유력하고 독실한 천주교도들로부터 비밀리에 324

원을 보금하였다. 이 사실이 일경에 포착되어 1938년 3월 4일 布施 제7호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동년 5월 12일 석방되기까지 옥고를 치루었다. 1964년 세상을 떠났으며,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④ 기타

한편 한민 외병운동이나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항일운동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친일과 이완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주元用의 生家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의 이미지를 손상시킬까 염려하지 말고, 씻을 수 없는 대국노의 오명을 쓴 이완용에 대한 연구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경계를 살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까지 성남의 인물연구에 대하여 기관·개인의 역할 및 고려시대·조선시대·근대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에 대신하여 성남 인물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를 전망하려 한다. 첫째 향토 인물에 대한 연구는 예향실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육지와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이상으로 향토 인물을 미화하는 것이나 개별 가문의 지나친 豪强사업 등은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실제로 성남의 인물 연구에서도 그 사람의 한계를 지적한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대체로 실제 명백한 사료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훌륭하고 뛰어난 절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자료도 활용하여 객관적인 인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둘째 한 인물의 평가를 그가 살아온 생애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도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선택이나 행위를 할 때 나이 또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한평생을 살다보면 할 수도 있으므로 생애를

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功過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집·금석문 및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료를 치밀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아울러 朝鮮王朝實錄 CD-ROM이나 현재 전산작업이 꽤 진전되어 조선후기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제공하여 주는『備邊司機錄』 및 『承政院日記』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인물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서 태 원〉

편집 후기

21세기의 한국 문화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자 충체적인 생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생활사는 그 자체로 역사이며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중요성만큼이나 오늘날 선인들의 문화를 전승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후손들에게 온전히 아니, 한 걸음 성숙된 문화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수 천 년 내려온 이 지역의 생활사가 개발이라는 발전 지향적인 정책에 그냥 파묻혀 버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한국문화의 아주 작은 단편을 읽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은 청남시민들의 크나큰 기쁨이자 자랑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의 종합적인 개발 발표가 있는 직후부터 판교 지역은 여러모로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지역은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번 성남문화원 연구보고서의 「관교마을자(1)」는 작년 보고서 「관교마을자(1)」에 이은 후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전년도의 보고서에서는 「관교동」만을 집중 조사·연구했었고, 이번에는 그 밖의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지의 모습을 글로서만이 아니라 세세한 지도로 단기기 위한 작업이 성남시의 지원으로 2003년 사업으로 실행하게 되었음을 더 할 수 없는 보람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관교마을자(1)」의 빨간 눈 앞에 두고 본 연구의 책임자로서 가깝게는 1년 밀계는 2년 동안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이대협 성남시장님과 김상현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을 포함한 성남문화원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의 자문위원이었던 조유천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님, 이호경 전 경원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님과 도현철 연세대 사학과 교수님에게도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될을 솔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함께 「관교마을자(1)」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와 답사를 통해 훌륭한 친교를 작성해주신 김필진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정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거나 기왕의 보고서와 비교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선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님, 서승갑, 서태원, 조재근, 김덕목, 김진호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및 여러 김필진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부분에서 조언하신 이찬우님과 사진촬영 그리고 자료수집에까지 자신의 일인양 최선을 다해준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박슬기, 이순영양의 노고도 치하하고,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만들어주신 국학자료원의 경찬용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3년 12월

연구책임자 원화숙
경원대 박사·철학부 교수

편집위원

연화숙 김진호 서승갑 조재곤

집필진 소개

연화숙 : 경원대 역사·철학부 교수
이상배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실장
조재곤 :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서태원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덕목 : 국립문화재연구소 배동민족연구원
서승갑 : 건국대 강사
김진호 : 경원대 강사

발행일 : 2002년 12월 31일
발행처 : 삼남문화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미래동 96-2
전 화 : (031) 781-1020, 2802
팩 스 : (031) 709-5246
민 해 : 삼문만해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